

# 예수말씀




해외한인장로회




**뉴욕에일장로교회**

YALE KOREAN PRESBYTERIAN CHURCH IN NEW YORK



For the message of the cross is  
foolishness to those who are perishing,  
but to us who are being saved  
it is the power of God. (II Cor. 1:18)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전 1:18)



# Contents

<b>권두언</b> 거꾸로 살기로 한 사람들	김종훈 담임목사_4
<b>발간사</b> '예수마을' 이야기	김근태 장로_5
<b>교역자 칼럼</b> 37년 주님과 걷다	채문권 목사_6
Philosophy of Ministry	유명근 전도사_12
네팔의 새 희망	조유경 사모_15
<b>선교칼럼</b> 제1대 서리집사를 임명 준비(필리핀)	박인호 선교사_18
Masaya para Cristo!(니카라과)	이동홍 선교사_21
니카라과 단기선교 한방사역	권미자 권사_22
Work Camp Testimony	Jennifer Lee_34
<b>알바니아 단기선교</b> 첫 선교사역의 은혜	도명원 집사_25
알바니아 단기선교를 다녀와서	현정원 집사_26
또 한번의 깨달음	박재우 집사_28
What I learned in Mission	대니얼 최_30
Mission Testimony	Evelyn Chon_31
Missions 2016 Albania	Josh Choi_33
<b>마더와이즈</b> 나를 택하신 주님!	김지애 집사_35
'회복'을 마치면서	노애라 집사_37
'회복'을 마치며	오지아 집사_39
마더와이즈를 마치며	이경화 집사_40
'회복'을 마치고	한문차 집사_42
<b>제자훈련101</b> 값진 은혜의 시간	김태근 집사_43
101제자훈련을 하고 나서	홍진식 집사_45
아름다운 사람	강은숙 집사_56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서은순 집사_58
믿음이란 진정 어떤 걸까?	심경희 집사_60
예수님 닮기	박수범 집사_61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	김봉환 집사_62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	이희영 집사_63
온전히 섬기는 삶을 소망하며	임수연 집사_65
<b>제자훈련201</b> 201 제자훈련을 마치며	김은영 성도_46
온전한 변화	도명원 집사_47
하나님 바라기	이상희 집사_48

그리스도의 집 짓기	강수아 집사_49
시각 바꾸기	김종안 성도_50
두려움 극복하기	김희순 집사_51
좋은 토양 만들기	양순희 집사_52
영혼 훈련	이덕희 집사_53
201 제자훈련을 마치며	박진두 집사_54
<b>신앙간증</b> 만남의 축복	한기하 장로_66
감사에 감사를 드리며	강수아 집사_68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구숙자 권사_71
목장예배	임수연 집사_73
오 해피데이 드라마사역을 마치고	임수연 집사_74
가을이 왔나 보다	김숙이 집사_76
오 해피데이를 다녀와서	박계자 권사_78
방송부를 섬기며	박은현 집사_80
다윗과 요나단을 묵상하며	임호준 형제_83
우리 딸 지니를 통해 알게 된 하나님	서주옥 집사_85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한문차 집사_88
예린이가 세례받는 날	차동주·김민영_90
<b>미자립교회 후원사역</b> 사당평강교회/아름다운섬김교회	91
<b>전문인 칼럼</b> 재정 및 은퇴준비	이진배 집사_96
어린이 치아에 관한 이야기	박지현 집사_101
기도와 사업상의 경비?	심태섭 집사_104
가족사랑 건강주스	성태섭 장로_106
Hiker Trail	이근만 집사_114
<b>예일 북클럽</b> 예일 북클럽	이영희 권사_118
예일 오디오 북클럽을 하고서	김은희 집사_119
북클럽을 하면서	김숙이 집사_121
북클럽 소개	122
<b>추수감사절 사행시</b>	123
<b>화보</b>	124
<b>편집후기</b>	138



## 거꾸로 살기로 한 사람들

예수마을은 예수님을 제일로 섬기기로 신앙고백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마을”은 이 예수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 일년에 한 번 발행하는 신앙서적입니다. 예수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기를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하신 것처럼 예수 마을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야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세상을 거꾸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기에 자기 죽음을 의미하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는 것처럼 거꾸로 살 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큰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며 성실함으로 섬깁니다(시 78:70-72). 하나님은 목동이었던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에게 큰 것을 맡기십니다.

세상은 받으려 하고 빼앗으려 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사람은 먼저 줍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믿어 주고 존중히 여깁

니다(눅 6:38). 하나님은 이렇게 사는 자에게 몇 배로 돌려 주십니다. 이 맛은 세상이 모르는 맛입니다.

세상은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섬깁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처럼 강한 자가 약한 사람을 섬깁니다(눅 22:24-27). 그러기 위해서 자기 내면의 영적 실력을 쌓기에 힘씁니다. 내면이 채워지지 않으면 섬김의 삶을 살기 보다 교만과 위선의 삶을 살기 쉽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심지 않고 거두려 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사람은 눈물로 씨를 뿌려 기쁨의 단을 거두는 사람들입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는 줄 알고 많이 심어 많이 거두는 사람들입니다(고후 9:6). 그리고 심고 나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거둘 날이 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강한 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고후 12:9-10). 자기 힘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약할 때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신비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 곳에 실었습니다. 한 줄기 생명의 빛으로 우리 심령 속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 '예수마을' 이야기



예수마을 17호를 발간할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17호에도 지난 일년동안 우리 예일교회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실려 있습니다. 오신 예수님,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그리고 곧 다시 오실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이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마을에는 예수님의 손길을 체험한 여러 성도님들의 간증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원고를 쓰신 분은 자신의 신앙을 더 견고히 다지는 계기가 되고, 읽는 이에게는 성령님의 잔잔한 감동을 경험하는 좋은 기회가 되어집니다. 아무쪼록 예수마을이 우리 성도들간에 좋은 교제의 방편이 되길 바라고 아직 믿음에 이르지 못한 분들에게는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원고를 써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관심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마을 17호가 나오기까지 함께 동역해 주신 출판 사역부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면서 행복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 37년 주님과 걷다

###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 18년

저는 기독교 신앙이 독실하신 부모님을 둔 덕분에 제가 기억하지 못할 만큼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습니다. 학교에 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저에게는 교회에 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군인이셨던 아버지 덕분에 무려 20번이 넘게 이사를 다니면서도 언제든지 새로운 장소에 정착할 때면 교회부터 찾았고 친구가 있는지 없는지 한 교회를 정해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존재는 저의 삶의 중요한 일부였기에 저에게는 교회에 간다는 것은 선택이기보다는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일학교, 중등부 생활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서는 나를 사랑하시라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 값을 대신 치르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믿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에는 집 근처에 있는 침례교회를 다녔었는데, 그 때 저는 저

의 신앙을 회중앞에 고백하고 침례를 받았습시다. 흰가운을 입고 물 속에 잠기던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신앙 모범생이었던 저에게도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만 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시고 나에게 새 삶과 기쁨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 때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돌아보면 당시 저의 신앙은 복음의 내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수준이었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신앙이었지 복음의 능력을 하루하루 경험하는 신앙은 아니었습니다.

대학생이 되어 집을 떠나 홀로 상경했을 때, 저는 제가 가진 믿음이 저의 삶을 이끌어갈 만큼의 영향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어진 자유를 만끽하며 친구들과 어울리고 하루가 멀다 하고 술집, 노래방, 게임방 등을 오가며 무질서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 마음대로 하면서



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때때로 인생에 대한 공허한 마음이 불쑥불쑥 찾아왔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미래에 대한 고민도 있었습니다. 뭔가 해결책이 필요했지만 저는 제 마음 깊숙한 곳에서 외치는 나의 영혼의 외침을 외면한 채 무질서한 생활을 한 학기 내내 계속했고 저의 삶은 점점 엉망이 되어갔습니다. 그때에도 주일이면 어김없이 교회에 가서 대예배에 참석했지만 그것은 어려서부터 몸에 익힌 종교 생활일 뿐이었고, 어디론가 흘러가고 있는 저의 삶을 바꿀 만큼의 힘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 대학 1년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다시 발견하다

고등학교 개강 동문회가 있었던 대학교 1학년 2학기의 첫 금요일이었습니다. 그 날 저는 술에 만취해 기억을 잃고 말았습니다. 5시간이 지난 새벽 3시 30분경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때에는 저는 술집에서 1km정도 떨어진 학교 정문 앞에서 혼자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무의식중에 본능적으로 학교 기숙사를 향해 걷고 있었나 봅니다. 바로



그 때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문권아, 이게 네 인생이 아니다. 이게 네 인생이 아니다.” 내면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곤 내 인생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며,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나의 인생이 아니라는 생각이 저의 온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지금까지 꺾꺾 눌러 억압해 왔던 나의 내면의 외침이 폭발한 것 같았고,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외침이 하나님께 닿은 것 같았습니다. 기숙사에 도착해서 잠이 들 때도 다시 눈을 떴을 때에도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 생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다는 것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저는 그 날 바로 일어나서 교회에 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토요일에 있는 청년부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미안하고 죄송해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것이 너무 죄송해서 회개하며 울었습니다. 그날 하나님은 저에게 눈물과 함께 제 삶을 돌이키셨습니다. 그 때 저는 제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18년이 지난 지금 그 때를 돌아보면 그 날은 제 삶에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그 날 이후 변화된 저의 18년의 삶은 바로 그 날 시작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저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드리기를 즐겨하였고 교회와 선교단체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였

고 양육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술자리와 게임방에서 보내는 시간은 줄어들었고 1년 후에는 이것들을 다 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먼저 찾아와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저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제가 어려서부터 알고 믿어왔던 복음을 다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또한 나의 삶에 주인이 되셔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주께서 나와 동행하며 나의 삶을 이끄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저의 약함을 알기에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달라고 마음을 다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한 부분이나 제 마음의 한 구석이 아닌 제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셨습니다.

## 예수님과 함께하는 나의 삶 18년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님으로 영접하면서 제 삶에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제가 주님과 매일 같이 개인적인 만남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었습니다. 공강시간이면 도서관으로 달려가 성경책을 펴고 눈을 감았습니다. 주님은 어김없이 제 마음을 꽉 채우셨습니다.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주님이 제 안에 계시며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만 믿어 왔었는데 이제 그분을 제가 경험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주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길을 가면서도 부를 수 있을 만큼 가까운 분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부모처럼, 때로는 나의 리더로 주님은 제 곁에 있습니다. 주의 사랑이 제 무너진 자존감을 세워 주셨고 무질서했던 저의 삶을 바로잡았습니



다.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으로 바뀌고 현실에 지친 마음이 의욕을 되찾았으며, 미래를 향한 기대가 생기고,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대학 3학년이 되었을 때, 하루는 제 친구가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제가 대학 1학년 때 한 주에도 몇 번씩 술집에서 봤던 친구였습니다. “문권아, 나랑 성경공부 좀 해 줄 수 있지? 네가 2년 만에 이렇게 변한 걸 보니 너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다.” 두 달 동안 한 주에 한 번씩 만나서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전했습니다. 얼마 안 있어 한 복학생 형이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많다며 저한테 이런 저런 질문을 합니다. 그 형과도 두 달간 성경공부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루는 아침에 묵상을 하는 중에 주님께서 기숙사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종교 이야기는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었지만 용기를 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습니다.

ROTC 축제가 있었을 때입니다. 여자친구가 없었던 저는 고등학교 친구를 파트너로 초대했습니다. 축제가 끝나고 바래다 주면서 지하철에서 40분간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ROTC 친구들 중 몇 명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경우는 많지 않았지만, 내가 복음

을 전한 누군가가 차후에 교회에 다닌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주님이 저에게 주신 기쁨이 너무도 컸기에, 주님께 저의 삶으로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대학 4학년 때 미래를 위해서 6개월간 기도하면서 결정했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며 후회 없이 살아야겠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삶이야말로 저에게 주어진 한 번의 삶의 기회를 가장 가치 있게 사는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과정중에 저는 전도사가 되었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더 깊이 알고 싶던 차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먼 미래에는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자 하는 소망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잃은 저에게 찾아오신 그 날 밤으로부터 18년이 지났고 그간 저의 삶에는 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 결혼을 하던 감격도,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던 감격도, 목사로 안수 받던 감격도, 구약학 박사 과정에 입학하던 감격도 그 날 이후 주님이 주신 축복의 조각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언제나 아무 타이틀도 없던 대학시절 주님을 처음 만나고 감격했던 청년 채문권을 기억합니다. 바로 그 날 만난 주님이 오늘의 저를 있게



저는 청년들을 좋아합니다.  
제가 방황하던 청년의 때에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지난 삶을 돌아 보며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간 저를 바라 보시며 주님도 기뻐하셨기를 바래 봅니다.

### 37년 째 - 뉴욕예일교회 CCM 목사로 부임하다

대학 1년 열 여덟 살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저의 삶을 돌이키셨던 그 날 밤의 기억이 아직도 제 가슴 속에 생생합니다. 그리고 그 후로 또 다른 열 여덟 해가 지났습니다. 주님과 함께한 37년입니다. 그동안 주님은 저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 생을 함께 나누게 하셨고, 세상에서 가장 이쁜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 가정을 세워 갈 수 있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또한 CCM의 담당목사로 교회공동

체를 세워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은 부족한 주의 종이지만, 주님께서 뜻이 있어서 뉴욕 예일장로교회로 보내주셨다고 믿습니다.

처음 교회에 방문하고 CCM에서 설교하던 날이 생각납니다. 보통은 목사가 성도를 기다리기 마련인데, 오랫동안 목사를 기다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담당목사도 없이 자리를 잘 지켜준 것이 기특하고, 마음으로 저를 환영해주는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던 기억이 납니다. 제 과거 18년이 머리속에 지나가며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셨구나” 하는 마음이 차오릅니다.

저는 청년들을 좋아합니다. 제가 방황하던 청년의 때에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대학생들에 향한 특별한 애착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졸

업 후 장교로 군생활 하면서 교회도 없는 곳에서 겨우겨우 신앙을 지켜나갔던 힘들었던 사회 초년생 경험이 있기에, 바쁘고 지쳐서 신앙의 힘을 잃어가는 사회초년생 청년들에 대한 애뜻함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청년들이 대부분인 CCM에 제 마음이 끌립니다.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영어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어적 문화적 장벽을 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고 어려운 만큼 값지고 보람된 일임은 분명합니다. 하루는 한 청년이 아침에 짧은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Good Morning! Just wanted to let you know how much I appreciate you! Thanks for being my pastor!”

그 날은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습니다. 마치 좋은 호텔 부페에서 최고의 저녁을 대접 받은 기분일까요?^^ 저는 CCM 목사일 수 있어서 즐겁습니다. 그 청년의 목사일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청년들의 좋은 울타리가 되어주고 싶고 때로는 버팀목이, 때로는 위로자가, 때로는 조언자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CCM을 세워가시는지 보고 싶습니다.

나이가 차고 학식이 늘어가면서 복음과 교회에 대해서 더 폭넓은 시각을 갖게 됩니다. 사회속에서 교회의 책임과 세상을 향해 주님이 가지신 큰 비전을 봅니다. 사람의 다양함과 모든 사람의

깊은 내면에 있는 상처입은 자아에 대한 이해도 깊어갑니다. 이제 제 신앙을 훨씬 유식하게 표현할 수 있고 성경에 대해서 박식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 가장 중요했던 날은 여전히 주님을 처음 만나 울고 웃었던 대학 시절의 그 날입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도, 깊이 있는 말씀도, 신학적인 담론도 다 전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제가 18년전 그 날 밤 길거리에서 만났고 지금도 제 삶 속에 살아 계신 예수를 전하렵니다. 성격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교육배경도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동일합니다. 내 생명을 자신의 목숨과 맞바꾸신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이기적인 모습을 다 참으시며 내가 한 발 더 그 분께 다가 오기를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직 그 분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뉴욕예일장로교회에 온 지 넉 달이 지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훈 목사님 외 좋은 교역자들과 함께 사역할 수 있어서 또 한 즐겁습니다. 다 찾아 뵙고 말로 표현 할 수는 없기에, 이 자리를 빌어 글로나마 감사의 마음을 전해봅니다. 지금까지 37년간 저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예일교회에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저의 삶에 보화가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 *Philosophy of Ministry*

This is what I have been learning over the past 10 years involved in ministry. My ministry philosophy is continually being shaped and honed, but I wanted to share what I believe about ministry, and why the youth group is undergoing dramatic changes.

I ought to teach my students to pursue God creatively. This is a principle generated from the Parable of the Talents (Matthew 25:14-30). God is a creative God, so there should be a creative pursuit of God. In these “modern” times, God is often an afterthought of all the things we do, squeezed into the compartmentalized segments of our life. Worship is tied to a time and place, but a vital relationship to God is necessary for all aspects of life. In the parable, the master leaves without giving any instructions. However, the good and faithful servants (and even the wicked one) know what the master desires and they choose their course of action. If one knows the heart of Jesus, one realizes that you have received

much: finances, time, talents. I want to find methods to promote my student’s relationship with God even though their passions may not align

with the normal things connected to “church”.

I think it’s important to have students experience a various array of ministries, similar to core classes for college. It would enable students to get a taste of the ministries, not only in my church, but throughout the city. My hope is that the students are inspired and able to connect their passions and talents for the kingdom of God. Currently, we are involved in soup kitchens and an annual Group Workcamp trip. This program involves youth volunteers spending a week to repair the homes of the elderly or the financially distressed. The repair work ranges from making a home wheelchair accessible to painting the entire house.

We must live a life worthy of the Gospel (Philippians 1:27) The second principle for my philosophy of ministry revolves around personal character. Throughout Scripture, there is a call to model the obedient life for others. As a preacher and pastor, I should not live a life that is a contradiction to the things that I preach. This principle also applies to the teaching staff and parents linked to my ministry. Discipleship is modelled in the everyday moments of

life. The more access that my students get to Gospel-centered living will lead to better connections to the Gospel in every area of their lives. Faith is not compartmentalized, and discipleship is happening whether we realize it or not. We are either making disciples of Christ or of this world. Although this is considered a principle, authentic pursuit of a Christ-centered life will make this discipleship modelling second nature, and not something that we need to actively pursue.

For this principle, although I will not be perfect (and with the aid of my community in Christ), I would continue to strive for an authentic, God-fearing, obedient life in Christ. It requires that my life be an open book so that people could see how the Gospel transforms my life. They may not be able to see the

transformation that has already taken place, but will be able to see the spiritual fruit grow in my life. And the hope is that it will influence others to do the same.

We must reach out to the lost sheep. As disciples of Jesus, we take up the mission of Jesus. Jesus met people where they were, and ministry is the same. This principle is not meant to be theological statement. As the shepherd leaves the 99 other sheep to find the one that is lost, there are times when we need to pursue those that stray. For his ministry philosophy, Clinton states “I will give as much as I can to one who chooses to have it (p.158).” However, I find the opposite to be true. Although they may not express it or desire it, we must go out and reach those who are struggling. Just as Jesus pursued people, we are called to pursue others for the kingdom. There’s a great quote from the movie “The Guardian” which outlines this principle. A Coast Guard lifeguard asks his mentor, “When you can’t save ‘em all, how do you choose who lives?” The mentor answers, “I take the first one I come to or the weakest one in the group and then I swim as fast and as hard as I can for as long as I can. And the sea takes the rest.” I think it’s similar with pastoral ministry. You do what you possibly can to reach and bring the sheep back into the fold. The results are ultimately in the hands of God, but we are given the opportunity to participate. Many times, these struggles of these “lost sheep” a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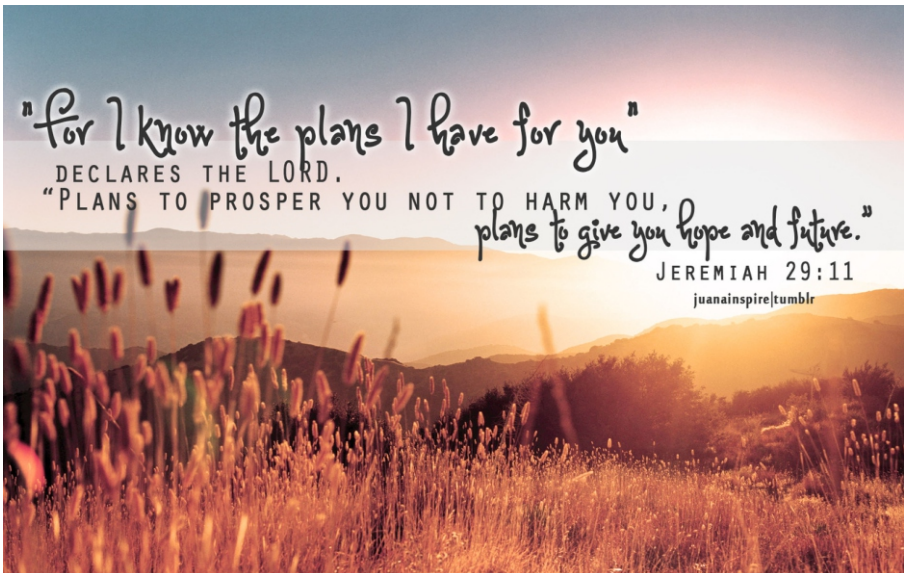


a result of improper discipleship, and we are called to meet them where they a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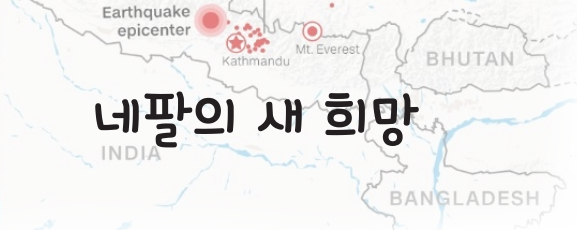
The church ought to use its resources and energy in expanding God's kingdom. When the church is not focused in its mission to establish God's kingdom in this time and place, it will end up expending its energy in conflicts within the church. The church must be outwardly moving in its mission. The church should not be interested in just building itself up physically, but to disciple others properly. The process of discipleship should be a perpetual process, with the multiplication of disciples. I believe that the church should be heavily involved in the community they are located.

The students are largely concerned with getting into good colleges. They

go to afterschool programs, and spend most of their vacation time in some academic program or another. The message that gets instituted through these actions is: "the future is about me". All the students' attention and energy end up focused upon themselves. In order to break this cycle, I have been pushing the students to serve others- soup kitchens, Workcamp, short-term mission trips. My focus has been getting the youth group to serve within the church itself, but I want to drive the missional focus outwards- to the community. We have been in Hicksville for 10 years, and we don't have a clue to the needs of the community. I intend to address the community issues, and make sure that I pave ways for my students to get involved.







## 네팔의 새 희망

2015년 4월 25일, 7.8 규모의 강력한 지진이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와 포카라 지역에 닥쳤습니다. 그리고 대지진 발생 17일 만인 5월 12일에 7.4 규모의 강진이 수도 카트만두에서 117마일 떨어진 남체바자르 가까운 곳에 또 다시 발생했습니다. 연이은 대지진의 충격으로 인한 피해자 수는 네팔 전체 인구의 1/4에 해당하는 810만 명, 부상자는 2만 2000여명, 사망자는 8천 857명이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갑작스런 지진으로 인해 피해가 큰 지역인 카트만두에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팔 사람들이 수도로 많이 모여든 까닭에 인구 밀집지역이기도 하고 또한 선교하기가 그래도 좀 나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가 속한 해외한인장로회 총회에서는 지진으로 인해 피해가 큰 선교지에 구호기금을 작년 지진 발생 후 한차례 전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또 모여진 기금이 조성이 되어서 그 기금을 전달하고자 이번에 총회장 목사님이 다녀오시라 하여 우리 목사님이 가시게 되었는데 제가 함께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지진이 발생한

지 만 일 년이 되는 네팔이라는 나라를 지난 4월에 둘러 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네팔은 아래로는 인도, 위로는 중국으로 두 나라 사이에 끼여 있는 작은 나라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이 두 나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국민 소득도 매우 낮아 세계은행이 발표한 일인당 GDP는 2013년 기준으로 694불 정도밖에 안 되는 217개국 중 최하위권인 199위로 지구상 가장 가난한 나라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진까지 발생했으니 정말 힘든 나라가 된 것입니다.

나라의 82%가 힌두교이며 11%가 불교인 나라, 네팔에 가 보니 온통 신전으로 뒤 덮여 있는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기 저기 크고 작은 신전이 있었습니다. 저들이 섬기는 신의 수가 3억 3천만이 된다고 하니 모두가 다 신인 것 같았지요. 길거리마다 또 골목골목마다 얼마나 신전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신의 수가 사람 수보다 더 많은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어리석게도 모든 피조물들의 종류대로 저들이 신으로 섬기는 것을 보니 가슴이 답



답해짐을 느꼈습니다. 정말 복음이 필요한 나라였습니다. 이런 험한 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자랑스럽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이곳까지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명이 참으로 귀하게 여겨지며 하나님께서 저들을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진이 있었던 카트만두 시는 일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진 복구가 미미한 상태였습니다. 아직도 시 전체가 먼지로 뒤덮여있고 온데 쓰레기가 나뒹굴며 허물어진 건물들마다 한쪽으로 붉은 벽돌이 쌓여진 채 복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교통은 얼마나 혼잡스러운지 길은 좁고 차들은 많고 그저 빠지고 들어오면 되는 식으로 차선도 없이 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카트만두 시에 오래 전에 지어진



건물들이 대부분 흠벽돌집이라 대부분 내진설계 없는 건물들이기 때문에 그 피해가 엄청났습니다.

목사님과 저는 네팔 장로회 신학대학을 방문했습니다. 네팔 장신 건물도 지진 피해가 커서 6층 건물이 내려앉아 작년부터 계속 복구 작업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본관은 건물을 새롭게 다시 복구하면서 한 층을 줄여 5층으로 하고 철골을 넣어서 짓는 중이었습니다. 40여명 되는 젊은 학생들이 기거하는 숙소도 임시로 지어서 살고 있었고 예배와 강의실도 새로 지은 가건물에서 거행되고 있었지요.

우리 부부가 방문하면서 신학교 건물 보수를 위한 기금도 전달하고 특강을 부탁을 받아 목사님이 저들에게 필요한 특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총회장 목사님의 특강이 3시간 있다고 해서 졸업생들 가운데 사역을 하고 있는 사



역자들도 여러 지역에서 와서 참석했는데 그 중에 어떤 사역자는 20여 시간 버스를 타고 먼 거리에서 일부러 와 참석한 사역자도 있었습니다. 저들의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환경적으로는 너무나 열악하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소망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예배하는 신학생들의 열기가 매우 뜨겁고 열정들이 있음을 한 눈에 읽을 수 있었습니다. 여학생들도 여럿 있었는데 매우 똑똑한 학생들이었습니다.

저들 신학생들이 이제 복음으로 무장해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들어가 자기들의 언어로 복음을 자기 민족에게 전하게 될 것을 생각하니 정말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세에 추수할 일꾼들을 이곳에서 기르고 훈련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저들의 순수한 열정과 뜨거운 신앙심이 네팔의 내일의 소망의 빛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서 속히 저 무지한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3억3천만 신 중의 하나가 아니라 저들을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날이 네팔 장로회 신학생들을 통해 속히 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훈련된 저들을 통해 복음이 네팔 구석구석에 퍼져나가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 제 1대 '서리 집사' 를 임명하기 위한 준비

어느덧 2016년 12월입니다. 앞만보고 달려 왔던 어느때와 달리 잠시 호흡을 고르며 지나온 신앙 여정을 되돌아 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 굽이 굽이마다 주님께 더욱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나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던 '신앙의 Keyword'들이 머리를 스쳐 지나 갑니다. 아마도 정도와 시간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크리스찬이 거의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은혜'라는 단어를 빠뜨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 '회개', '기도', '성령 충만'과 '말씀'이라는 Keyword도 저에게 큰 변화를 주었던 단어들입니다. 물론 항상 '은혜 충만'하고, 항상 '성령 충만'하고, 항상 '말씀 충만'하다면 더 바랄나위 없겠지만, 그렇지 못한 굴곡이 있는 삶 가운데 주님 앞으로 더욱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이러한 익숙한 단어들이 때마다 내 삶을 사로잡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선교'라는 단어가 저희의 모든 삶을 사로잡아, 지금 이곳 선교지에까지 이르도록 한 것을 기억하니 주님의 섭



리와 은혜가 놀랍기만 합니다. '선교'라는 단어가 마치 만능 열쇠처럼 되어 미처 깨닫지 못했던 성경 말씀들이 열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장엄한 섭리가 '선교'를 통하여 보이게 되고, 모든 것을 드러서 이 일에 쓰임 받음이 제 삶의 최고의 의미임을 매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곳 선교지에서 예상치 못한 새로운(?) Keyword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가까이 있었던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그 의미를 깨

달게 된 것이 허탈하기도 하지만,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아닌 '교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서 부름받고, 구별된 성도의 공동체인 '교회', 하나님 나라와 통치의 회복을 위하여 세상을 섬기고, 잃어버린 영혼들의 구원에 선교적인 주체가 되는 '교회', 그리고 주님이 세우시고 몸이 되신 '교회', 그렇게 수없이 많이 듣고, 익숙한 '교회'라는 단어이지만, 막상 선교지에서 경험하는 '교회'의 의미가 얼마나 가슴을 뛰게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 복음의 불모지와 같은 땅 끝에서 주님이 붙드시는 주께 예배하는 공동체 (교회)를 이룬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11월 마지막 주일에 '디고스 예일 교회'가 창립된 지 두번째로 맞이한 '추수 감사 주일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에 있는 모든 의자를 동원하고도 자리가 부족해서 서서 예배를 드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한 것도 참으로 감사했지만, 예배 순서 중에 교회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경험한 새 교우들의 '간증'을 통해서 큰 기쁨과 감사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간증 순서를 위해서 사전에 간증 대상자에게 3분 정도의 원고를 기도하면서 미리 작성하게 하고 당일 발표하도록 했었는데, 막상 간증을 시작하자 눈물, 콧물을 쏟아가며 예상 시간을 훨씬 초과하며 주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만 디고스 예일 교회를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간증을 통하여 교인 모두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께 감사하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디고스 예일 교회의 3년차를 시작하는 2017년을 바라보며, 감격적인 제 1대 '서리 집사'를 임명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굳이 서리 집사의 자격 조건을 논하자면 디모데 전서에서 언급한 기준에는 많이 부족할 수 있겠지만, 집사의 자격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자'로 강력한 내규(?)를 정하고 기도하며 준비 중입니다.

이제 새롭게 믿기 시작한 교인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말씀'에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매주 설교를 듣고, 다양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지만, 말씀 전체가 아닌 마치 '사전'처럼 이곳 저곳을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상식이나 세례식에 참여한 교인들에게는 현지어로 된 신구약 성경을 선물로 주어 왔지만, 아직도 많은 교인들이 성경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 읽는 것을 생활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17년에는 전교인을 대상으로 '성경 1독'을 위한 '성경책 렌탈' 프로그램을 실시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즉, 성경책이 없는 교인들에게 성경을 대여해 주어서 집에서 읽도록 하고, 완독을 하면 푸짐한 시상과 함께

대여한 성경책을 개인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위하여 주일 예배가 시작하기 1시간 전, 기대와 부담(?) 가운데 전 교인이 성경을 손에 들고 '성경 1독'을 위한 교육과 실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16년 장학사역이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하게 진행되었고, 많은 열매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11월 감사의 달을 맞이하여 모두 함께 모여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편지'를 작성하며 받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학생 83명 중에서 디고스가 아닌 다바오에서 신학교에 재학중인 20명과 건강이 좋지 않아서 참석하지 못한 2명을 제외한 61명이

모였습니다.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의 특별하신 사랑과 후원을 통해서 대학에 다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장학생들을 대신하여, 그동안 힘을 다하여 장학사역을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많이 늦었지만, 그 어느 때부터인지 '교회' 라는 단어만 생각해도 가슴이 벅차 오르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엡 1:23)



# Masaya para Cristo!

마사야를 그리스도에게로!



2017년 마사야전도대회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2008년 시작하여 2014년까지 7년 연속으로 개최된 마사야전도대회는 연인원 120,000명이 모였고 4,400명이 결신하는 놀라운 결실을 얻었습니다.

이에 마사야지역 목회자들의 즐기찬 요청과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 전해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에 순종하여 2017년 마사야전도대회를 2월 24~25일 마사야 공설야구장에서 개최합니다.

이미 11월에 목회자 전도세미나와 목회자 지역 대표자 회의를 갖고 이번 대회를 위한 전도요원 훈련을 위한 구체적 일정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지역별로 전도요원 훈련에 들어가 1월 중순까지 마치게 됩니다.

이번 전도요원 훈련에 4개주 14개의 시에 있는 모두 300여 교회, 2000명이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훈련을 마친 이들은 대회 2주 전에 각 시나 지역별로 마사야전도대회를 알리는 축호전도를 하게 됩니다.

니카라과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마사야를 그리스도에게로!

Masaya para Cristo!

기도제목

1. 30,000명 운집에 1,000명 이상 결신자를 얻도록
2. 2,000명의 전도요원 훈련을 통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도록
3. 자원할 단기선교사와 마사야 공설야구장 사용허가를 위해



## 한방사역



이번에 다녀온 니카라과 단기선교는 예일교회 담임 목사님과 선교팀들의 선교에 대한 열정과 많은 경험으로 열심히 기도하며, 차분하고 겸손하게 불평 없이 힘든 사역을 준비해 주신 덕분에 42명이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걱정도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각자 자기의 사역들을, 원주민들을 섬기도록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 니카라과 선교사역 내용

**1) 의료사역** : 홍재광 장로 일반내과 (현지인 의사 2명 총원) 진료 및 약 처방을 해주셨습니다.

**2) 치과사역** : 김근태 장로님이 이를 뽑을 때 김동환 집사님이 꼭 잡아주시고 피흘리는 환자들을 옆에서 도와주는 데보라, 레이첼 정말 대견스러웠습니다.

**3) 안경사역** : (검안 및 안경 증정) 한 사람 한사람 시력으로 검안하시는 분들 정성으로 안경과 선글라스를 주면 얼마나 좋아하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4) 미용사역** : (hair cut, 머리장식품 배포) 바람이 많이 불어 먼지가 많이 나고 더운 피약벌에서 헤어컷을 해주고

머리를 맡아주고 헤어핀을 뽑아주면 좋아하던 모습들이 선행합니다.

**5) 선물사역** : (선물증정, 선물세트) 선물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원주민들께 전해 드렸습니다.

### 6) 특별사역

\* 부채춤 - 무척 더운 날씨에 부채춤을 위해서 옷을 갈아 입고 땀을 뻘뻘 흘리며 원주민들을 즐겁게 해 주시는 분들. 모두 불평 없이 사역하시는 모습이 참 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 판토마임, 페인트사역 (youth group) - 하루 종일 페인트 하고 그 더운 가운데서도 원주민들을 위하여 영혼 구원하기 위해 열심히 판토마임 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귀하고 자랑스러운지요. 장래에 주님께 귀한 사역에 쓰임 받는 자 되기를 기도합니다.

\* 선교북 - 시원하게 북을 치며 노방전도를 하고, 땀을 흘리며 사역하시는 모습에 감동되었습니다.

**7) 중보기도사역** : 권사님 집사님들이 모든 사역과 건강과 영혼구원을 위해 땀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시던 모습들이 눈에 선행합니다.





저는 한방사역을 하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제대로 된 집도 없고 화장실도 먹을 것과 물도 없이 또한 의료시설도 제대로 된 곳이 없는 그곳에서 현지인들의 삶의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자연과 순박한 삶속에서 때 묻지 않은 원주민들의 소박하고 순수한 그 얼굴들을 보면서 힘을 얻었고 치료를 하였습니다.

침과 부황으로 치료를 할 때마다 저희 팀들은(고 강혜옥 권사님의 친구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손길에 임하여 병든 몸이 회복되고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서 주님 영접하도록 옆에서 저를 도와주시는 믿음의 형제들과 같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한방사역을 하였습니다.

날씨가 무척 더웠는데 이윤미 권사님 동생분이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의 사모님이신데 얼음을 아이스박스에 넣어 가지고 오셔서 물도 차게 해주시고 얼음주머니를 만들어서 목에 얹어

주시고 참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한 각 사역마다 스페인어 통역을 얼마나 잘 해주시던지 너무 감사했습니다. 주님의 귀한 사역에 크게 쓰임받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니카라과(고 강혜옥 권사님 기념교회) 예수님 제일교회 헌당예배를 드리면서.

이번 니카라과 단기선교에서 주님이 주신 가장 큰 은혜와 감동과 도전을 주신 것은 고 강혜옥 권사(윤희주 장로님 부인) 기념교회인 니카라과 예수님제일교회 헌당예배였습니다.

고 강혜옥 권사님 살아생전 모습이 한 장면 한 장면 떠올랐습니다.

너무나 힘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며 괴로워하시던 모습이 생각나 마음이 슬펐습니다.

천국 환송예배를 드리던 모습. 하지만 눈물도 고통도 없는 저 천국에 소망을 실감나게 주고 가신 권사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고 강혜옥 권사님의 믿음의 친구들과 선교에 같이 참여하게 하시고



건축한 성전을 헌당하는 예배에 참석하게 하셔서 선교에 대한 많은 도전을 주신 권사님! 고 강혜옥 권사님을 기념하며 남기신 예수님 제일교회 어린아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리는 모습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그들에게 꿈을 심고 꿈을 안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명령하심을 다시금 더욱 깨닫게 하시며 많은 것으로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발이 되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을 마음껏 나누어 주는 하늘에 소망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가신 고 강혜옥 권사님,

권사님이 남기고 가신 사역 정말 귀한 마음과 물질과 믿음에 본이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권사님 사랑해요.

김인선 목사님이 세우신 니카라과 하나님 사랑의 교회 입당 예배에 참석하면서

덥고 먼지가 많이 나고 힘든 일기 속에서도 밝은 표정, 행복해 보이시는 목

사님과 사모님, 두 자녀인 하민, 영민, 선교사역에 온 몸을 다하여 건축하시고 헌신하시는 그 기쁨을 보며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어린 영혼 하나라도 귀하게 여기시며 어린이 합창단을 지휘하시던 모습, 유창한 스페인어로 통역하시는 신유선 사모님 모습, 마음을 바쳐 헌신하는 모습,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드리는 선교지의 사명지의 사명 감당하시는 목사님 가정에 건강과 주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선교를 통하여 복음이 필요한 그들에게 이 모습 이대로 찾아가서 자기에 맡겨진 달란트로 섬길수 있는 기회와 도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강건히 예수님 제일교회와 김인선 목사님의 하나님 사랑의 교회가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니카라과 원주민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심 받는 교회들로 잘 세워지는 니카라과 선교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 첫 선교사역의 은혜



무더운 날씨임에도 많은 어린이들이 모였다.

그들 하나 없는 곳에서 집회장소에 입장을 기다리며 서있는 그 아이들을 바라보니 그냥 알 수 없는 그 무엇이 나를 울컥하게 만들었다. 난 처음 선교를 왔고 다녀온 사람들의 많은 간증을 들었지만 내가 보고, 느끼고, 체험한 오늘 첫 시간을 잊을 수가 없다.

목사님 말씀 후 주님을 영접하는 시간에 많은 아이들이 앞으로 나왔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를 해주는 시간이었다. 나는 처음이라 어떻게 하는지 몰라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Rina 라는 소녀가 두 명의 친구와 함께 나를 잡았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자기를 위하여, 자기 가족을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간절하게 말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많은 선교대원들이 있는데 그 아이가 왜 나를 잡았는지..

하나님께서 나 같이 부족하고 보잘 것 없는 사람에게 왜 이런 엄청난고 커

다란 사명을 주시는지...

그 소녀들의 믿음에 내가 회개가 터져 나오고 우리 모두 같이 울어버렸다. 그리고 그 소녀들을 위하여, 그 가족들을 위하여 전심으로 기도했다. 오늘 꼭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이 어린 소녀들에게 지금 꼭 찾아와 달라고 매달리고, 또 매달렸다.

누군가 내 눈물을 닦아주고 있었다. 나는 오늘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했고 언제 어느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쓰실지 항상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하겠다는 것을 느끼고 배웠다.

비록 금 그릇, 은 그릇 아닌 질그릇일 지라도.



## 알바니아 단기선교를 다녀와서



안녕하세요. 저는 3선교회 현정원입니다.

제가 갑자기 선교도 가고 글도 쓰고 놀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현정원이 선교를?

예일교회 생활 10년이 조금 넘었는데 선교는 처음이고 너무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거 같아요. 선교를 가게 된 동기는 우리 목사님(도부용 집사님)이 전화하셔서 우리 선교 같이 가자고 했어요. 그땐 이미 단기선교 신청이 마감했을 때인데 하루 더 생각해 보고 결정하겠다고 하고 남편한테 이야기 했더니 그 자리에서 윤희주 장로님께 전화하고 박재우 집사님께 전화하고 신나서 난리가 난거예요. 우리 Wife 선교

간다고. 그래서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어요.

알바니아 단기선교대원 명단에 올린 후였는데, 갑자기 유럽이 위험하다고 뉴스에서 계속 기사가 나오고 테러도 이스탄불에서 나고 터키 공항이 폐쇄되고 모든 비행 스케줄이 취소되었던 그런 시기였는데 우리 비행기부터 오픈이 된 거예요. 전 그때 목사님 설교말씀에 모든 기적이 항상 있다고 말씀하실 때 사실 마음에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무슨 그런 일이 그렇게 기도 한다고 될까? 했는데 이번에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어요. 나에게도 체험의 시간이었어요. 은혜였습니다.

무사히 도착지에 연락도 없이 편안하게 도착했어요. 공항도 조용했어요. 언제 이 나라에 테러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리고 엄청 덥다고 했는데 저는 참을만했구요. 모든 것이 편안하고 마음도 안정적이었어요.

다음날 아침 6시에 큐티를 하던 첫날은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목사님의 배려로 다음날부터 카톡으로 미리 다음날 큐티 본문을 보내주셔서 저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성경책을 봤습



니다.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나의 룸메이트인 박정희 권사님이 도와주셔서 미리 준비하고 내려갔더니 훨씬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 이런 것이 훈련이구나 싶었습니다. 목사님이 그동안 강단에서 말씀하셨던 것이 이런 거구나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저널시간이 있는데 저는 또 난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놀라운 일이 저에게 생겼어요. 그저 저의 생각을 써내려가기 시작했는데, 제 자신도 모르게 줄줄 쓰게 되었어요. 우리 조 안에서 발표를 하는데 저한테 첫날 첫 번째로 앞에 나가서 발표를 하라고 우리 조 조장 이재홍 장로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냥 그 순간 아무런 두려움이 없이 하겠다고 했어요. 제가 생각해도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 강단 앞으로 나갔는데 하나도 떨지 않고 있는 저를 발견한 순간 저도 제 자신에게 깜짝 놀랐어요. 어느 순간 제가 대본대로 하지 않고, 제가 발표할 대본을 뺏다 넣었다 하면서 발표하는 저를 발견 하면서 와! 이걸 또 뭐야! 나

에게 이런 능력이 있었는가 하는 생각에 깜짝 또 놀랐어요.

그런데 다음날도 저널을 하는데 저한테 한 번 더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 큰 때 같으면 단번에 No했을 제가 또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남편이 선교 가서 많이 변해서 오라고 했는데, 남편은 제가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집사님들하고 권사님들하고 만나서 커피마시는 것도 좋아하고 교회식구들 하고 제가 가깝게 지내는 걸 제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무조건 놀아도 교회에서 노는 걸 좋아하고 그런 남편을 실망 시키지 않도록 저의 노후를 그렇게 보낼 생각입니다. 남편에게 감사하구요.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일교회 성도님들 현정원이 할 수 있으면 모든 성도님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잘하고 지내요. 감사합니다.

두서없이 쓴 글을 이해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딤후 4:2)

*Mission*

## 또 한번의 깨달음



알바니아 단기선교가 확정되고 선교팀원들이 구성된 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서 늘 해왔던 대로 선교준비를 하게 되었다.

이번 알바니아 선교의 특이한 점이 있다면 우리가 자주 가던 중남미 지역이 아닌 유럽의 발칸지역에 있는 나라

이며 국민의 60% 정도가 모슬렘인 나라라고 할 수 있겠다.

알바니아 선교는 이번이 우리 교회에 선 처음이고 또한 선교지에 대한 정보를 잘 알 수가 없었다. 비록 선교지 현지 실정과 사역에 대하여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늘 우리가 하던 사역 정도면 어디에서든지 잘 적용되고 쓰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선교준비를 하면서 이항모 선교사님과 연락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무언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기 시작하였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사역내용과 선교사님이 원하시는 사역 방향의 초점이 맞지 않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출발 날짜는 다가오고 조급한 마음에 선교사님께 전화를 드렸다.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내가 바라는 속시원한 답을 얻을 수가 없었다. 긴 통화가 끝나고 전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그때 깨달음을 주셨다. 그것은 기존 우리들의 사역 패턴을 내려놓고 알바니아 현지 선교 실정에 맞게 맞추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선교 프로그램이 있다 하더라도



선교지 실정에 맞지 않고 선교사님 사역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긴급하게 목사님과 사모님 선교 위원장 장로님께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고 의논하게 되었고 나의 고민을 목사님과 사모님께 넘겨 드렸다.

그때까지 준비해 왔던 것 다 내려놓고 선교지 상황에 맞게 새로 사역준비를 하게 되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 일로 목사님과 사모님 두 분께서 며칠 동안 고민 많고 신경을 많이 쓰셨던 것 같다.

그 결과가 아주 잘 나타난 것 같았다. 현지 선교사역에서 선교사님 사역내용에 맞게 잘 적용되었고 덕분에 효과적으로 은혜 가운데 선교사역을 마칠 수 있어서 감사했다.

수고하신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터키 쿠데타 사태로 자칫 무산될 뻔한 선교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적으로 가게 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선교를 다녀온 후 며칠 뒤 선교사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

“이번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예일교회 단기 선교팀이 멋진 사역을 잘 해주셔서 복음 전파에 진보를 가져오게 되어 감사합니다. 장년에서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하여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므로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기뻐하고 장년들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때에 다시 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떠  
나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운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은 통  
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릅  
다운고(사 62:7).



## *“What I learned in Mission”*

Honestly speaking, I did not want to go to missions in the first place. When I had signed up, I desired to strengthen my faith, but by the time it was time to go, I did not want to.

For the past two years I have been struggling with sin that brought me farther away from God. I was spiraling into darkness, and it was clear to see that I was not the same person who had met God in the past.

Throughout those two years, even though I was struggling, I managed to pray - very occasionally - asking God to bring me back to him.

After the first three days, the VBS part of the missions trip, I was mad. During journal time, everyone would share their blessings, but I felt like nothing happened for me. I felt like I didn't receive any blessings. And at that very moment where I thought that, a sudden wave of realization hit me. I don't know how to explain it. But it was kind of a regretful and upset feeling. I was upset that I had lived my life so poorly and so far away from God. I knew I wanted to do God's work but there was some block in my faith. And this realization helped me to find out that block. I did not embody the heart of a Christian servant. When I came to that realization, I was upset at myself and wondered why is it that I realized this after all of VBS ended. I tried my best, I thought, to be a messenger of truth. But I wasn't acting as a servant, and thought myself as superior, even though I came to missions with a questionable faith.

Looking back, I had been changing little by little until that realization until journal time. The Holy Spirit cut things out from my life, and added new things, even though I didn't realize it. By God's grace, the way I saw everything had changed. I see God moving in all things; everything that happens has God in it. Now, I have genuine joy and passion to serve and become closer to God. I pray for my future so that my faith can continue moving forward instead of backwards.





## MISSION TESTIMONY

So as most of you know, this was my first missions trip. Before I went on this missions, I kept getting signals that made me second guess this whole thing. But, there was this urging feeling that told me to go, and that feeling was God's grace pushing me to try something different and grow further in my faith. I'm extremely grateful that God gave me this opportunity to go to Albania to do His works, because if I didn't then I wouldn't have made many realizations and learned anything to help me grow closer to God. During the days of vbs, that is when I learned a lot. I didn't know that the teacher could be the learner. As I was teaching them the verses in English, this one girl caught my eye. She was an exceptional learner. As the bible memory verses were repeated by one of the translators, she was there sitting, attentively, retaining all the verses. Then afterwards, she repeated all the verses flawlessly. Not only that, while we were praising she made me realize something. As we were praising and dancing, the girl gave the most enthusiastic and genuine praise to God. But while she was doing this, there was a small group of boys

teasing her and saying that she was crazy because she was dancing and singing so loudly. But that still didn't stop her from giving praise. This made me realize that no matter what happens, no matter what embarrassing or hurtful situation you're in, you shouldn't let anything get in the way of giving worship to God. I was also ashamed of myself because I was the kind of person that quit when times got rough. But from now on, I will not be ashamed of showing people who I believe in and will continue to seek God. For the three days of vbs, she always wore the same shirt. And that shirt said "God is love". One of the many things that God is, is that He is love. And because of His mighty love, we are here today. There was also another thing I wanted to say about these kids. The kids at vbs were not just kids who wanted pizza and coca-cola. They were kids who wanted prayer. Moksanim did something called altar call, where he asked if there were any kids who wanted prayer; and if they did, they would have to come up to the front to get it. So, almost more than half of the kids came up. And, I went up to this mother and daughter and prayed for

them. As I was praying, I placed my hand on the mother's shoulder and I felt two or three more little hands on top of mine. After prayer, that girl came up to me and gave me the biggest hug and kiss. Then seconds after, seven more kids came up to me to give me a hug. At the end, it was just a group of kids in a large group hug. I finally disbanded the group because I couldn't breathe. But, I never wanted stop hugging them. It was so hard for me to hold back the tears because never in my life have I ever felt such warmth and love. Just that tender moment itself was very touching. These kids who don't have much were asking for prayer. Out of all things, they were asking for prayer.

That is what makes me so happy. I'm thrilled that they want to know God more. We've done God's work and planted seeds in them. But, I really didn't want to leave them. Leaving them was the hardest part. I don't think anybody realized but I was really hurt when we left them. I hated saying

goodbye to them. And knowing that I won't see them again hurts me a lot. The girl I prayed for came up to me on the last day asking if I was going to come back next year. And I stood there for a good minute in silence. I didn't want to lie to her so I just gave her a sorry smile and acted as if I didn't understand. Me saying no would confirm that I wouldn't be able to see her again, so I didn't say anything. But, overall, this missions trip was very blessed and significant. It made me make a very important decision in my life and that decision was to become a teacher. I had two choices on what I wanted to become. It was either a doctor or a teacher. And trying to make this decision was very hard for me, but God made it easy for me. I think He told me to go to Albania to see these kids and be overwhelmed by their love and compassion.

Not only that, but to be able to see and feel God's love and affection.



## MISSIONS 2016 ALBANIA



부족하지만 알바니아 선교를 가기로 결정하고, 대원들과 몇 달 동안 기도하고, 금식하며 선교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교회의 좋지 못한 소식과 계속되는 테러와, 터키의 불안한 상황에 저는 약간 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고, 모든게 잘 될거라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처음으로, 내 그룹의 아이들과 만나서 인사를 할 때 조금은 어색했지만 반가웠습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실때 아이들이 집중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목사님이 “기도 받고 싶은 사람들 앞으로 나와주세요”라고 물어봤는데, 많은 아이들이 기도 받기를 원했어요. 그때 저는 신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꼈어요.

아이들과 같이 성경 요절 외우기 할 때도 빨리 잘 외웠어요. 첫날이 끝나고 생각보다 좋아서 다음날까지 잘될꺼라고 제가 기대를 많이 했어요. 하지만 그 다음날에 아이들이 갑자기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땐 제가 스트레스 많이 받고 되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배운것은 하나님이 저한테 포기하지 말고 참을성 있게 기다리라고 하시는것 같았

어요. 세번째 날엔 새로운 사람들이 또 많이 왔어요. 저한테 힘이 다시 생겼고 마음도 많이 편해졌어요. 두번째 날 보다 에너지 넘치고 더 열심히 집중했어요. 그냥 애들을 보기만 해도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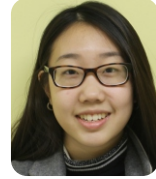
VBS 끝나고나서 아이들한테 마지막으로 인사를했어요. 아쉬운 마음도 있었는데, 저는 하나님이 이 아이들 잘 지켜주신다고 믿었어요. 또한 신기하게 이 많은 아이들이 예수님을 받아드린게 너무 기특하고 기뻐요. 처음에 하나님을 모르는 아이들이 열심히 에너지 넘치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대단하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알바니아 선교를 체험하면서 제가 축복을 많이 받은 아들이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했어요. 예일 선교팀과 함께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 WORK CAMP TESTIMONY

June 2016



This was my first workcamp so I can't compare it with my other experiences. But, I can gladly say that I had my first workcamp with the people in my crew. They were all so nice, as were most of the people at Schenectady, my resident Joe Salvino was the sweetest, most kind person I've ever met. He offered so much and even the smallest gestures spoke volumes of what kind of person he was. For the first few days, I kept to myself, and didn't want to say hi to others, but as the week went on, I slowly opened up to the people in my crew. There were times when things got frustrating, but as a team we got through it and finished up the job best we could. But, the last job we had to do at the site was putting in wooden floors and no one had any experience, so another crew had to come and help us. Although there was an obstacle in our way, God helped us overcome that issue and sent another crew to our site to finish up the job. Though the work was extraneous and it was a relief to finish up the job, when I look back the most blessed thing that I experienced was meeting my resident

Joe. Joe was blind for half his life and had a dog to lead him places. Despite his blindness, he welcomed us in his home with open arms and made us feel so welcome. He accepted his blindness and wasn't cranky but he was calm and he always seemed at peace with what had happened to him. He walked cautiously and reached his hands out for anything that could have been in his way. Joe reminded me of how we spend our whole lives searching for something to give us peace and we're blind to the love and grace of God. We listen to what the world says we are, and deaf to what God says we are, we are brainwashed by the standards of this world and of this society that we become blind to what we truly are, the sons and daughter of Christ. Although Joe was only blind, so many times we are spiritually both blind AND deaf. Through this work camp I gained much more understanding of what being a follower of Christ means, serving with a heart of servitude and not of obligation, having a heart and mindset of humility. But most importantly that we must also carry our crosses daily.

## 나를 택하신 주님!

세 아이를 키우면서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는 중에서도 가슴이 뻥 뚫린 듯한 공허함과 외로움을 느끼던 어느 날, 조유경 사모님께서 가르치시는 Mother Wise 프로그램에 조인하게 되었다.

첫날 수업부터 나의 공허함과 외로움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응답받는 듯 했다. 나의 마음을 두드린 첫 강의는 “당신을 택하신 주님”이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위하여 너를 신부로 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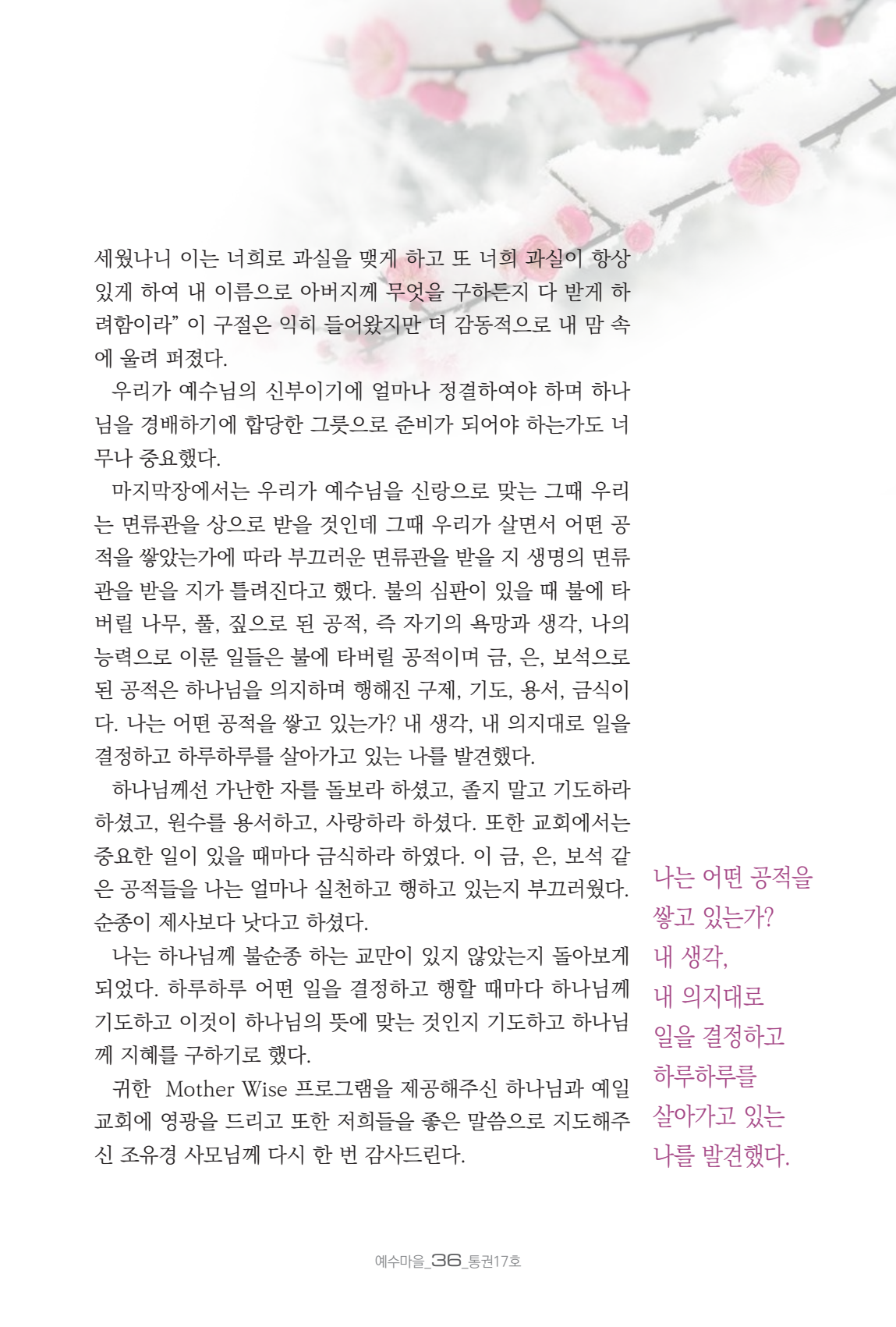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위하여  
너를 신부로 택했다”

한 주 한 주 지나면서 이 교재의 제목 “회복”처럼 내 마음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회복되어 가는 것을 느꼈다. 나의 공허함과 외로움은 뜨거운 성령이 떠나고 그 빈 마음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 했기 때문이었다. 친구로 채워보려 했고, 자식들에게서, 또 남편에게서 채워보려 했지만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뿐이란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이 책의 예화에 나온 보아스와 룯의 사랑과 결혼과정을 통하여 유대인의 결혼풍습을 배웠고 조유경 사모님께서 유대인의 결혼식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그들의 결혼풍습이 하나님이 나를 신부로 택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귀한 피로 나를 사신 그 놀라운 사랑과 비유되었다.

유대인의 아버지가 신부를 고르듯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함이라” 이 구절은 익히 들어왔지만 더 감동적으로 내 맘 속에 울려 퍼졌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이기에 얼마나 정결하여야 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는가도 너무나 중요했다.

마지막장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는 그때 우리는 면류관을 상으로 받을 것인데 그때 우리가 살면서 어떤 공적을 쌓았는가에 따라 부끄러운 면류관을 받을 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지가 틀려진다고 했다. 불의 심판이 있을 때 불에 타버릴 나무, 풀, 짚으로 된 공적, 즉 자기의 욕망과 생각, 나의 능력으로 이룬 일들은 불에 타버릴 공적이며 금, 은, 보석으로 된 공적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행해진 구제, 기도, 용서, 금식이다. 나는 어떤 공적을 쌓고 있는가? 내 생각, 내 의지대로 일을 결정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하나님께서선 가난한 자를 돌보라 하셨고, 즐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고,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 하셨다. 또한 교회에서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금식하라 하였다. 이 금, 은, 보석 같은 공적들을 나는 얼마나 실천하고 행하고 있는지 부끄러웠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다.

나는 하나님께 불순종 하는 교만이 있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되었다. 하루하루 어떤 일을 결정하고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로 했다.

귀한 Mother Wise 프로그램을 제공해주신 하나님과 예일 교회에 영광을 드리고 또한 저희들을 좋은 말씀으로 지도해주신 조유경 사모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나는 어떤 공적을  
쌓고 있는가?  
내 생각,  
내 의지대로  
일을 결정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 마더와이즈, '회복'을 마치면서



예수님의 신부로 택함을 받아 살아가면서 크리스찬의 올바른 삶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녀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면서, 좀 더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찾아 결정하고, 또 내 자녀들에게, 주의 사람들에게, 좀 더 너그럽고 참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아이들에게도 천국의 비밀과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녀로서,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신부로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나 스스로 한 번 더 되새김질하였습니다.



회복의 공부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 중에 택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이며 그 뒤에는 큰 책임이 있음을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를 태초부터 선택하신 계획하신 사랑, 내가 그분을 선택한 것이 아닌, 주님께 선택되어 자녀가 된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임을 깨닫게 해주신

성령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님의 섬세한 사랑 그 분과 좀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삶이 되어가게 되었고, 나를 구원하시러 귀한 피로 값을 치루시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시는 것은 주님의 은혜이며..... 그분이 원하시는 건 내 마음을 열고, 그

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 그분 안에서 거하시는 성령의 열매의 삶이었습니다.

그분의 거룩한 목적이 내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식과 남편에게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구별된 삶은 무엇일까? 스스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선택받은

신부의 삶이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내가 받은 은혜를 모든 이들과 나누는 것이라고 정리해 봅니다.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말씀 묵상 그리고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며 세상의 욕망을 버리는 연습을 해야 함을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너무 부족하고 부족한 저를 신부 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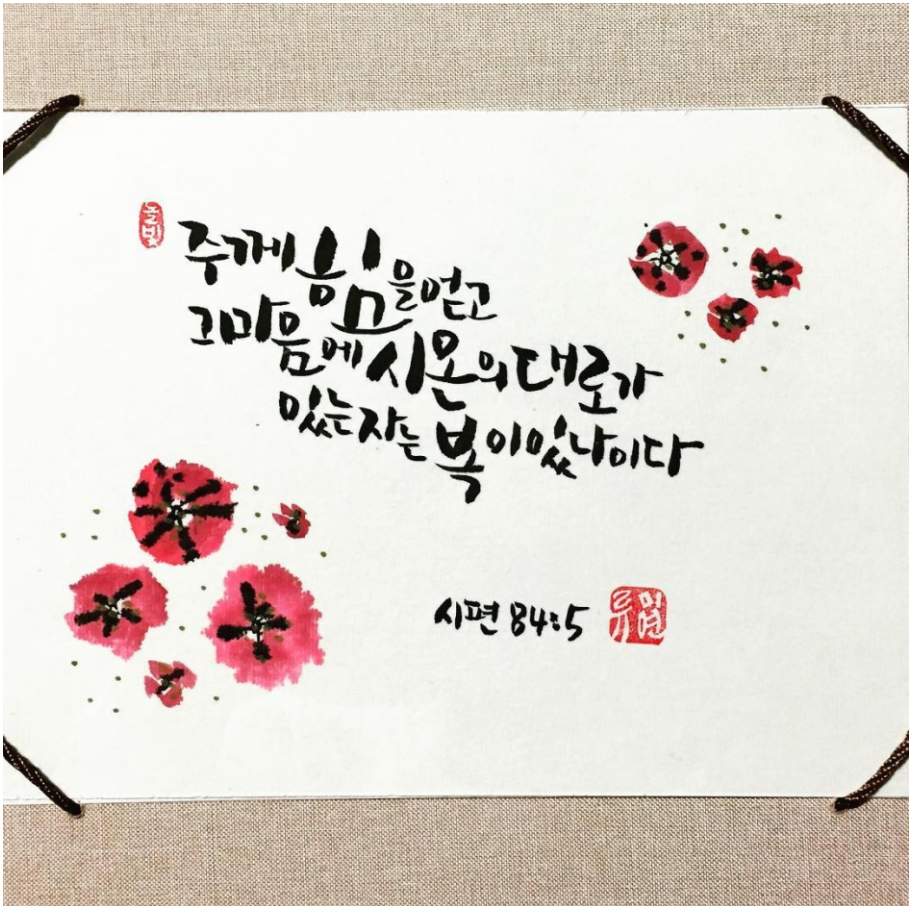
아 주신 주님! 저는 당신의 고귀한 사랑의 대가를 받기에는 정말 부족하게 살아왔습니다. 또 한번 회복의 공부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갈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기도한 바가 이뤄지지 않아도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계획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주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어떤 어려운 문제보다 크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 천국에서 열리는 결혼식에 나를 위해 격렬한 감정에 기쁨으로 춤을 추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여성이 되기 위해 준비하는 신앙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은혜 그리고 은혜입니다.

나의 신랑 되신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 ‘회복’을 마치며



회복을 공부하기 전 주님과 사랑이, 가족과의 사랑이, 이웃과의 사랑,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사랑이 “회복” 되기를 간절히 바랬었습니다. 그런 저의 갈급함을 아시는지 예비하시고 “회복”이라는 교재로 마더와이즈를 공부하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작년 마더와이즈 “지혜” 편이 남편과의 관계, 아이와의 관계, 아내로서 부모로서 다양한 관계 안에서 성숙하게 세워주는 말씀이었다면 “회복”편은 예수님의 신부로서 회복되어지는 나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양육과정이었습니다.

늘 바쁘고 분주하며 복잡한 일들 속에서 그리고 날마다 정해진 루틴에 지치고 공허함마저 드는 세상에서 난 알게 모르게 감사함보다는 불평하며 원망하며 스스로를 힘들게 하며 평안함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회복”을 공부하면서 이런 나의 모습도 조건 없이 귀히 여기시고 온전히 사랑해주시며 그 사랑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느끼며 그 사랑으로 귀한 주님의 신부로서 부끄러움 없도록 아름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참으로 편안해졌습니다.

마더와이즈를 통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내 안에 있는 나를 말씀으로 진단하며 내 마음의 사랑의 그릇을 어떻게 채워가야 하는지를 알게 되어 나의 마음이 치유되고 아내로써 어머니로써 이웃으로써 나의 모습이 조금씩 변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남편과 자녀와 그리고 이웃을 이해하게 되고 동시에 내 마음도 평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를 험시바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인이라 불러주시는 주님! 그분의 신부됨을 사모합니다. 온전한 신부로 거듭나기 위해 늘 묵상하며 말씀 속에서 살아가도록 주님이 인도해주시리라 믿으며 내 안에 주님의 아홉까지 성품이 자라나서 주님 안에서 만난 모든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길 기도 합니다.



## Mother Wise를 마치며

“회복”, 이 책을 공부하기 전에 난 무엇으로부터의 회복이 내 삶에 있어야 하나 생각해 봤다. 엄마로써 아니면 여자로써의 그 어떤 회복이겠구나 하는 어렵짐작과 한편으론 그것이 무엇이든 회복된 삶이란 참으로 평온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공부를 시작했다.

기대 이상이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내면 깊은 곳에 과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만한 마땅한 자녀인가?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며 행하며 살아야 그 사랑에 보답하며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곤 했었다. 이에 대한 물음에 충분한 답을 준 공부였다. 앞으로 내 삶속 여러 면에 걸쳐 회복이 이

루어질 수 있는 감사한 시간이 아닐 수 없다.

자존감이 단단하여진 것은 그 중에서도 최고의 기쁨이자 가장 가치 있는 회복 중 하나였다. 난 예수님의 신부이다. 그것도 그분의 목숨으로 대가를 치른 귀하고 귀한 사랑스런 그분의 신부인 것이다. 예수님께 사랑받는다라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기쁜 일이다. 그리고 이 사랑은 모든 삶의 거치적거리는 문제들을 깨끗이, 미련 없이 털어내고 그분을 만나게 될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보석과도 같은 소중한 기초가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었다.

거룩하게 구별된 삶,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써의 삶의 회복 또한 믿는 자로써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는 값진 회복이었다.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거룩에 대한 정의는 잘못된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이미 거룩함과 의롭다 함을 받은 나였던 것이다. 이제는 내가 나를, 내가 남을, 남이 나를 정죄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오직 예수님의 신부로 택함 받았으니 신부로 합당하게 각자 부르심에



합당하게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신부로 살면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할 줄 안다고 말한다. 나는 태초부터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이다. 엄청난 그 큰 사랑을 받고 있으니 지금보다 더 이웃을 사랑하며 나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나아가 천국에 가는 그 날까지 기쁨과

감사로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기를 기도한다.

짧은 6주간의 공부였지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깊이 있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선택된 사랑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고 알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하루 더 천국에서 예수님과 만날 날이 가까워졌음에 감사한다.

예일 마더와이즈

## Yale Mother Wise

예일 마더와이즈 모임 제3기를 이번 3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마더와이즈 제1기에는 **지혜로운 어머니**(Wisdom for Mothers) 편을,  
제2기에는 **회복**(Restore my Heart) 편을 공부했습니다.

이번 봄, 3월부터는 제3기 **자유**(Freedom for Mothers) 편을 시작하게 됩니다.

언제: 매주 수요일 오전 9시30분  
시작: 2017년 3월 1일부터 (8주)

교재: 마더와이즈 - 자유 (Freedom for Mothers)

\*교재비 \$10

인도자: 조유경 사모

## ‘회복’을 마치고



6주간의 Motherwise 가 끝이 났다. ‘회복’이란 키워드로 좀 짧은 듯한 느낌을 가지고 공부했다. 이 공부가 끝난 지금 나는 과연 회복되었는가?

어쩌면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회복된 것이 아닐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열렬히 사랑하시고 그래서 내 죄를 대신하여 그 귀한 목숨까지 바치신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느끼지 못했던 것은 그토록 버리라는 사람의 생각, 즉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들어온 마귀의 방해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사탄은 항상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하기 위해 틈새를 엿보다가 틈만 나면 생각 속으로 비집고 들어와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든다.

이 공부를 하는 동안 내겐 그런 일들이 많았다. 이 공부를 시작하면서 좋은 생각으로 시작해서 6주 동안 뭔가 하나라도 얻고 끝내겠다는 나의 다짐은 빛나가는 것 같았다. 솔직히 이 6주의 시간 동안 나는 늘 흔들렸다.

왜 이럴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뭘까 생각하며 6주를 지나면서, 특히 회복이란 말과 연관시켜 가며 기도하며 온 결과 내 처음 예상과는 많이 다르지만 그래도 얻는 것이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

회복하려면 내 모든 문제가 드러나야 된다. 내가 흔들린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이 나를 둘러싼 모든 문제가 드러나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주님께서서는 그것을 감당할 힘도 분명히 내게 주셨다고 확신한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공부를 통해 내가 얻은 확실한 결실이다. 진심으로 우리 주님께 감사드린다.



## 값진 은혜의 시간



101제자훈련을 마치며 이렇게 간증문을 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사실 예수님을 영접하리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외가 쪽으로는 스님이 두 분이 나 계실 정도로 철저한 불교 집안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다가 청년 시절에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이민생활의 정착을 위해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나이 30이 넘기 전에 장가를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한국에 계신 가족의 소개로 지금 아내를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 서신을 주고받다가 어느 정도 마음에 끌리는 바가 있어서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짧은 만남 속에서 무엇을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무조건 잘 해주겠다는 말만 했습니다. 저의 말에 신뢰가 갔던지 아내는 이 약속을 믿고 저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을 한국에서 올린 후 저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 왔습니다. 이제 1-2년 후면 미국으로 들어오게 될 아내를 위해서 제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미국에 아는 사람이라곤 저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들이 이제 함께 신혼 생활을 꾸려 나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걱정이 들기도 했습니다.

고심 끝에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분의 인도로 교회에 발을 들여 놓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낯선 이국땅에 남편만 바라보고 오는 아내를 위해 아늑한 울타리를 마련하고 싶어서 열심히 교회에 다녔습니다. 열심히 교회에 다니다 보니 예수님도 알게 되고, 또한 그를 믿는 믿음으로 세례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내도 미국에 와서 함께 교회를 나가다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저희 부부는 이곳에서의 삶을 하나하나 개척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선물로 주셨고 그들의 성장과정에서 많은 기쁨과 행복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가정에 시련의 시기

나도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체계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101 제자훈련을 마친 지금의 소감을 말하라고 한다면 '너무 기뻐다'라고 말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가 찾아 왔습니다. 신앙생활이 힘들어 지고 영적으로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고 교회의 문턱이 멀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이런 와중에도 우리 가정을 위해 중보기도 해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저희 보다 먼저 신앙을 가지시고 우리 가정의 아브라함 처럼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 저의 큰 형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일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에서 묻어 나오는 신실함이 마음에 끌렸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친절함이 정착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처음 등록하고 나서 바나바 사역부의 정성어린 돌봄이 마음에 평안을 얻게 되었고, 새 가족 만남을 통해 예일교회가 체계적이고 참 잘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도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체계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전 목장에서도 목사이신 박성우 집사님의 헌신과 성품에 많은 감동을 받게 되었고, 김영애 집사님과 목장식구들의 사랑에 감사했습니다. 더불어 4 선교의 회장님을 비롯하여 임원진과 회원들의 사랑의 감사했습니다.

그러던 중 윤승진 목사님의 소개로 101 제자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101 제자훈련을 마친 지금의 소감을 말하라고 한다면 '너무 기뻐다'라고 말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했는데 이 훈련을 마친 후 성경의 맛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목사님의 설교 말씀도 훨씬 깊이 마음에 와 닿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양육자이신 김근태 장로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저에게는 큰 축복이었습니다. 장로님은 그리스도인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은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를 차근차근 일러 주셨습니다. 이제는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그리고 주일날에는 교회 가기 전에 꼭 성경을 읽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교회에 옵니다.

먼저 너무나도 값진 은혜의 시간을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부족함을 인내로 견디시며 기쁨으로 양육해 주신 김근태 장로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기도로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아내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101 제자훈련을 하고 나서



성경공부는 결코 재미있는 공부는 아니기에 망설였지만 주위의 권유와 현재 나의 무식함을 깨우치려는 내면의 희망이 나를 이끌어 주어서 지금도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시는 선생님을 보면서 들으면서 나의 마음은 진지하고 흥미로운 시간속으로 알고 있는 것을 더 확실하게 어렵듯이 알고 있는 것은 명확하게 깨우쳐감이 기다려지고 배움에 더욱더 매진하게 되어서 감사함으로 매 시간 소중하고 또 기대에 찬 시간들이었습니다. 더욱이 천국에 대한 확실한 체험과 나의 달려갈 길임으로 가르침을 받을 때엔 나의 마음속에도 나의 삶의 목적이 뚜렷하게 새겨져 지금도 감동입니다.

나의  
삶의  
목적이  
뚜렷하게  
새겨져  
지금도  
감동입니다

말씀 외우기는 힘든만큼 더욱 말씀과 가까이 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공부는 내 삶속에서 항상 해보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이번 101성경공부는 저에게 새로운 도전과 목표를 주셨기에 더욱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하여 감사함을 전해드립니다.



## 201 제자훈련을 마치며



제자훈련을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기까지가 힘들었는데, 이렇게 제자훈련을 받게 되고 또 마무리하는 날까지 무사히 잘 오게 된 것이 감사하다.

매주 목사님과 전도사님, 또 많은 집사님들과 함께 모여서 배우고 나누었던 시간들이 짧게 느껴진다. 무엇보다 제자훈련이 아니었으면 읽지 못했을 좋은 책들을 통해서 많이 생각하고 배울 수 있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면 감사한 일이 많았고, 기쁘고 행복한 일들이 많았다. 내가 바라는 것보다 항상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고 있다. 제자 훈련 또한 하나님이 나의 성장을 위해 계획하신 일이 아니었을까.

제자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발 밑에 나의 모든 걱정과 염려와 슬픔을 내려두고, 두 팔 가득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오는 훈련을 한 것 같다. 어려운 일이 닥칠 때, 힘이 들 때 어느샌가 눈을 감고, 예수님께 걱정거리를 들고가 그 발 아래 놓고 오는 나를 상상한다.

제자훈련에서 배운 것들과, 또한 배우면서 느낀 점들을 잊지 않고 실천하며 새해를 맞이해야겠다.



## 온전한 변화

이번 201제자훈련을 통해 지나온 나의 신앙생활을 재정립하게 되었다. 먼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다시 배우며 예배에 임하는 나의 자세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이사야 6장과 빌립보서 2장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쉰 살이 넘도록 내 위주로 예배를 드리고 세상적인 성도의 교제를 하며 살았다.

201제자훈련을 하며 우리들의 최종 목표는 “변화”라고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셨다. 제일 가까이서 지켜보는 남편에게 많이 변화되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했다.

3달 정도의 시간이 빠르다면 빠르고 길다면 긴 시간이었지만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많이 웃고, 많이 울고, 많이 배우고, 많이 감사하다. 그리고 많이 기쁘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내지 말고 신실하고 성실한 주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충성스런 일꾼으로 우뚝 서고 싶다.



## 하나님 바라기



제자훈련을 통해 그리스도를 주라고 백한다는 것이 성령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기로 나의 삶에 변화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함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변화를 실천하는 것은 그 동안의 내 삶의 습관을 바꾸고, 지금까지의 나의 목표와 삶의 방식을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하고, 또한 세상에 대한 나의 가치 기준도 재정비가 필요함을 알게 되니, 쉽지 않음이 느껴집니다.

우선 순위가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하고, 좋아하는 일도 줄여야 하고, 직업을 갖는 일에서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에 방해요소도 고려해야 하고, 언행도 조심해야 하고, 주저하게 만드는 생활방식도 고쳐야 하고, 예전처럼 어느 것 하나도 내 감정도 나의 기준으로 단순하게 결정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행동에 앞서 말씀에 비추어 보는 필터링 단계를 거쳐 나의 순간들을 조심스럽게 살아야만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진지하게

말씀을 읽고 깊이 있게 묵상하며, 진실하게 기도하여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축복의 삶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근거로 저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나의 생각과 지각을 모두 내려놓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시여 나의 날들을 채워주시길 소망합니다.

\*저를 예일교회로 이끄시고 일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나라를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 그리스도의 집 짓기



어떤 이는 큰집에서 살기를 원하고, 어떤 이는 작은 집에서 살기를 원하기도 한다.

무언가 알아간다는 것은 좋은 것 같다. 인간의 내면을 제대로 채워줄 수 있는 걸 안다는 것이 참 좋다. 깨닫고 배우고 영적성장을 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에 목적지와 방향을 정하여 나아가야겠다는 것이 201제자 훈련을 하면서 좀 더 확연해졌다.

거창한 결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작은 한가지라도 제대로 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조그만 씨앗이 밀 거름이 되듯이.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이  
깨지고  
부서져서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한다.

진정한 예배에 대해 알았다.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이 깨지고 부서져서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한다. 그리고 나의 모든 생활에 적용하고 실천해서 참된 예배자가 된다. 나 자신, 가정, 사회, 봉사료까지 내 자신이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바탕으로 두고 사는 것,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세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내 자신이 내 마음의 그리스도 집을 지어 그 집을 늘 아름답게 가꾸면서 살아가는 것이 내가 잘 살아가는 노후가 될 것 같다. 잘 살아보세!

## 시각 바꾸기



먼저 제자훈련201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좋은 목사님과 같이 공부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귀한 분들을 붙여 주시고 끝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201제자훈련을 공부하기 전까지는 제 신앙생활에서 많이 알고 있고, 잘 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201을 공부하면서 수박의 껍을 훑고 는 수박 맛을 봤다고 말하는 것 같이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걸만 훑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01제자훈련과정을 통해 성경을 보고 묵상하는 깊이가 깊어졌으며 하나님과의 교제가 생각보다 쉽다는 것을 배워서 짧게라도 자주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신앙생활의 시야가 넓어져 신앙생활에서의 초조함, 불안함이 사라지고 여유 있는 시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아내와 저 사이에 신앙생활면에서 높고 짝 막힌 담을 느꼈었는데, 201 제자훈련을 같이 공부하면서 신앙생활에 공통 관심사가 생기고 같은 시각으로 보는 일들이 생기면서 소통의 길인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201제자훈련을 통해서 제 신앙생활이 한 계단 올라서게 하신 하나님과 그동안 저희들을 위해 귀한 시간과 정성을 투자해 주신 목사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 두려움 극복하기



제자훈련을 끝까지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몸이 아파서 기도부탁 드렸다가 훈련 받기를 권면해 주신 목사님을 이해하지 못했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의 뜻일거라 확신하고 두려움으로 시작한 제자훈련입니다.

알 수 없는 두려움 때문에 내 몸의 모든 신경들은 곤두서 있었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몸이 먼저 반응을 보여 밥을 먹을 때마다 위가 뭉쳐서 소화가 안 되고 먹는 대로 체했기 때문에 체중이 계속 빠지며 몸이 말라갈 때였습니다.

제자훈련을 시작하면서 끝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렸고 지금은 제자훈련을 끝까지 마친 것은 물론 건강까지 회복되도록 해주셨습니다.

훈련 중반기까지는 몸이 너무 아파서 숙제하기도 버거웠지만 성경암송과 찬송가 외우기를 매일매일 반복하면서 힘을 얻었고 주님이 용기를 주셨습니다.

숙제로 내주신 책을 통해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조목조목 깨닫게 해주셨고 내 삶에 적용하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두려움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우울했던 감정도 주님께서 주신 평안으로 기쁨을 알게 해주셨고 내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만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것도 알게 해주셨습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분들과 이웃에 그 은혜를 같이 나누며 주님께 받은 사랑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 좋은 토양 만들기



제자훈련을 시작하고 끝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시작할 때도 마칠 때도 걸림돌이 있었는데, 그것을 넘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3주의 제자훈련과정은 숙제와의 싸움이었습니다. 한 주 한 주 마감을 앞둔 작가의 심정이 저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래도 매주 이 훈련을 통해 한 과씩 공부하면서 건강해졌다고 봅니다.

균형이 맞지 않는 시각에서 중심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린 신앙인지 아닌지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영적으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내게 부족한 것을 채우고, 또 넘치게 많은 것은 가지치기 하면서 다듬어 가는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묵상과 말씀연구는 같이 가야 하고, 고백 부분에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과 개인 사이의 은밀한 일이기도 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일어나는 것이므로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십자가를 의지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십자가를 사이에 두고 고백하는 자와 고백

을 들어주는 자가 서로 균형을 잡을 수 있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십자가를 늘 목상하고 지는 삶을 살도록 깨어 있어야 함도 다시 한 번 배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모르는 것을 질문하고 답해 주실 때는 한편의 설교를 듣는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제자훈련을 하신 분들의 아름다운 마음과 주님의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어 참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은혜와 배움이 저의 신앙생활에 좋은 토양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어 변화 성장시켜 나가실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 영혼 훈련



광야 한가운데 사나운 이리떼들 사이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는 우리들을,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돌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 인생들을 지켜주시니 그 어떤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도 능히 그 강하신 팔로 붙드시고 때론 안으시며 그 강을 건너게 하시고,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만족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내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이번 201제자훈련은 영성훈련 교과서와 매 회마다 정말 좋은 책으로 수련장 문제풀이 같은 부교재 읽을거리를 주셔서 13주간의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한 영혼이라도 잘 훈련시키시려는 그 열정 가지고 수고하여 주신 목사님께 고마운 마음이다.

원래 책읽기를 싫어하던 내게 독후감까지 써야하는 부담감이 컸었으나 읽기만 하는 것과 추려보고 종이에 적는 동안 그래도 조금은 더 복습이 되는 꼴이었다. 내면세계를 공부하면서는 맘속에 찢림과 꼬집어내고 싶지 않은 악하고 추한 것들과 약한 모습들에 부끄럽기가 짝이 없으나 그럼에도 어린아이처럼 순

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풀어놓고 회개하고 사함 받는 삶이 그분께서 더 기뻐하지 않으시겠는가.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기꺼이 반겨주시는 이 앞에 나 자신을 부인하며 주 되신 하나님을 높이며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여 친밀한 교제 가운데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아야겠다.

이번 훈련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모든 이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린다. 또한 좋은 젊은 지체들과 잠시나마 젊은 마음이 되어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다.

이번 훈련기간을 통하여 지극히도 미흡하지만 뉘족하게 세웠던 날이 약간은 무디어지고 약간의 긍휼의 맘도 맛보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 201 제자 훈련을 마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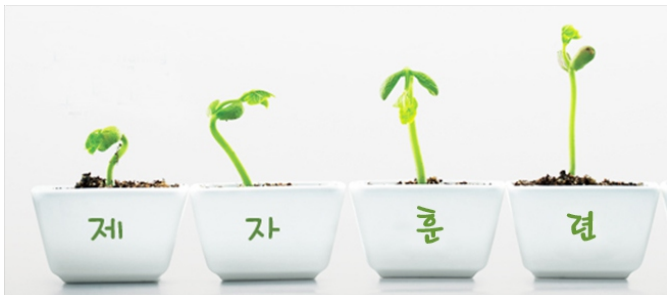
벌써 13주의 201 제자훈련과정이 끝났습니다. 시작할 때는 언제나 끝날까 길게만 생각되었던 그 13주가 이제는 내 입에서 “벌써”라는 말이 나옵니다.

나에게는 이번 201 제자훈련이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실은 이번 201 제자훈련 과정은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신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어했던 아내 때문에 그리고 나 역시 영적으로 바닥을 헤매고 있었고, 힘들어지는 비즈니스로 내 몸과 마음은 매우 지쳐 있어서 제자훈련을 하면 나에게 좋은 것은 알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고 다음에 해야지 하면서 제자훈련에 참석하라는 권유도 거절하였습니다.

“  
선하신  
하나님은  
내가 영적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  
인도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부를 때 “예” 하고 달려가기만 하면 나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도, 당장 내 앞에 있는 현실을 핑계로 대답하기를 주저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하신 하나님은 내가 영적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201 제자훈련이 필요하기에 결국 아픈 아내를 통해서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일단 훈련에 참여



한 후에는 참으로 은혜의 시간들이었지만 왜 그런지 훈련 중반까지는 아내의 상태가 점점 더 나빠져만 갔습니다. 정말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힘들어 하는 아내를 보며 내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힘든 시간들이 나와 아내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것이라고 서로가 위로하면서 훈련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훈련으로 매주 암송해야 하는 성경 구절과 찬송가는 그 한 주 동안 나의 삶 속에서 힘이 되었고, QT와 독후감은 나의 내면과 삶을 돌아보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나와 내내는 조금씩 변화해 갔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건강도 눈에 띄게 회복되어 갔고 나 역시 영적으로 많이 회복되어 갔습니다. 의사와 어떤 약들도 하지 못하던 치유의 일을 목사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체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번 201 제자훈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말을 머리 속의 지식으로만 채우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교회와 형제와 이웃을 섬기는데 힘쓰겠습니다..

특별히 13주 동안 함께 울고 웃고 마음 속의 것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준 제자반 여러분들과 인도하여 주신 목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특별히 저에게 201 제자훈련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 귀한 만남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

훈련으로 매주  
암송해야 하는  
성경 구절과 찬송가는  
그 한 주 동안  
나의 삶 속에서  
힘이 되었고

...

”

##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을 만나기 전 저는 군인 집안의 무남독녀로 사랑을 독차지하며 무교인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때 친구의 권유로 처음으로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성가대도 했지만, 몇 년뒤 아버지의 반대로 다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학졸업 후 일찍 결혼을 하고 유학 준비를 해온 남편을 따라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를 돌이켜보면 하나님을 갈망해서라기보다 타국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근처 한인교회에 나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 곳에서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세례를 받고도 교회를 섬긴다는 마음보다는 유학생들과의 교제에 마음을 두고 교회에 다닌 것 같습니다.

두 아이들이 태어나고 그 이후 남편의 졸업과 취직으로 시카고로 이사를 가면서 교회도 옮기게 되었습니다. 한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믿음생활도 건들기 시작했습니다. 연년생 육아로 지쳐가는 힘겨움들이 첫 직장생활을 하는 남편을 위하고 챙겨주기보다 불만이 커지면서 점점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필요성을 크게 못느끼

고 내 생각, 계획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불성실한 신앙생활 속에 우리 가족은 4년을 뉴저지에서 1년을 한국에서, 그리고 3년 전엔 이곳 롱아일랜드로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썸머캠프 이후 예일교회에 등록을 하고 나오면서 가족같은 목장모임과 마음에 와닿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교회에 점점 적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츰 주어지는 봉사나 사역, 성경공부의 권유가 마음의 짐으로 다가오면서 조금씩 미루고만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 제안에 결심이 들어왔습니다. 쉬운 길로만 오던 믿음이 약한 나... 이제는 변화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을 크게 체험한 적은 없지만 101 제자훈련을 통해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가는 믿음생활을 하고 싶어서 성경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렵고 쉽지 않을 과정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온유목장 집사님들의 권유와 응원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마음을 열고 같이 101 제자훈련을 받게된 것 또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모르고 지었던 나의 죄들,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큰 뜻을 알아가면서 눈물 흘리며 회개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박지혜 권사님과 한 과 한 과를 배워나가며 찬양을 하고 말씀을 읽고 큐티를 나누면서 교제하는 시간마다 은혜가 있게 하셨습니다. 전에 겪지못했던 일들이 크게 다가와 마음이 힘들었을 때에도, 신장결석으로 잠시 성경공부를 못하게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아팠던 제 몸과 마음을 보듬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동갑내기 임수연 집사와 합반을 시작하면서, 같은 말씀도 다른 시각으로 나누고 깨닫게 해주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의지의 친구, 믿음의 친구로 맺게 해주신 것에 감사했습니다.

이번 101 제자훈련을 통해 저의 신앙생활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진실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부분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앞으로 말씀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좋은 아내, 엄마로서 감사를 먼저 생각하며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는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게 하셨습니다. 성경공부를 하는중에 성가대를 섬기고 싶은 마음과 선교회 사역의 일도 주셨습니다.

약함 많고 부족하지만, 순종하는 딸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믿음생활 이어나가는 제가 그리고 그런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감사합니다. 주님! 제게 너무 많은 것을 주셔서.

4개월 동안 내 삶에 바빠 일상을 피곤해 하면서 용기내지 못했던 제자훈련을 잘 마치게 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저희 친정엄마의 외가에서부터 저의 외할머니, 저희 엄마 모두가 뿌리깊게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분들의 이끌림으로 지금까지 그저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모든 것인양 살았습니다. 정말 부족하고 형편없는 저였음을 이번 제자훈련을 통해 시작하는 첫 시간부터 저의 잘못된 선입견과 안일한 믿음생활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아지게 하였습니다. 저의 마음속에 간혀 있던 쓴 뿌리가 쏟아져 나오는 감사와 회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가 기쁨이 되고 날마다 은혜의 시간들이 되는 체험을 하면서, 그동안 구원받았다고 확신했던 제 자신이 정말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누군가가 묻는다면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어 숨고 싶었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 만남, 두 번째... 계

속 거듭되어지는 만남의 과정에서 운목 사님과 함께한 제자훈련은 너무도 귀한 시간, 나를 변화시키는 시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난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저 자신을 체험하게 되면서 나의 삶이, 생각이, 마음과 행동 모든 것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그분의 위대하심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심 속에 우리가 그분 안에 속한 자녀의 특권이 얼마나 큰 감동이고 감사였는지 깨닫게 되고 확신이 생겼습니다. 지금의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나의 고단한 삶의 무게가 모두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나의 기도하는 시간이, 시간을 내어 성경을 읽고 내게 주시는 말씀에 감동하고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들, 재미없고 지루하게만 느꼈던 어떤 부분의 성경내용들까지도 이상하리 만치 그 안에 숨겨있는 진리를 깨닫게 될 때마다 또 감사요 기쁨의 눈물이 은혜의 강가에 머무는 나를 발견하며 감사의 감사가 더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에 감사하게 됩니다.

내 마음판에 새기라 하신 성경암송구



“  
성경구절을 외우면서 처음엔 어렵게 여겨지던 말씀이  
정말 신기하게 외우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말씀구절이 내 생활의 어느 부분에선가 적용이  
되고 있음을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

절을 외우면서 처음엔 어렵게 여겨지던 말씀이 정말 신기하게 외우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말씀구절이 내 생활의 어느 부분에선가 적용이 되고 있음을 알게 되고 체험하며 기쁘게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단계를 밟아가게 되었습니다.

QT시간을 통해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교제의 시간은 너무도 귀한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고, 주일날 목사님의 귀하신 말씀을 노트에 담아갈 때 한주 동안 그 말씀에 힘 받아 살 수 있는 감사의 시간이 되었고 예배를 통한 교제의 시간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알게 되면서 예배를 드리는 나의 태도가 주님앞에 더욱 경건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도간의 교제, 특히나 저희 4선교를 이끄시는 집사님, 그리고 여러 회원 집사님들의 서로 기쁨과 사랑으로 헌신하며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고 이곳 예일교회에 한 가족이 된 것을 더욱 감사하며 그분들처럼 저도 잘 다듬어져서 함께 헌신하고 봉사해야 하는 마음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번 제자훈련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기회였음을 또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자훈련 시간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열심으로 지도해 주신 사랑 많으신 윤목사님의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제가 변화되어서 저 자신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생활의 전도자가 되며 내게 주신 말씀의 감동이 내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됨을 전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충만 함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의 인격과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라 함을 늘 깊이 새기며 항상 겸손하고 날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기도생활 말씀생활이 더욱 전진해 갈 수 있도록 앞으로 성숙한 신앙인이 되도록 제자훈련을 통하여 살아계신 우리 주님 앞에 다짐하며 고백합니다.

모든 여건을 이끌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저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격려해 준 나의 사랑하는 남편 정기호 집사에게 감사드립니다.

## 믿음이란 진정 어떤 걸까?



어릴 때 엄마 따라 절에 가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새벽 예불 때도, 철야 예불 때도 따라 다녔습니다. 절밥이 너무 맛있어서 후딱 해치우고는 부엌에서 공양을 짓고 있던 엄마 곁에서 놀던 일들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크면서 공부하느라 절에 갈 기회가 많지 않았고, 대학교 때 모태 신앙인 남편을 만나 주일날 가끔씩 교회를 나갔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저도 모르게 서서히 주님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미국에 와서는 세례도 받고, 열심히 교회도 다녔습니다. 먼 타국 땅에서 외롭고 지칠 때, 주님은 항상 빛이 되어 주시고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 구석에서는 “하나님은 정말 계신가?”하는 의문에서부터 “믿음이란 진정 어떤 걸까?”하는 혼란스러움이 일었습니다.

집사님의 인도로 예일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어 주보를 보는데 101제자훈련 광고가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 나답지 않게 늦은 공부시간임에도 불구하고 101제자훈련을 통해 성경을 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로님과의 101제자훈련은 특별했습니다. 평소 잘 읽지 않던 성경을 많이 읽게 되었고, 믿음을 더욱 더 굳건히 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의문되는 것은 장로님의 성실한 답변으로 해소되었고, QT를 통해 자신을 반성하고 회개하며, 더 나은 모습의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주일 설교말씀을 요약하면서 목사님의 설교말씀이 믿음의 초석이 되어 자리 잡았습니다.

101제자훈련을 통해서 항상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주님을 행해 한걸음, 한걸음 나아갈수 있도록 힘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예수님 닮기



맨 처음 윤승진 목사님께서 일대일 양육 건으로 전화를 주셨을 때엔 다니는 회사가 규칙적으로 야근을 하고, 말 잘 듣지 않는 세 아이의 양육에, 심지어 아내까지 막 일을 시작했다는 사정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일대일 양육은 어려운 일로 넘어가는 듯했습니다.

그러던 중 유년부 교사회에서 우연치 않게 일대일 양육이 이슈가 되었고 지나가는 듯했던 일대일 양육은 유년부 부장 선생님의 권유로 늦었지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벌써 일대일 양육은 시작되었을 때라 양육자인 신 목사의 배려로 일주일에 두 번씩 만나 몇 주나 늦게 시작한 것을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도 가끔 교회 나가고 대학교 때도 가끔 교회를 다녔지만 실질적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에 대하여 알게 된 것은 장모님의 권유였습니다.

아내와 결혼하려면 같은 종교가 좋지 않겠냐 하여 성당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성당의 장점도 많았지만 Plainview로 이사오면서 아내와 아이들은 예일 교회의 Mommy & Me를 하고 예일여

름학교에 다니며 많은 유익을 얻으면서 마침내 예일의 가족으로 등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예일 성도생활에 일대일 양육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즉시” “곧”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르지 못하더라도 내가 가졌던 나쁜 것들이, 예수님 보시기에 좋지 않던 것들이 조금씩 하나라도 변한다면 그게 나에게 있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제자훈련이었습니다. 신 목사의 끊임 없는 인내와 수고로 일대일 양육을 받으면서 마음이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제 성격상 모든 것이 빨리 진행되지 않는 성격이지만, 마음이 조금씩 따뜻해지는 훈련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대일 양육 이후로 성도간의 교제가 넓어지고,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순종이 무엇인지 경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맨하튼에서 아이들과 함께 태어나 처음으로 전도지를 나눠주었습니다.

지난 목장 예배에서는 윤희주 장로님께서 하신 말씀 중 “내가 가진 10개의 나쁜 것이 매 순간 하나 하나 없어진다면 더디겠지만 그게 ‘성화’가 아닐까” 하신 말씀과 일대일 양육에서 배우고 느꼈던 것이 일치가 됨을 경험하면서 제자훈련이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겨봅니다. 감사합니다.

##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



을 보고 그 친구와 같은  
평안한 마음을 부러워한  
저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부러워 하게 되었습  
니다.

저는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지 않고 불교를 믿으시는 할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 따라 절에 다니던 생각이 납니다. 처음 교회를 접하게 된 것은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준다는 말을 듣고 성탄절에 교회를 찾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교회에 인도한 사람은 고등학교 때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고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신학대학교에 진학하고 싶은 친구였습니다. 평소 바른 모습과 겸손한 그 친구를 닮고 싶다는 마음에 가까이 하게 되었고 그 친구는 주저 없이 저에게 같이 교회에 가자고 하였습니다.

그 친구 집 근처에 있는 교회는 제가 사는 집에서 멀어 교통편을 이용하여 1시간은 가야 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과 같이 성경 공부를 하였습니다. 평소에 질문이 많은 저는 의문이 나는 부분에 대해 물어보면 목사님은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대답에 실망하여 얼마 다니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두번째 기회는 군대에서 만난 친구를 통해서입니다. 그 친구의 독실한 믿음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게 된 계기는 일리노이 삼페인 교회를 다닐 적에 일대일 양육을 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미국에 들어와 언어와 다른 문화에 적응하면서 공부하는 기간 동안 모든 것이 어려웠습니다. 자신이 항상 약하고 남에게 부탁을 해야 하는 자신을 볼 때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내 자신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하고 삶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카고에서 직장 인터뷰를 하고 취업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가정을 꾸려가면서 미국 땅에서 아무 사고 없이 지내게 해 달라고 기도하고 주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주님께 의지하는 삶을 갖고 난 뒤에는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데 있어 항상 진실로 대하고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진실로 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일대일 양육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이란 어떤 것인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믿고 8가지의 사항을 지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의 저는 작은 일에도 화가 많았고 시기와 질투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내 인생에 가치 또한 별다를 바 없었습니다. 저의 이상적 삶은 오로지 물질로 이루고 채울 수 있는 성공이라고 저도 모르게 뼈 속까지 새기며 살고 있었습니다. 저의 내면의 아름다움이 아닌 외면의 모습에만 치중된 삶의 가치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관계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의 정반대의 생각과 마음가짐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삶 안에서 남편을 만났고 결혼을 통하여 시 어른들의 권유로 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관심도 잠깐 늘 그랬듯 저의 관심사는 세상속의 삶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무엇인지 모를 심경들이 저를 괴롭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것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물질, 분노, 시기, 질투…… 결혼 후 시간이 지나 저에게도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저만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소중한 아인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시련이었습니다. 미국에 친정 식구들이 없는 저에게는 너무 힘 들었

고 그러면서 심한 우울증에도 빠지게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전 매번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저의 소중한 삶을 마감하려는 마음으로 하루 하루를 견디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하루, 9년 전 그 때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날도 어느 때와 별 다를 바 없는 날, 남편은 출근 준비로 분주하고 저는 남편의 출근 준비를 도우려 일어나는 찰나에 방안으로 들어온 작은 불빛 속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제 눈에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때 당시도 너무 놀라 다시 자세히 보려 했으나 보이지 않았지만 그 날 하루 종일 난 너무 행복한 시간을 아이와 함께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 때는 믿을 수 없었지만 지금 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독생자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저의 영혼에 어떤 힘을 불어 넣어 주셔서 살리 신것만 같다고 믿고 있습니다.

별써 큰 아이는 자라 지금은 9살이고 둘째는 6살이 되었습니다. 9년 전 아이의 탄생으로 전 행복해야 할 시기에 아픔이 있었지만 그 일로 인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지금은 저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확신으로 믿음이 커져가고 있으며, 아이들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아이들로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의 마음가짐은 예전의 나는 죽어 없어지고 오로지 나의 중심은 그리스도께서 계시어 완전히 바뀌진 않았지만 작게나마 닦아 가려고 열심히 노력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더 깊이 알고 싶은 마음이 커졌습니다. 성경 공부를 알아 보던 중 101을 알게되었고 이 만남을 통해 저의 삶의 많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긍정적인 눈과 마음과 귀가 열렸습니다. 성경공부를 통해 마음의 새로운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나의 눈과, 마음과, 귀가 열리며 계속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저의 모습도 재발견하였습니다. 그 중창피스러운 저의 모습을 알게 되어서 놀라기도 하고 숨고 싶은 마음도 커졌

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치려는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보다 저 자신을 너무나 잘 알기에 너무나도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바뀔 수 없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기에 예전처럼 급한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고 꾸준히 성경 배우며 바뀌길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나는 죽고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중심이 되시는 삶으로 그렇게 제가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믿음과 사랑을 알게 해준 나의 영원한 동반자 남편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꼭 해주고 싶고 어떤 일보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어여쁜 아이들을 보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의 성령 충만을 도우려 매주 저의 집으로 찾아와 주신 흥정자 목사님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1을 마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다시 한 번 감사 드립니다.



## 온전히 섬기는 삶을 소망하며

저는 모태신앙인으로 예수님을 너무 쉽게 알았기에 예수님이 그리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항상 내 옆에 계신 예수님을 더 알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못느꼈었지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하며 마음 한 켠에 뭔가 공허함이 느껴졌습니다. 몸은 바쁘게 빈껍데기로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듯하였습니다.

마침 그때 윤승진 목사님이 101 제자훈련을 하지 않겠냐며 물어 오셨고, 그렇게 시작된 제자훈련을 감사하게도 드라마를 통해 잘 알고 있던 박지혜 권사님의 지도로 동갑내기 강은숙 집사님과 함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이면 시간 가는줄 몰랐습니다. 두시간 반이 짧게 느껴졌고 헤어짐을 아쉬워 했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적용한 것들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그렇게 우리는 교회가 되어 삶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자훈련을 통하여 잘 안다고

자부했던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Q.T.에 대해 배울 땐 가족과 떨어져 외로이 공부하던 시절, 친구들과 Q.T.를 하고 학교를 갔었던 학창시절이 떠올랐으며 암송구절을 외울 땐 수련회 때 말씀을 외우지 않으면 밥을 굶어야 했던 어릴 때의 제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말씀과 더 가까워졌을 뿐아니라 제 멈춰있던 신앙이 다시 조금씩 자라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무엇 때문에 제자훈련을 받게 하셨는지 압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은혜임도 저는 분명히 압니다.

이제 온전히 그리스도만이 다스리는 삶을 살고자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그리하여 맡겨주신 일들을 빈껍데기 섬김이 아니라 그리스도로의 사랑으로 온전히 섬기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자훈련을 통하여 저를 되돌아 보고 성장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 만남의 축복



저는 뉴욕노회의 추천을 받아 41회기 해외한인장로회 장로 부총회장 후보로 출마한 뉴욕 예일장로교회를 섬기는 한기하 장로입니다. 부족한 사람이 이 자리에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서 자기 소개를 잘 해야 한다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내세울 것 없는 제가 무엇을 이야기할까 고민하는데 문득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만남의 축복이 떠올랐습니다.

1. 하나님께서 좋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 행복한 유년기를 보내게 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이것이 제 인생에 좋은 기초가 되었습니다.

2. 청년기에는 좋은 아내와 결혼하여 행복하고 건강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제 인생의 최대의 행복은 아내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3. 이제는 좋은 목사님을 만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 총회장이신 김종훈 목사님을 통하여 예배 때마다 은혜의 말씀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영적훈련을 통하여 그 믿음이

다져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4. 교회를 섬기며 동시에 상회인 노회와 총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좋은 믿음의 선배와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주셨고, 그 만남을 통해 부족하지만 섬김의 지경을 넓혀 주셨습니다. 한 마디로 저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 한 번 더 총회를 위해 헌신할 기회를 주신다면 그동안 노회와 총회를 섬긴 경험을 살려 총회장님을 잘 보필하고, 총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은 해외한인장로회 제 41차 총회에서 부총회장 정경발표에 총대들 앞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저의 평생을 되돌아보며 세상 좋아하고 친구 좋아하던 내가 총회의 수장이 된 것이 무엇 때문일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만남을 주신 것이고 다음은 나의 성격상 인간



관계 때문인가 생각한다. 훌륭한 부모님 슬하에서 자란 행복을 잇을 수가 없다. 5남매가 한 번도 부모님께 야단맞은 적이 없고 집에서 큰소리가 난 적이 없다. 큰댁이 어려워지자 어머니는 할아버지를 우리 집으로 모셔와 정성을 다 하시었다. 할아버지는 나에게 항상 “애비의 반만 닮아라” 하시었다. 세상의 부모들은 자손이 자기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며 “청출어람”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는데 할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을 얼마나 잘 보았으면 손자 보고 반만 닮아도 된다 하셨을까 정말 생각해보니 나는 아버지의 덕망에 반에도 못미치는 아들이라고 인정한다. 정말 행복한 유년시절이었다. 젊은 청년기에는 직업이 신문사를 운영하다보니 관공서를 안 통하는 것이 없고 세상 재미와 많은 친구들과 어울리며 무서울 것이 없었다. 자연스럽게 교회는 등한시 하는 나를 하나님은 뉴욕으로 보내 주셨다.

뉴욕에 호주머니에 \$300 넣고 도착해보니 내가 할 일이 없었다. 아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식당에서 접시를 닦는 일부터 배웠다. 결심을 하고 가정, 직장, 교회 일만 열심을 다했다. 어려움도 많았지만 성실하게 일을 하다 보니 경



제기반도 잡히고 자녀들도 잘 자라 주었다. 감리교회를 17년 섬기다 지금의 예일교회에 등록하고 장로가 되어 교회와 노회와 총회를 섬기게 되었다. 천성적으로 사람을 사귄 때 마음을 주는 성격 때문에 노회에서 총회에서 믿음의 선배 목사님들과 장로 친구들을 알게 되고 모든 노회마다 목사님 장로님들이 가족 같은, 형제 같은 관계가 맺어졌다. 노회 임원을 지나고 총회 임원을 지내면서 장로부총회장에 출마하고 압도적으로 당선되었다.

사람은 누구나 세상에 태어나면서 부모님을 만나고 자라면서 친구들 만나고, 성숙해 가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삶의 모습도 달라지고 행복해질 수도 불행해질 수도 있다.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 부족함이 없고 기쁨과 감사가 늘 함께 함을 알게 된다.

칭찬 받는 믿음은 늘 한결같이 진실한 마음이라고 하고 싶다. 불순종이 불순종인지조차 모르고 사는 삶을 살아왔다. 제 자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이 정도(70-80%)면 100%는 아니지만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살았다. 우린 신이 아니고 사람이니 조금 부족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겠지 하고.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하는 찬양이 믿어진다. 예수 믿으라는 말하지 않아도 저절로 자신이 확신 생기면 믿는다. 좋다 좋다 옆에서 말해도 내가 확신이 없으면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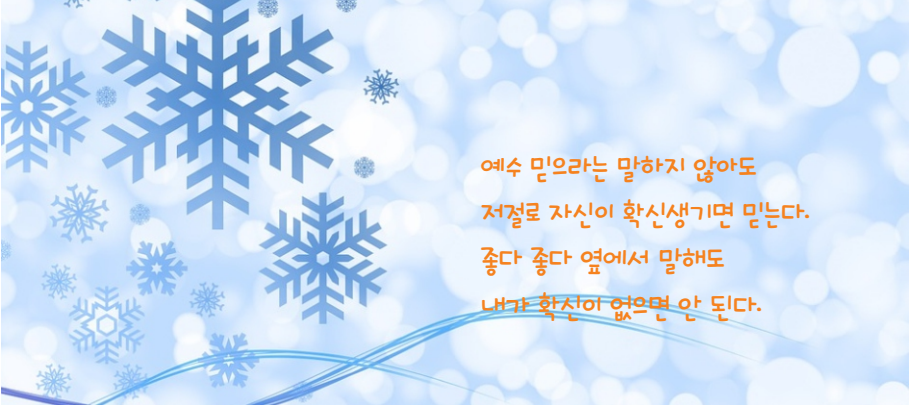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죄인, 죄인 사회에서 말하는 기준 잣대의 죄를 지은 것 같지 않은데 무슨 죄를 지었냐고 죄인 죄인 하지? 뭘 참회하지? 그렇다고 이런 조그마한 것을, 이런 것까지... 지금은 생각이 다르다. 지은 죄가 많다.

오늘의 목사님 설교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28절, 지나간 일이 생각나 눈물이 나도 모르게 흐른다. 그 여인의 심정, 그 어미의 심정. 후흥글씨 책이 생각난다. 주인공이 A자를 가슴에 달고 다니

고, 사람들은 그 여인을 돌로 치니, 죄 없는 사람이 그 여인을 돌로 치라 하였다. 돌로 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고...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저의 아들 재현이가 언젠가부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가시를 가지고 다니게 되었다. 가시에 찔리면 아파서 빼고 싶은 게 사람인데, 가시에 찔려 그 가시가 더 깊이 들어가면 더 아파 덜 찌르게 하고 싶고, 그것을 빼주고 싶은 게 엄마의 마음이다. 처음 가시에 찔렸을 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무감각해져서 ‘큰 사람이 되려면 이런저런 일을 겪어야 된다’고, ‘귀할수록 막 키워야 된다’고 생각했다.

재현이는 제 나이 41살에 가지게 된 고목나무에 핀 꽃이라고 할 수 있다. 세 살쯤 되었을 때 아이가 영혼 없는 눈빛처럼 보이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했다. 내가 건강하지 못해 ‘이 정도면 되었지, 너 정도면 충분히 넉넉하지’ 하며 모른척하고, 집에 입주한 분에게 애를 키우게 했다. 아들이 태어났을 때 어떤 친구는 아이를 성형수술해서 낳았냐고 농담도 했고, 유치원 다니던 시절에는



예수 믿으라는 말하지 않아도  
저절로 자신이 확신생기면 믿는다.  
좋다 좋다 옆에서 말해도  
내가 확신이 없으면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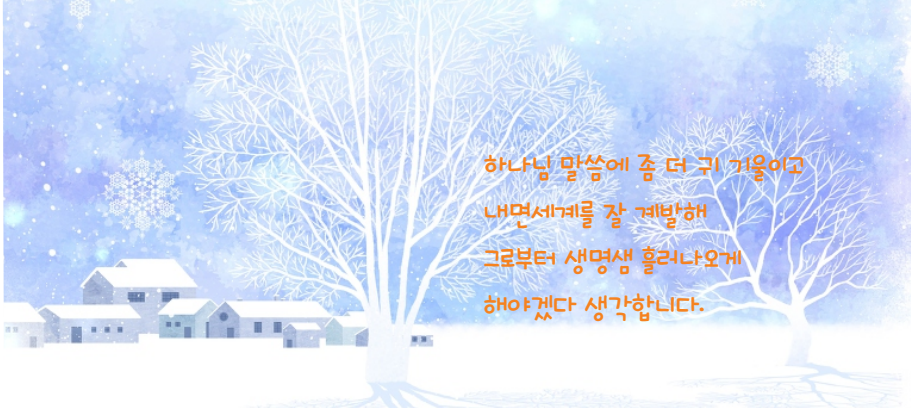
여자애들이 재현이 좋다고 줄 썼고, 어느 날은 여자 친구가 너무 졸라 결혼도 하고 왔다. 엄마한테 말도 안하고 한 결혼은 무효라고 했고, 앞으로 결혼할 땐 엄마한테 미리 말해야 된다고 했다. 함부로 약속해서도 안 된다고 가르쳤다. 제 아들을 본 모든 분들은 다 칭찬뿐이었다. 너무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괜찮고 사랑스런 아이였다. 지금도 아마 똑같이 그 시절이 온다 해도 그때 재현을 그리 표현할 것이다.

이런 아들이 모나리자, 탈모, 중 등등 어느 때부터 사람들 사이에서 바닥에 내려져 있었고, 그 바닥에서 뒹굴고 있었다. 내가 나 몰라라 했던 내 아들 재현이의 영혼이 마구 다치고 있었다. 더 다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곳에 오게 되었다.

아들이 미국생활에 적응이 안 된 초창기 2-3개월 쯤 되던 어느 날, 여느 아이들에 비해 몇 년 만에 나온 머리카락이 군데군데 있었는데, 하염없이 모자에 빠져 묻어나오고 있었다. 나는 재현이 몰래 그것을 치웠는데, 아들이 내가 그것

을 치우는 것을 보았다. 우린 서로 모르는 척 했다. 들켰지만 친구도 없고, 친구를 데려올 수 없는 조용한 아파트에서 살았다. 친구랑 놀고 싶다고 해서 한번 친구 집에 갔었는데 재미있었다고 또 가고 싶어 했다. 그러던 중 친구가 전에 놀러갔던 친구의 집에 간다고 하니 또 가고 싶어 했는데 친구가 가지 않겠다고 해서 어찌된 일인가 물어봤더니 그 동생이 하는 말이 형이 혼자 간다고 했다. 그 아이의 아빠에게 확인했는데 가지 않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재현이는 사실이 아니란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부담을 느낀 그 친구의 상황을 확인하고 아이를 만류했지만, 꼭 가고 싶다고 해서 아이를 데리고 갈 엄마에게 확인하니 본인이 초대했으니 괜찮다고…。 아들은 어색한 분위기에 가서도 잘 놀고 왔다.

문제는 내가 재현이를 데리고 오는 일이었다. 길도 모르고, 영어도 안 되니…。 아이를 데리고 간 어머니도, 나도, 놀러간 집의 아들 아버지가 교회로 데리고 오면 된다고 했고, 그렇게 한다 했는데…。 다음날 이른 아침 교회에서 한 시간을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았다. 미



안했지만 이른 시간에 전화를 했더니 오늘 늦게 데리러 온다고 통화를 했다고 한다. 전날 전화를 그 아파에게 몇 번이고 했지만 받지 않았고, 제겐 아무 연락도 하지 않은 채…….

사람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본다. 믿음으로 가라는 목사님 말씀. 자존심. 남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다. 마태복음 15장 21-28절의 여인처럼 쫓겨다니는 사람의 여러 가지 것들 중 성취했을 때의 만족감, 성공을 위해 끊임없이 움직이고 나아가려는 것, 경쟁에서 이기고 다른 사람들 눈에 멋지게 보이는 것, 비정상적으로 바쁘고, 노는 것 싫어하고 영적예배 안 좋아하고…. 이런 것에 사로잡혀 살아왔다. 저는 하나님께서 천천히 오신다고, 인간이 인간의 마음을 다치게 한다고 불평할 수 없습니다. 제가 잘한 게 없으니…

기도.

많은 사람들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딱한 사정을 가지고 이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중보기도, 본인들의 문제라도 버거운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무거움

을 주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했기에 말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말했는데, 201 제자훈련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니 조그마한 것도, 큰 것도 다 이야기하고 서로 나누는 것을 해야겠구나 하고 배웠습니다. 늘 겸손한 자세로 지금까지 추구해 온 것들을 선별해 포기하는 자기 훈련을 하고, 이제껏 중요시 생각한 것을 바꾸고, 하나님 말씀에 좀 더 귀 기울이고 내면세계를 잘 계발해 그로부터 생명샘이 흘러나오게 해야겠다 생각합니다.

인간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니 과정에서 잘못된 것을 원래대로 돌려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가을날, 이처럼 아름다운 단풍이 비가 와서 더욱 선명해지고, 가을 햇살에 더욱 찬란한 단풍이 되듯 지혜와 지식을 영혼에 가미해 멋진 재현이가 되게 해주실 것을 늘 진실한 마음으로 바라며 쫓겨 다니는 사람이 아닌 부름 받은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행복에 행복을 누리고, 감사에 감사를 드리며 가보지 않은 천국 같은 하루 하루를 보내면서…….





우리 집은 조상대대로 불교를 믿고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릴 적부터 우리 동네 뒷산에다가 천막을 쳐놓고 동네 청년들이 모여서 북을 치며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교회에 따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술만 잡수시면 시끄럽다 하시면서 몽둥이를 들고 쫓아내곤 하셨습니다.

청년들은 천막을 거둬들고 또 다른 산에 가서 쳐놓고 더 크게 찬양하며, 우상들을 섬기는 동네 어른들을 구원해 달라고 애원하던 기도를 저는 보고 듣고 자랐습니다.

사도행전 16장 구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꼭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저는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부모님과 친척들한테 온갖 핍박과 매 맞음을 많이 당하면서도 어린 나의 간절한 소망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집에 오면 할 일이 많아 바쁘는데 연애당이나 다니느냐 거기서 돈을 주냐 밥을 주냐 하시면서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맞고 또 맞고 하면서도 어린 나이에도 믿음이 있었기에 “엄마, 엄마도 예수 믿어야 천당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뜨거운 지옥으로 간데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면서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외할머니는 무당이셨지요. 일 년에 두 번씩 외갓집에서는 벽장에 부처와 그림들을 걸어놓고 굿을 하며 우리 엄마는 쌀을 가져다가 놓고 우리 온 가족을 다 올려놓고 굿을 해 달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저는 예수 믿는다고 못 오게 하셨어요. 어린 나이에 떡을 먹고 싶어서 가면 대문 밖에서 못 들어오게 하셨어요. 이모가 그걸 알고 떡을 몰래 가져다주어서 먹고 왔던 생각이 납니다. 아마도 그래서 우리 엄마의 핍박이 더 심하셨을 것입니다. 그래도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새벽 4시 일어나서 예배당으로 가서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울면서 기도하고 또 저녁상 치우면 곧바로 몰래 교회로 가서 기도하면서 우리 엄마 아버지 예수님께 해달라고 떼를 쓰며 줄라대던 생각이 납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시절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 후에 우리 동생들도 한명씩 두명씩 예수님을 믿어서 지금은 모두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주의 제단에서 섬기는 모습들을 보며 감사의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와 이모님도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지금은 권사님까지 되셔서 새벽마다 교회와 나라와 자녀들의 가족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될 수 없는 일들이었음을 저는 확신하며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도무지 모르고 사는 불신자 집안의 아들 한기하를 만나게 하시고 결혼하자면서 따라다녔지만 저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는 결혼을 하지 않는다면서 완강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줄라대며 결혼하면 꼭 예수를 믿겠다면서 약속을 하고 허락을 받아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결혼하면서 첫 아이 낳을 때까지 교회는 저 혼자만 보내놓고 세상 친구들과 만나서 노는 것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참고 기다려 보았지만 남편은 세상 향락에 푹 빠져서 결혼 전에 약속을 잊고 살았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도 없었고 기다릴 수도 없어서 마지막 결단을 내려야지 하고 약속을 지켜줄 것을 강권적으로 따지며 크게 싸우기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셨어요. 남편의 마음의 문도 열어주셨습니다. 남편은 교회로 돌아와서

예수님 영접했고 또 변화되어서 72년 12월 25일 첫 아들과 함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날의 그 감사와 감격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 후로는 시댁의 불신자 가족들과 형제 자매들 사촌들까지도 모두 예수를 믿고 교회의 중직자들이 되셔서 섬기시며 행복한 신앙생활하시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셨습니다.

특별히 제 남편 한기하 장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적이신 은혜로 뉴욕에 일장로교회 장로로 세워주셔서 섬기게 하심도 참으로 감사드리는데 해외한인장로회 장로부총회장까지 되게 하셔서 총회를 섬기게 하시니 무한 감사하며 감격하고 있습니다. 부족하고 못한 저희들을 여러 곳을 방문하게 하시고 너무 과분한 사랑과 대접을 받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남은 삶을 진실하게 신실하게 겸손하게 사랑하며 섬기면서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서 저를 만나주셨고 찾아와 주셨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마지막 저의 소원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들과 손자손녀 자자손손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화롭게 해드리는 가정들이 되었으면 하고 저는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아주 아주 많아요.



작년 1월에 우리 가족은 처음으로 목장예배를 드렸습니다. 가기 전에는 새로운 만남의 기대보다는 어색하고 불편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앞섰지요. 하지만 너무나 반가이 우리를 맞아주시던 목사님, 목녀님을 뵈곤 그 불필요했던 감정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가끔 빠지기도 하고 힘들면 가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하고 갔던 첫 목장예배를 시작으로 한번도 빠지지 않고 지금까지 열심히 참석할 수 있음은 오로지.. 새로운 식구를 향한 목장식구들의 사랑과 관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봉사는 천천히 시간될 때 해야지 하며 나태해진 저를 목사이신 오성섭 집사님은 “그러면 안됩니다” 하고 단호히 일깨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가대로 봉사하며 섬기게 되었지요.

여러가지로 낯선 교회에서 반갑게 인사해 주시던 김미라 권사님, 목녀이신 오연숙 집사님, 총무이신 전미경 집사님을 아직까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때에는 짧은 눈인사 한번이 얼마나 그립고 고마웠던지요. 이제는 저를 꼭 안아주시며 해주시는 한 마디 한 마디가 포근한 엄마와 같고 든든한 언니같이 힘이 됩니다.

마을지기 김준택 장로님. 든든한 믿음의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조언들과 기도로 버팀목이 되어주시니 늘 감사할 따름입니다. 또한 김효선 권사님, 권미자 권사님의 목원들을 향한 기도는 항상 우리를 쓰러지지 않게하는 원동력이 되구요. 그리고 사랑 많고 정 많은 목원되신 집사님들은 든든한 믿음의 동역자요 친구로 서로를 도와주고 의지하며 한 울타리 형제들같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목장모임은 참 즐겁습니다. 말씀을 나누며 크고 작은 기도제목을 서로 나누고 중보할 때 우리는 각자가 아닌 항상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설아를 위해, 김태언 집사의 일로 인해 나는 기도가 응답받은 체험의 기쁨은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 못할 감동이 됩니다. 우리 목장식구들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빨리 교회에 적응하며 생활할 수 있었을까요.

이 짧은 글을 빌어 쉼이나 목장 식구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목원으로서 행복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우리 목장 최고입니다!

!

우리 가정이 예일교회에 정착한 지도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그리 긴 시간이 아닐지 몰라도 우리에게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저는, 저까지 4대째 내려오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하나님을 너무 쉽게 알았고 늘 조부모님, 부모님, 모든 식구들이 교회에서 봉사하며 섬기는 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지금의 제 딸처럼 저 역시 학교보다 교회 가는 것을 더 좋아했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예수님을 들어는 봤으나 알지는 못하고 교회는 그저 여학생들만? 만나러 다니던 저희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런 그와 만나 결혼을 하면서 “남편은 내가 믿음으로 이끌면 잘 따라오리라” 자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오만함과 착각이었다는 것을 너무도 금방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무리 신앙으로 이끌려 해도 따라오지 않고 오히려 뒷걸음만 치는 남편이 야속했고 남편은 그런 저를 갑갑해 하였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기도로, 신앙으로, 이끌어 주기 바랐던 저와, 서로의 생활방식과 생각을 존중해주길 원했던 남편은 항상 부딪혔습

니다. 더 이상 부딪히지 않을 방법은 남편에게 제 신앙을 강요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강요하지 않았습다. 바라지도 않았습다. 그러나 되돌아보니 전 어느새 뒷걸음만 치던 남편의 모습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2015년 12월 우리는 예일교회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좋았고 집과도 가까워 어렵지 않게 옮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옮기자마자 남편에게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항상 예배만 드리고 교제라곤 없던 남편이 먼저 선교회로 가서 함께 식사를 하며 월례회에 참석합니다. 당연히 가지 않을 거란 제 예상과 달리 목장모임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성가대로 봉사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에 이끌리듯 순식간에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7월 어느 주일 김영모 집사님과 김현주 집사님이 남편에게 드라마 사역을 해보지 않겠냐고 물어오셨습니다. 저는 말도 안된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남편의 입에선 긍정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몇 번이고 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어 봐도 대답은 YES 이었습니다. 걱정이 앞섰지만 일단 걱정은 잠시 접어두기로 하



참으로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셨고 지나고나니  
 우리에게겐 은혜만 남습니다.

고 모든 드라마 사역자분들과 첫 만남  
 을 가졌고, 또 그 만남에서 어떻게 저까  
 지 합류하게 되어 저희 부부가 함께 드  
 라마라는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리딩을 시작으로 그렇게 매주 주일, 월  
 요일 밤에 딸 설아를 데리고 연습을 하  
 기 시작했습니다. 오! 해피데이가 다가  
 올수록 더 강도 높은 연습으로 힘들었  
 습니다. 그러나 몸은 힘들었지만 서로  
 대본을 읽어주며 상대방의 역할을 대신  
 해주며 그렇게 우리는 각자의 역할에  
 충실했고 자연스럽게 그 역할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탕자의 철없는 모습에서 하나님을 멀  
 리하면 가정이 편안해지리라 생각하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보았으며, 죄짓고  
 회개한 여인의 모습에서 저와 남편이  
 하나님께 회개해야할 모습을 보았습니  
 다. 드라마사역을 통해 그동안 우리가  
 잊고 있었던 우리의 잘못을 깨달았습니  
 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를 함께 이 사  
 역에 동참시키신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  
 다. 그리고 제가 이끌면 뒷걸음만 치던  
 남편이 어느 사이 저를 이끌고 있는 모  
 습도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  
 가 드라마로 섬길 수 있는 것도 참 감사  
 한 일인데 이 사역을 준비하며 우리 가  
 정이 더 단단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  
 다.

참으로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  
 다. 그러나 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  
 들을 이루셨고 지나고나니 우리에게겐 은  
 혜만 남습니다. 이제 이런 하나님이 아  
 무것도 아닌 우리를 또 어디에 어떻게  
 쓰실지 감사하며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드라마로 섬길 수  
 있었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과 불  
 평 한번 하지 않고 오히려 엄마 아빠 대  
 사까지 외워가며 잘 따라 와준 설아에  
 게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 가을이 왔나 보다



가을이 왔나 보다. 쓸쓸한 풍경들 속에 그리움이 스멀스멀 새어 나온다.

한국에 있는 나의 가족들. 어머니, 아버지, 언니, 형부, 동생, 조카들... 모두들 보고 싶고, 안고 싶다는 생각이 사무치게 다가오는 이번 가을이다. 단출한 우리 가정 위에 하나님이 엮어 주신 성도들간의 교제가 유독 따뜻하게 나를 반기는 가을이기도 하다.

아이를 키우느라 7년이란 긴 시간 끝에 최근에 새로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아주 오랜만에 일을 하다보니 육체적으로 많이 고단하고 힘들었지만 이 시간을 일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일을 시작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너무나 피곤한 나의 몸을 느끼면서 난 나의 귀에게 인사를 했다. '견뎌라, 아프지 마라'라고 되뇌이며 두려움이 앞서는 내 모습에 피식 웃음이 낫다. '이젠 아프지 않잖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보호해주고 계시잖아.' 하고 스스로 위안과 평안을 가진다.

2007년,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의 일이다.

둘째를 임신하고 한국에 계신 시어머

니께서 산후조리를 해 주신다며 오신다 하여 그 무거운 몸으로 부산을 떠나 집안청소를 며칠째 하다 그만 귀에 염증이 도졌다. 어렸을 때 아팠던 중이염의 소홀한 관리로 언제부턴가 몸이 힘들면 제일 먼저 귀가 신호를 보내왔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그때에도 이러다 말겠지 하면서 아프다고 신호를 보내오는 데도 미련하게 바보같이 3년 동안 난 무시해 버렸다.

그러던 2010년 어느 날, 예일교회의 첫 발걸음 후 양육자이셨던 이옥경 사모님과 101 제자훈련을 하게 되었다. 그 당시에 난 하나님의 '하' 자도 모르던 나였다. '그래, 나를 무너뜨려 보쇼' 하며 으름장을 놓으며 시작한 제자 훈련이 시간이 흐를수록 나를 견잡을 수 없이 변화시켰다. 나의 의지가 아니었다. 분명 누군가 나를 단번에 잡으셨다. 그 때 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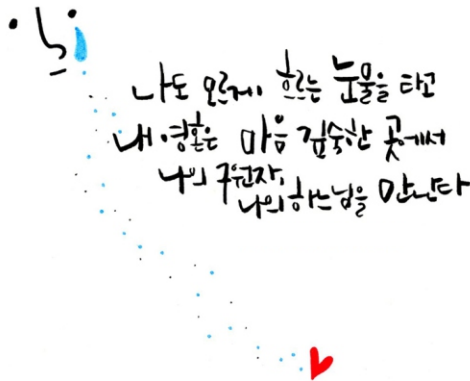
사모님께서서는 내게 자신의 하기 어려운 사적인 얘기를 많이 말씀해 주셨다. 그래서였을까 난 난생 처음으로 사모님께 나의 아픔에 대해서 입을 열었다. 사실 속으로는 이런 마음도 있었다. '내가 이 얘기를 한다고 해서 내 아픔이 사라

지는 것도 아닌데 뭐하러 나의 치부를 드러내나....'

그런데 결과는 놀라웠다. 엄청난 놀라움이었다. 3년 넘게 매일매일 고름이 나오던 내 귀에서 그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나올 것 같지 않았던 내 귀가 사모님의 기도로 깨끗하게 나음을 받은 것이다. 난 아픔이 가신 지도 사실 몰랐다. 막연하게 때가 되서 나온 거겠지 하는 생각도 있었다. 사모님께서 '귀 좀 어떠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하는 말씀에 그때서야 나는 깨달았다. '다 나았구나. 그 분의 기도로 내가 나음을 받았구나.' 그 순간 내 심장이 뜨거워졌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마음에 커다란 물

결이 일었다.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내 마음에 가득했다.

이것이 나의 첫 간증이자, 예수님을 영접한 시기이다. 도마처럼 의심이 많은 나에게 하나님은 내게 확실하게 보여주시심으로 믿음을 주셨다. 아무런 요구도 없이 아버지인 나에게 헤아릴 수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셨다. 그런 아버지께 드리는 나의 감사와 찬양이 너무 적어서 부끄러운 지금이지만,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종려나무의 깊은 뿌리와 같은 믿음생활을 해 나갈 것을, 내 믿음을 손바닥에 담아 아버지께 높이 올려드립니다. 아멘.



나도 인내하는 마음을  
내 영혼의 마음 깊은 곳까지  
나의 구원자, 나의 사랑님을 만났다

## 오! 해피데이를 다녀와서

나는 아침 일찍 일터를 향해 운전하면서 항상 라디오를 듣는다. 매주 화요일 라디오에서 들려 나오는 설교말씀을 들을 때마다, 전하시는 설교내용이 마음에 다가와 깨달음을 주는데, 거기에 더하여 김종훈 목사님의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더욱더 은혜가 된다. 그래서 김종훈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뵙고 싶다는 생각이 내 마음 한 구석에 자리잡고 있었다.

그러던 중 가게에서 함께 일하는 박성우 집사님이 오 해피데이 초청장을 내게 전해주었다. 다른 교회를 섬기지만 남편은 믿음생활에서 떨어져 있는 상황을 아는 박집사님의 배려에 쾌히 참석하겠다고 승낙을 했다. 또한 이 기회를 통해 남편과 같이 가서 남편의 마음이 주님께 열리도록 하고 싶어 기도하며 성령님이 도우시기를 간구하는 간절함이 있었다.

10월 22일 토요일인데도 여느 때와는 달리 남편은 다른 볼 일을 미리 마치고 나와 함께 뉴욕예일장로교회로 흔쾌히 출발하였다. 반갑게 맞아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서 참으로 따뜻한 환영의 마음을 느꼈는데, 게다가 푸짐한 선

물과 맛난 식사를 대접 받으면서 참으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정말 푸근해지는 것을 느꼈다.

예일교회 성도님들과 방문하신 모든 분들이 서로를 잘 알지 못하지만, 한 마음이 되어 예배 드리는 모습에서 오늘 행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어디서 많이 본 적이 있는 것 같은 분이 간증을 하는 것이었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따님에 대한 그 집사님의 애잔한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과 신뢰가 참으로 나를 숙연하게 만든 것도 잠깐, 그 아이로부터 연주되는 피아노 소리가 나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그 곡조에 담겨있었다. 온전한 몸을 가진 내게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도 같았다. 나중에 강단에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는 회중들과 함께 춤을 추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며, 아~ 이 교회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이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오늘 행사의 순서지를 보며 식사를



이여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눅15:20)



할 때, 오 해피데이 차례 중에 돌아온 탕자라는 성극이 있는 것을 보았다. 교회에서 하는 성극을 몇 번 본 적이 있어 생각하기를 그냥 학생들의 수준으로 장난기와 코믹이 섞인 드라마라니 하면서 큰 기대 없이 지켜보았다.

시작과 함께 막이 걷히고 무대장치가 조명을 받기 시작하는데 예전에 보아왔던 그런 성극이 아닌 것 같다 하는 예감이 들었다. 출연하는 극중의 인물들의 표정과 의상 그리고 연기하는 목소리와 진지함이 나의 예상을 완전히 깨버렸다. 정말로 열심과 열정을 담아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메시지가 나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옆자리의 남편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결눈질로 몇 번이고 보았다. 남편이 멋쩍어할까봐 못 본 척하면서 나도 함께 마음이 찡하며 눈물이 나오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인 돌아온 탕자 이야기지만 배역을 맡은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전하는 몸짓, 눈짓, 손짓, 발짓이 내가 본 성극 중에 정말로 최고의 드라마였고, 보는 내내 나의 마음을 울렸다.

드라마를 마치고 말씀을 전하시려 강단에 오른 김종훈 목사님은 내가 매주 화요일 라디오에서 듣던 그 익숙한 목소리로 성극을 통해서 받은 은혜에 말씀으로 은혜를 더하셨다. 정말 오늘 이곳에 오기로 정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분명하다는 믿음이 들었다.

지금은 예일교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살기에 예일장로교회를 섬길 수 없지만, 언젠가 여건이 되어 교회 가까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과 함께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원하며, 혹시 아는 분들이 롱아일랜드에서 교회를 추천해달라고 부탁을 받으면, 내가 섬기는 교회인양 예일교회에 다니시라고 선뜻 추천하기로 마음 먹었다.

오 해피데이를 통해서 마음을 만져주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남편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인도하시기를 기도하며, 예일장로교회 담임목사님과 교역자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모든 교회의 성도님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오 해피데이의 저녁시간이 참으로 값진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 방송부를 섬기며



어머니의 강요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비하신  
축복의 자리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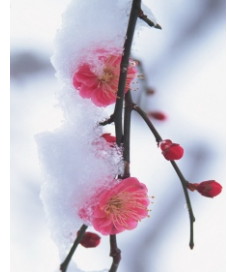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저는 방송부를 섬기는 박은현 집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일교회를 섬긴 지 벌써 13년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13년 동안 예일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를 영적으로 많이 성장하게 하시고 또 제 삶에 많은 기쁨을 허락하신 것을 되돌아 보면 제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자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13년 전에 저는 맨하탄에 있는 Times Square Church를 다녔습니다. 1부부터 3부까지의 예배를 드리면서 뜨거운 찬양과 말씀으로 주일 하루를 보내는 것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3년이란 시간이 지나면서 봉사가 없이 교회를 다니다보니 제 마음이 식어져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에 뜨거웠던 찬양과 말씀도 평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 하면서 얻는 기쁨과 깨달음이 없으니 마음이 식어져만 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예일교회에 방송부 봉사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혹시 도와줄 수 있겠냐고 물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워서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어머니의 강요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비하신 축복의 자리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매주 방송부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 저에게는 큰 행복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 때에 가장 행복한 것 같습니다. 각각 사명들은 다

다르지만 한가지 동일한 점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또 사랑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가장 큰 계명이 빠지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다 헛 수고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한 가지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는 방송부를 섬길 때나 직장에서 일할 때도 사랑을 베푸는 것을 중심에 두고 모든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일은 열심히 하지만 일이 중심이 아닌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각각 사명들은  
다 다르지만  
한가지  
동일한 점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 때 항상 기쁜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 행복한 시간보다 힘든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인정하고 더 큰 믿음이 생기는 것을 깨닫습니다. 인간은 간교해서 삶이 형통해지면 하나님을 서서히 뒷전에 두고 자신의 자랑과 뜻이 앞서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힘든 과정을 지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또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상황까지 갈 때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되면 어느 순간 내 자신이 죽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시 한번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을 여러번 하면 어느 순간 겸손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방송부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제 마음의 소원을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아직도 베드로 같이 파도를 보면 물속으로 빠져 들어갈 때도 있지만 매일 매일 성장하는 제 모습을 보면 파도 위를 걸어다니며 빠져가는 사람들을 구하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있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 땅에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환생을 기뻐하는 성탄절이 있는 달입니다. 결손과 온유의 마음을 가지신 주 예수님의 아플다움을 닮은 우리 마을의 마을지기 지재홍 장로님과 목자되신 신영필 집사님 그리고 총무로 섬기시는 이전배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본 것보다 안보이는 곳에서 섬기시는 일이 더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더 귀한 섬김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에 늘 감동을 받아요.

베틀되신 주님의 자녀로써 열심히 일하시고 또 목장의 예배에서는 얼마나 힘있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시는지요. 또한 매번 모일 때마다 어머니가 자녀들을 먹이시는 마음으로 먹이시고, 나누시며 우리에게 덕을 끼치시는지요. 참 감사해요.

일년 동안 세심한 보살핌과 사랑으로 대해 주셔서 낯선 교회에서 가족같은 목장 식구들이 있어서 빨리 적응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많은 메일교회를 사랑하며 감사해요.

## 다윗과 요나단을 목상하며....



오래 전에 제가 이 글을 취미생활로 글을 남겨 놓은 적이 있었는데 이번 예수마을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강한 감동이 와서 또다시 이렇게 글을 남겨 봅니다.

성경을 많이 읽지 못해서 하나님께 너무도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만 들지만 오래전 성경 사무엘서를 읽고서 예전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2~13여 년 전 누군가 만일 너는 다윗과 요나단이 된다면 어떤 인물이 되고 싶냐는 질문에 난 생각해볼 겨를도 없이 빛같은 속도로 당연히 두 손 들고 다윗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웬만해선 누구나 다 다윗이 되고싶다고 대답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던중 한국에서 섬겼던 교회에서 어떤 전도사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쪼개 놓았습니다. 만일 요나단이 없었다면 다윗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지 못했을 거라고. 그 말을 읽고 살았다가 다시 성경을 읽으니까 영화필름 지나가듯이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살짝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실 사무엘상에 나오는 요나단의 이름은 다윗보다 비중이 훨씬 적게 나오는 것이 사실이고 사무엘-사울-다윗 이들이 메인 인물임을 알게 될것입니다. 그렇지만 꼼꼼히 생각해보니까 요나단은 정말 없어서는 안될 존재였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면 그 다음왕은 당연히 요나단의 몫이었고 또 요나단 입장에서는 충분히 자기가 왕위를 오르기 위하여서 다윗을 죽일 수도 있는 환경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권을 기꺼이 다윗에게 양보한 사실이 성경에 기록 되었고 또한 다윗을 끝까지 보호하기 위하여서 자기 아버지 사울이 던진 창에 맞아서 죽을 뻔도 하였고 또 사울로부터 안전하게 도망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것도 요나단이었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 그의 마지막은 전쟁터에서 패배하여 적군에 의하여 비참히 죽임을 당한 것은 제 마음을 너무도 아프게 합니다.

이것이 내가 보는 관점에서 사무엘상에 나오는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윗은 살리고 자기는 죽고, 이것이 진정한 참 친구임을 느낍니다. 사무엘상을 읽고서 느낀 바는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드는 생각은 내게도 요나단같은 친구가 있는지 혹은 누군가에게 내가 요나단같은 친구가 되어주는지. 아마도 단 한 명이라도 내게 이런 친구가 있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이런 친구가 되어준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친구를 위하여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마도 여기서 나온 것 같습니다.

믿는 사람 특히 신앙에 연조가 오래된 분이라면 누구나 다 다윗에 대하여 할말도 많고 느낀 바가 다 다르겠지만 오늘날 제게는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다윗의 이름이 높아진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간 것,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요나단이라는 절친(베프)이 있었기에 더욱 다윗의 이름이 빛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나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기보다는 누군가의 이름을 높여준다는 것,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억하시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글을 마치려 합니다.

제가 감히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성도님들께 요나단 같이 모든 분들의 이름을 높여 드린다는 말씀은 차마 내 양심상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살려고 흥내 정도는 널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흥내만 내도 주님께서서는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사람” 이것이야말로 내 평생의 영원한 소원이요 목표로 삼겠습니다. 이런 은혜를 나눌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 우리 딸 지니를 통해 알게 된 하나님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에게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주옥 집사입니다. 오늘 저의 간증을 통해 여러분과 귀한 만남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드립니다.

1988년 3월 6일 아침. 새 생명이 태어난다는 기쁨도 잠깐,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분만실에서 건강을 알리는 울음소리가 들려야 하는데 아이가 울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영아실로 가는 회복실로 옮겨가면서도 내내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의사선생님이 아이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을 말씀해주셨습니다. 1000명 중 1명꼴로 나타날 수 있는 정신지체 장애아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폐, 심장, 근육 등이 약하고 면역력이 약해서 오래 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절망의 늪으로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3월이라 아직 날씨가 매우 추웠습니다. 건강치 못한 아이를 병원에 두고 매일 아이를 보러 병원에 다녀야 했습니다. 아이를 생각하며 매일 울며 지낼

때 남편도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함께 울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나에게 낮에 혼자 병원에 가서 아이를 Foster Care로 보내는 서류에 싸인을 하고 왔다고 했습니다. 장기간 입원할 수 없어서 그곳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이미 그 병원에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Foster Care를 찾아 일일이 전화를 해서 마침내 우리 지니가 있는 곳을 알아내었습니다. 급히 그곳으로 찾아갔지만 아이를 만나려면 미리 약속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그곳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지니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신 없이 병원으로 갔습니다. 아이의 몸은 산소가 부족해 청색증에 걸려있었습니다. 가냘픈 아이의 몸엔 산소호흡기 외에 많은 의료기기들이 붙어있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 오늘 당장 아이를 데리고 가겠다고 하니 안된다고 하면서 한달 후 건강상태를 보고 퇴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같이 일하던 분이 시간이 있으면 늘 무슨 책을 보길래 궁금해서 물



하루하루 달라지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삶의 의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함께 위로하고  
소망의 줄을 굳게 붙잡는  
가족의 사랑에 감사를 느꼈습니다.

어보았습니다. “언니 그 책이 무슨 책  
이예요?” 성경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  
면서 성경에 대해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 나에게 교회에 나가보라고 권유했  
습니다. 거기 가면 목사님께서 하나님  
이 누구신지 얘기해 주실 거라고 했습  
니다. 그리고 목사님에 대해 먼저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며칠 후 창 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그  
언니가 말해준 교회버스가 지나가고 있  
었습니다. 전화번호를 외워 바로 전화  
를 해서 목사님께 교회에 가고 싶다  
고 말했습니다. 주일 아침 목사님께서  
우리를 태우러 오셨습니다. 지니를 안  
고 둘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동안 둘이서 함께 교회를 나가다  
가 남편과도 함께 교회에 다니면 좋겠  
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마침 우리 지니가 유아세례를  
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미안했지만 남  
편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보 지니가 세례를 받을 때 아빠가  
같이 있어야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데  
어떡하죠?”

남편은 흔쾌하게 허락했습니다. 이러  
게 해서 우리 가족은 모두 교회에 다니

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  
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조  
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죄인을 구하시  
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연약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부족한 우리를 채우시는 좋으신  
영적 아버지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슬픔과 절망  
에 빠져있던 우리 가정에 희망이 생겼  
습니다.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얼  
마나 큰 힘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달라지는 아이의 모습을 보  
면서 삶의 의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함께 위로하고  
소망의 줄을 굳게 붙잡는 가족의 사랑  
에 감사를 느꼈습니다. 기적처럼 아이  
는 예쁘게 자라주었습니다. 이때부터  
장애아를 키우는 마음의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책을 뒤지며 교육  
방법부터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지니가 5개월쯤 되었을 무렵 한  
국에서 특수교육학을 전공한 여학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미국에 그 분야 대학원에서 공부를 더 하기 위해 왔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이의 상태를 말하고 그분의 지도하에 특수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분이 바로 지금 밀알 단장이신 김자송 씨입니다. 그분께서 6년 동안 우리 지니에게 특수교육을 시켜 주셨습니다. 매일 오전엔 특수 학교에 다니고 집에서는 김선생님의 지도와 함께 미술, 영어, 수학, 피아노 등 네 명의 가정교사를 두고 교육에 전념했습니다.

어느 날 피아노 선생님이 우리 지니가 피아노 책을 읽을 줄 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기쁘지 하늘을 날 것만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니 같은 장애아에겐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지니는 무엇이든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의욕이 참 많은 아이로 자라주었습니다. 지니가 목사님의 설교를 알아듣고 이해한다고 했을 땐 정말 기뻐했습니다.

한번은 아빠의 생일날 생일 카드를 직접 그려서 그 속에 이렇게 적어놓았습니다. “험썸한 우리 아빠! You are my best father.”

참 예쁜 마음과 사랑을 지닌 아이로 자랐습니다. 보통 아이들보다 조금은 달라 보이고 무슨 일을 할 때도 보통 아이들보다 좀 늦지만 우리 지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예쁜 하나님의 딸입니다. 우리 부부가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면서부터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우리 영혼의 빈 공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 어린 생명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어려울 때 함께 사랑의 힘이 되어준 남편에게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나의 영혼을 채우시는 그 사랑이 있기에 오늘도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맞이합니다. 감사합니다.



##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처음 원고 부탁을 받고 많이 망설여졌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좋은 믿음이 아니라는 생각에 감히 쓰기가 많이 막막했다. 그저 주님을 믿기 시작한 때부터 지금까지의 일들을 솔직히 써 내려가고자 한다.

나는 모태신앙이 아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 모두 교회 다니는 것을 반대하셨고 나도 그다지 생각이 없었다. 자라면서 엄마가 성당에 다니기 시작해 엄마 따라 성당에 나가기도 했다. 미국 오기 전에 언니에게 전도를 받았지만 열심히 다니지 않았고 하나님에 대해 잘 와 닿지 않았다.

20살에 미국에 와서 완전히 바뀐 생활과 낯선 미국 땅에서 살기가 무서워 교회에 나가며 많이 의지했다. 나름대로 100일 새벽기도도 다니면서 열심히 교회를 나갔다. 그러나 그때도 주님을 모르기는 마찬가지였다. 청년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예배시간이 아닌 때에는 끼리끼리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그들의 모습에 자주 회의가 들었다.

그러다가 이상한 단체에 들어갔던 적도 있었다. 그 곳에 있는 3년 동안 부

모님 속을 많이 태우다가 겨우 끊어내고 돌아왔다. 거기서 있었던 일들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정말 내 삶에서 송두리째 없애버리고 싶은 시간이었다. 그 일이 있는 후로 정말이지 다시는 교회에 가지 않으리라 다짐했었다.

그렇게 지내는 중에 지금 이 예일교회 다니시던 분의 전도를 받았다. 열 번 이상을 거절하다가 너무 미안해서 한번 갔던 그날, 솔직히 그 날 설교말씀이 뭐였는지는 기억이 나질 않지만 전체적인 교회의 분위기 같은 것에 마음을 뺏긴 것 같았다. 그런 후에 또 다시 청년회와 찬양대에서 즐겁게 지냈다. 거의 모든 행사와 순서에 참여하며 믿음이 더욱 뜨거워지고 단단해졌다. 교회의 일이라면 작은 것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았다. 모든 것들이 내게 온 기회라고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했다.

지금도 진정 잊을 수 없는 것은 제자훈련이다. 101, 201 제자훈련을 하며 개인적으로 큰 일들과 맞닥뜨렸다. 101제자훈련을 시작하며 아버지가 폐암선고를 받았고 마지막 주를 마치며 그렇게 돌아가셨다. 그 3개월이란 시간은 내게도, 아빠에게도 소중한 시간이

었다. 믿지 않으시던 아버지가 아프시면서 주님을 영접하고 보름 동안 성경을 통독하시고 돌아가시는 날까지 아버지가 계시던 곳에는 늘 찬송가가 틀어져 있었다.

201제자훈련 때에는 주님께 너무나 큰 죄를 짓고 온통 속죄하는 시간이었다. 제자훈련이 없었다면 이겨내지 못했을 시간이었다. 주님께 감사할 뿐이다.

부족한 내가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면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이란 것을 했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내 결혼 생활은 진정 주님께서 나를 일꾼으로 만들어 가시는 훈련의 시간들이란 생각이 든다. 앞날에 대한 기대 반, 두려움 반으로 시작된 결혼생활 첫 아이를 낳기까지 행복하기만 했었다. 남편의 약한 것을 알고 시작했지만 내겐 조금도 문제가 아니었다. 첫 애가 2개월 되었을 때 남편이 크게 교통사고를 당하고 척추 수술을 하며 일을 할 수 없어서 시댁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나를 본격적으로 훈련시키셨다.

둘째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서 그나마 교회를 다니던 남편이 발길을 끊었다. 그 시간은 정말 앞이 캄캄하고 절망 그 자체였다. 온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꿈꾸던 나로선 참으로 힘든 시간, 더디 가는 시간의 연속이었다. 매일 울었다. 주일 예배드리고

우는 게 일이었다. 그 힘든 시간 곁에서 계속 나를 보듬어 주셨던 김송기 전 도사님 그분 아니었으면 견뎌내지 못했을 것이다. 그 시간들을 거쳐 이 고난을 통해 나를 더욱 다듬어 가시는 주님의 사랑에 그저 감사할 뿐이었다. 나를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예비하시고 곁에서 좋은 분을 만나게 하셔서 견디게 해주신 주님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다. 날이 갈수록 주님께 대해 깊이 생각 할 수 있어서 그저 감사하다. 내 성장을 위해서 내 삶 전체를 주관하시는 주님의 손길,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크신 사랑, 주위의 좋은 분들을 통해 전해져 오는 사랑을 받기만 했다. 이젠 내가 그들에게 내 가족과 주위 사람들에게 베풀 차례다. 내가 받은 사랑 베풀기 위해서 더 큰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큰 마음을 가지길 간절히 소원한다. 작고 연약한 나를 큰 그릇으로 능히 키워 가시는 주님의 크신 능력을 기대해 본다.

지금까지 내 인생을 주관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그 사랑으로 내 삶을 인도하시도록 내 모든 것을 내어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 예린이가 세례 받는 날

사랑하는 엄마 아빠 딸 예린이에게.  
 이 편지는 우리 예린이에게 전해주는  
 첫번째 편지네. 오늘은 우리 예린이가  
 세례를 받는 날이란다. 비록 오랫동안  
 우리 예린이는 세례를 받는다는게 무슨  
 의미인지 모를거야. 하지만 엄마하고  
 아빠는 우리 예린이가 태어나준 날 다  
 음으로 이보다 더 기쁠 수가 없단다. 예  
 린이가 크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  
 하고 믿음에 길로 갈 수 있도록 엄마  
 아빠가 기도해 줄께.

예린아 그거 아니? 우리 예린이가 엄  
 마 뱃속에 있었을 때... 아빠가 한 손은  
 엄마손을 잡아 주시고 또 한 손은 우리  
 예린이가 있는 엄마 배 위에 손을 놓고  
 간혹 기도를 해주셨단다. 엄마 뱃속에  
 서 아무 탈없이 잘 자라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아빠의 마음을 알아주셨는  
 지 우리 예린이는 엄마를 참 편하게 해  
 주고 아프지 않고 잘 있다가 이 세상에  
 태어나 주셨단다. 그리고나서도 엄마아  
 빠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단다. 우리 예  
 린이가 아프지 않고 예쁘게 자랐으면  
 좋겠다고... 감사하게도 우리 예린이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성장해주고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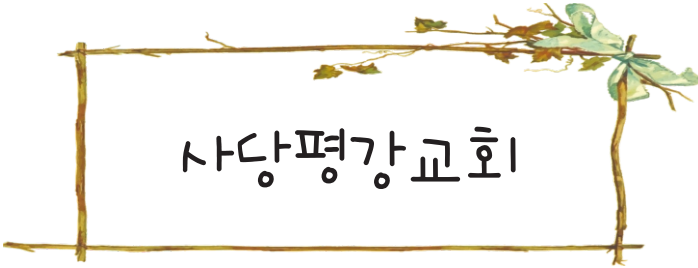


예 린 이 , your baptism today  
 signifies God's claim you as his  
 own... a child of his covenant and  
 grace. 오늘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  
 이기도 하지만 우리 예린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태어난 날이기도 해서  
 엄마 아빠에게는 더욱 더 특별한 성탄  
 절이기도 하단다. 앞으로도 엄마 아빠  
 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예린이를  
 더욱 더 아낌없이 사랑해 주고 또 사랑  
 해 줄께. 예린이가 하나님 앞에 더 예쁘  
 고 더 사랑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기  
 도해 줄께.

예쁜 우리딸 예린아 축하한다.

On your Baptism today

엄마 아빠가 12/25/16



김병준 목사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2016년도 한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뉴욕  
예일장로교회 김종훈 목사

님, 저희 교회를 초청해주심을 거듭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사당평강교회는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1039-7번지 2층 상가에 위치한 교회로 1999년 2월 14일에 단돈 100만원을 가지고 아무 도움 없이 개척한 교회로 매달 헌금이 130만원 정도, 1년 예산이 1600만원 정도 되는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사당평강교회는 출석교인이 30여 명 정도로 안수집사 1명, 권사 2명, 집사 15명, 교회학교 5명, 중고등부 2명, 청년부 3명이 출석합니다.

저희 가족 구성은 아내 양명옥, 2남 1녀로서 결혼한 장남 준범, 직장생활하는 둘째 준하 그리고 막내 딸 은지입니다.

사당평강교회는 서울 남노회에 속한

비록 적은 교회지만 영혼구원을 위해서 늘 애쓰고 수고하는 교회입니다.

2016년도 올해 전도 목표가 출석교인 50명을 목표로 전교인이 한 영혼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는 부흥의 불씨, 축복의 씨앗, 전도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전하면 있고, 안 전하면 없다, 만나면 있고, 안 만나면 없다”는 전도의 슬로건을 갖고 전교인이 열심히 전도하며 정착양육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뉴욕예일장로교회와 함께 하시길 기도 드립니다.

양명옥 사모

안녕하세요?

서울 사당동에 있는 사당평강교회 양명옥 사모입니다^^.

뉴욕예일장로교회 초청을 통해서 9박11일의 일정을 무사히 마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뉴욕예일장로교회의 초청이야말로 평생에 오기 힘든 뉴욕과 워싱턴 DC 그리고 나이아가라 폭포의 관광을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특히 주일날 뉴욕예일장로교회의 예배드리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행복했습니다.

김종훈 목사님과 조유경 사모님의 자상하고 세심한 배려와 신경호 전도사님의 픽업, 장로님들과 온 교인들이 화목하며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섬기며 봉사하는 모습들이 참 인상적이었고 기억에 오랫동안 남아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 곳 성도님들의 너무 순수하신 모습에 정말 반했습니다^^. 예배의 순서 순서마다 찬양과 기도 그리고 김종훈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가대 찬양을 할 때도 정말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고 기도 또한 은혜가 넘쳤습니다. 김종훈 목사님의 말씀도 저에게 꼭 필요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되었고 저에게는 9박10일의 기간이 잊지 못할 힐링과 재충전의 기회와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리고 한국에서 더욱 더 생기 있게 힘차게 사모로써 역할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욥8:7) 말씀처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사당평강교회가 미약하지만 큰 힘을 얻고 앞으로 남은 생애 주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거듭날 수 있게 힐링과 동기부여하여 주신 은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뉴욕예일장로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복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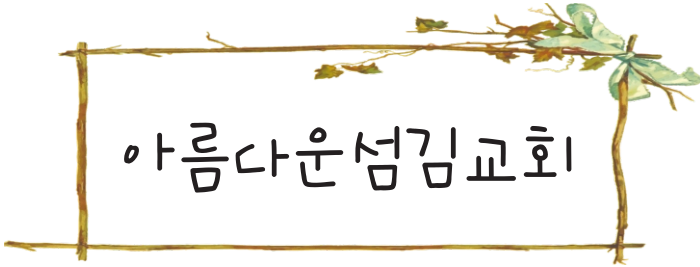
서울 사당동에서 양명옥 사모 올림



9 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짐을 얻으려니 독수리 날개 끼며  
올라갈 줄을 것인도 달음박질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31



강행원 목사



아름다운 섬김 교회는 2007년 7월에 설립된 교회입니다. 기존 서울남노회에 소속된 교회였는데

전임교역자와 장로님 사이의 문제로 전임교역자는 사임하시고 교회는 서울 남노회에서 탈퇴하고 대신측 목사님을 모시고 대신측으로 넘어갔다가 대신측 목사님이 사임하고 교회는 성도가 7명 정도 되는 가운데 목회자 없이 지내다가 제가 부임해서 서울 남노회 개척교회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개척을 시작하면서 기존의 장로님과 안수집사님들 사이의 갈등으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장로님과 몇몇 교인들이 저를 노회와 사회에 고발하면서 1년 반 동안 고생을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주시고 이제 안정적으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임할 당시 교회는 보증금 7000만원에 월 120만원씩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교회는 임대료를 지

불하지 못하고 밀린 상태로 있었습니다. 빚을 갚고 밀린 임대료를 지불하고 나니 현금 1000만원 정도가 남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는 암담한 상황 가운데 기도만 하고 있는데 아시는 집사님께서 학원을 운영하다 비어있는 2층 건물로 현금 1000만 원에 월 50만원의 임대료를 내는 곳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6월에 전세 1억4천으로 지하이지만 모든 것이 준비되고, 인테리어가 잘 된 곳으로 몸만 오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셨고, 2014년에는 저희 아름다운 교회와 섬김의 교회가 합병되어 이름은 아름다운 섬김 교회가 되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강단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 응답하시고 기적적인 일을 만드셨습니다. 1남 2녀의 자녀를 두고 있고 큰아 이 하림이가 중2 올라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쉼마국제기독교학교로 편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 한해는 1월부터

좋은 소식을 접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모는 50세 배선미 사모입니다. 40일 금식기도를 통해 만난 자매였고 주일마다 교인들 식사를 항상 혼자서 준비하고 자녀들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도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아직 교회에서 사례는 받지 않고 저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인은 20명 정도 되고 작지만 모든 교인들이 십일조를 하는 행복한 목회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교회 표어는 성령충만한 교회입니다.

기도 제목은 작지만 자체 성전을 가지고 선교하는 교회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 배선미 사모

큰 사랑을 베풀어주신 주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9박10일 동안 미국여행에 대해 2달 전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설렘과 기대감과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드디어 18시간의 비행기를 원 없이 타고 낯선 땅을 밟는 순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일평생 단 한 번도 생각지도 못한 미국여행은 꿈만 같았습니다.

예일교회 목사님과 사모님, 장로님, 성도님들은 과연 어떤 분들이기에 작고

어려운 미 자립교회 목회자 부부를 큰 사랑으로 섬겨주실까? 어떻게 이런 세심한 생각을 하셨을까? 감동의 감동을 하며 너무 감사해서 죄송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또한 큰 은혜를 갚기 위해 열심히 사명 감당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미자립교회 사모로써 너무나 힘든 일이 많았고 성대결절로 수술을 하려고 피검사를 했는데 높은 혈당 때문에 수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당뇨가 갑자기 오면서 400이라는 수치 때문에 약을 급하게 먹게 된지 벌써 5년째 되었습니다.

매일 기도회를 하면서 봉사하는 교인들은 하나도 없고 혼자서 매일 식사준비하고 설거지하고 화장실청소에 사무실 청소까지 해야만 했습니다. 3명의 성도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게 했고 몸이 지치고 아파 포기하고 싶을 때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니 너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두려웠습니다. 사명감당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지만 항상 저의 부족함을 주님께 통곡하며 기도했고 그때마다 위로의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2015년도에는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이 많아서 잠을 못 이루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좋은 일만 있길 기도했는데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편히 쉴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4박5일 동안 뉴욕 맨하튼, 워싱턴 DC, 나이아가라폭포 등 즐거운 여행을 했고,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는 예일교회에서 넘치도록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한 멋진 여행가방을 사 주신 인자한 목사님과 사모님,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주신 집사님들, 영양제와 허니 파우더를 사주신 권사님, 명품가방을 사주신 집사님들, 덧신과 수세미를 뜨개질로 예쁘게 짜주신 권사님, 예쁜 장지갑을 선물해주시며 1박2일 동안 최선을 다해 가이드해주신 전도사님

부부, 호텔까지 데려다 주시며 맛있는 간식을 사주신 장로님 모든 분들의 큰 사랑과 큰 은혜를 평생 마음에 간직하며 어렵고 힘들 때마다 생각하며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또 한번 다짐했습니다. 삶에 큰 힘과 활력소를 주신 주님과 예일교회 목사님과 사모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9박10일 동안 천국을 맛본 최고의 여행이었습니다. 세심하고 깊은 사랑과 큰 섬김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앞줄 왼쪽) (사당 평강교회) 김병준 목사, 양명옥 사모,  
 (뉴욕예일장로교회) 김종훈 목사, 조유경 사모, (아름다운 섬김교회) 강행원 목사, 배선미 사모

## 재정 및 은퇴준비



요즘처럼 수명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는 가능하면 최대한 은퇴시기를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권장하고 있다. 은퇴자의 경제적 자립은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일정하게, 일을 해서 벌은 수입만큼을 만들어 안정적 수입원이 확보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수입원이 각종 연금일 수도 있고 부동산, 주식, 주택의 렌트 수입 등으로 투자 소득이나 저축형보험 등의 수령이 될 수도 있다. 각자 다른 수입원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은 나름대로의 장, 단점이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

### 은퇴 재정계획의 ABC

상황을 파악한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지금 어디 서있는 지점이 어디인지, 현재 무엇을 얼마나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지(예로 가지고 있는 보험이 CashValue가 확실한 저축성인지, 아니면 불확실한 투자성인지)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현금을 확보한다.

투자 포트폴리오가 아닌 연방정부 연금이나 팬션 등에서 나올 소득에 대해 향후 12개월 간 필요한 생활비 정도는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나로 묶는다.

은퇴기관의 소득원은 연방정부의 연금이나 팬션 등 포트폴리오가 아닌 일반소득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이 소득원이 가장 기본적이고 일차적 소득원이 될 것이다. 이들은 한계에 다 몰아 넣는 것이 좋다. 여기에 주식, 채권, 뮤추얼펀드에서 나오는 배당금, IRA 계좌 인출금도 한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목적과 필요에 따라 투자한다.

일반적으로 은퇴할 시기의 포트폴리오 오는 보수적인 포트폴리오 운용이 필요하다.

예상 가능한 수익으로 필수 생활비를 조달한다.

정기적인 인출플랜을 통해 매달 필요한 소득을 정기적으로 충원한다.

일부에서는 Annuity를 활용해 이 같



은 정기적 소득을 만들어 놓기도 한다.

### 은퇴준비의 행동강령

#### 원금도 쓴다.

자금 규모가 크면 이자만으로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드물다. 결국 원금의 일부를 은퇴 생활비로 빼 써야 한다.

#### 세금관리.

각종 자산을 현금화해 사용할 때는 세금 문제도 생각해야 한다. 일시에 인출금이 커져 세율이 올라가지 않게 투자운용 뿐만 아니라 인출플랜도 세워야 한다.

#### 정기적인 포트폴리오 조정.

정기 리뷰와 조정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바람직하다.

미 은퇴자협회(AARP)는 은퇴 후 어떤 재정 설계를 하던 간에 당장 실천해야 할 행동 강령 7가지를 선정했다.

- 더 저축하라
  - 부채를 최대한 줄여라
  - 의료비용을 고려하라
  - 현금구매 습관을 길러라
  - 수수료나 공과금을 낮출 기회를 잡아라
  - 유틸리티 비용을 줄여라
  - 할인혜택을 적극 이용하라
- 여러 가지 은퇴에 필요한 정보에 대해 알아보면

### 사회보장연금

(Social Security Benefits)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퇴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사회보장연금

이다. 사회보장연금이란 연방사회보장국(SSA,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서 관리 운영된다. 엄밀히 말해서 사회보장연금은 은퇴연금(Retirement Benefit), 유족연금(Survivors Benefit), 장애보험(Disability Insurance)으로 구분된다.

### 사회보장번호

귀하가 받은 사회보장혜택은 귀하의 고용주나 자영업자인 경우 본인이 귀하의 사회보장번호를 이용하여 신고한 소득에 근거합니다. 일할 때 사회보장카드에 기재된 이름과 동일한 이름을 사용해야 하며 이름을 바꿀 때 사회보장국에 이름변경을 해야 하며 무료입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바로 자녀의 사회보장번호를 취득해야 하고 연방 소득세 신고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자녀의 보장번호가 필요 합니다.

### 기록이 정확한지 확인

고용주의 급여 지불 명부 기록 및 W-2 양식에 기재된 이름과 사회보장번호가 카드에 기재된 것과 일치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소득 기록을 18세 이상의 근로자에게는 온라인으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www.socialsecurity.gov/mystate](http://www.socialsecurity.gov/mystate) ment로 가서 계정을 만드세요.

### 사회보장 “크레딧” 받기

귀하가 일을 하고 사회보장 세금을

납부하면 사회보장 수혜 자격에 영향을 주는 “크레딧”을 받게 됩니다. (소득에 따라 매년 최대 4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혜 자격을 얻기 위해 10년의 년 수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게 40 크레딧을 얻으셔서 어떤 금액을 사회보장 연금을 받게 되셨다고 세금을 더 내지 않으시는데 나이에 이르실 때까지 계속 내셔야 그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사회보장세금 납부하기

귀하가 피고용자일 경우, 귀하의 고용주는 귀하의 급여에서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세금을 공제하여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으로 보냅니다. 고용주는 또한 귀하의 급여에서 공제된 것과 같은 액수를 더해 IRS로 보냅니다. 귀하가 자영업자일 경우, 세금신고서를 제출할 때 귀하의 모든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세금을 납부하게 되며 IRS는 귀하의 소득을 사회보장국에 신고합니다.

### 사회보장 연금 계산하기

귀하가 받은 사회보장연금은 귀하의 평균소득에 대한 퍼센트입니다. 평균 소득 근로자는 자신의 평균 평생 소득의 약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연금은 귀하가 퇴직하거나 장애가 되었을 때 귀하의 유일한 소득

원이 되거나 귀하의 사망시 귀하의 가족의 유일한 소득원이 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회보장연금은 연금플랜, 저축, 보험, 투자에서 들어오는 기타의 소득을 보충하기 위한 것입니다.

### **사회보장연금**

귀하의 연금보장 세금은 퇴직, 장애 및 유가족 연금의 세 종류의 연금으로 지급 합니다. 퇴직 급여 또는 장애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을 경우, 귀하의 다른 구성원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함되는 가족 구성원: 62세 이상의 배우자, 또는 62세 미만이라도 16세 이상이지만 귀하의 기록에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장애인 자녀를 부양하는 배우자, 18세 미만의 미혼 자녀, 아직 초등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18-19세의 자녀 또는 18세 이상이지만 장애가 포함됩니다. 귀하가 이혼한 경우, 귀하의 전 배우자가 귀하의 기록에 근거하여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퇴직연금**

귀하가 일정기간 동안 일해 온 경우 정년퇴직 연령(62세 이후 신청 할 때는 감소된 금액으로 지급 가능)

귀하가 1938년 이전에 출생하셨다면 귀하의 정년퇴직 연령은 65세입니다. 정년퇴직 연령은 점차로 높아져서 1960년 이후에 출생한 분들의 정년퇴

직의 연령은 67세입니다. 귀하가 정년 퇴직연령 이상이 될 때까지 퇴직을 연기하면, 연금을 받지 않는 동안 70세까지 매월 특별 크레딧을 받게 됩니다. 퇴직을 65세 이후로 연기 할 경우라도 메디케어는 귀하의 65세 생일 3 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 **장애연금**

귀하가 일정기간 동안 일했고 1년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심각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경우나 사망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질병을 가진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 신청과정이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으므로 일을 그만 두든지 1년이 될 때까지 연금 신청을 미루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유가족 연금**

귀하가 귀하의 특정 구성원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 유가족 중 일부가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생존 배우자 및 이혼한 생존 배우자, 자녀 및 피 부양 부모가 포함됩니다.

### **메디케어**

네 부분으로 이루어진 메디케어의 한 부분인 병원보험 (Part A)의 부담금은 귀하가 일하는 동안 납부하는 메디케어 세금으로 충당됩니다. 이 보험은 병원 입원, 전문 요양 간호 및 기타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합니다. 또 한 부

분은 진료보험(Part B)이라고 합니다. 진료보험은 대개 귀하의 사회보장 수표에서 월 보험료를 공제하여 충당합니다. Part B는 의사의 진료비용, 외래환자 병원 방문 및 기타 의료 서비스와 의료 장비에 대한 비용을 보조합니다. 메디케어 Part A 와 Part B에 가입된 분들은 본인들의 모든 건강 간호 서비스를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Part C) 내에서 운영 되어지는 하나의 공급기관을 통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처방약 프로그램(Part D)은 의사가 치료를 위해 처방한 약에 대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주의: 65세가 되면 메디케어 수혜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는 모든 분들에게 적용되며 퇴직 연금 전액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65세 이상이 되어야 하고 1938년 이후 출생자도 해당이 됩니다.

★ 우리가 65세가 되어 메디케어의 혜택을 받을지라도 요양병원에 가게 될 경우, 20일까지는 무료이고 21일부터 100일까지는 약 130불 정도, 그 후로는 전부 본인의 부담 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갑부들도 요양병원에 가는 경우를 제일 무서워합니다.





## 어린이 치아에 관한 이야기

많은 부모님들께서 어린 자녀들의 치아를 유치(baby teeth), 혹은 빠질 치아라고 해서 크게 신경쓰고 계시지 않다가, 아이들이 통증을 호소하거나 염증이 생기면, 그때서야 뒤늦게 치과를 방문하시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의 치아에 대한 상식을 조금만 미리 알고 계시면, 아이들의 치아가 너무 상하거나 염증으로 힘들어하기 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으며, 더 늦어지기 전에 손쉽게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함께 어린이 치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 아이들의 치아 건강을 도와주려 합니다.

아기들은 치아 bud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다만 잇몸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잇몸의 건강도 중요하며, 건강한 잇몸에서 건강한 치아가 형성됩니다. 치아는 보통 6개월 가량(빠르면 3-4개월)부터 잇몸 위로 자라게 됩니다. 유치는 2-3살 정도에 모두 잇몸

위로 자라며, 5-6살 가량이 되면 빠지기 시작하고, 그 자리에 영구치가 자라게 됩니다. 12-13살쯤 되면 사랑니를 제외한 모든 영구치가 잇몸 위로 자라 납니다.

### 1. 0-2세

부드러운 거즈나 wash cloth로 잇몸을 잘 닦아줍니다. 잇몸 위에 형성되는 코팅막과 같은 플라그(plaque)를 제거하여 치아충치를 예방합니다. 치아가 형성된 후에는 물 또는 training (safe to swallow, fluoride free) 치약과 부드러운 유아용 치솔로 하루 두번 치아를 잘 닦아줍니다. 최근 미국 소아치과 협회(AAPD)에서는 첫 치아가 자란 후 3살 미만인 아이들에게는 쌀알 크기(smear or rice-size amount) 만큼의 불소 치약 (fluoridated toothpaste)의 사용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량의 불소를 삼킬 경우, 치아에 하얀 반점과 같은 불소침착(fluorosis)이 형





성될 수 있으므로 불소의 사용을 조심하도록 합니다.

- Baby bottle tooth decay

우유나, 분유, 주스를 받이나, 장시간 bottle로 마실 경우 생기는 충치현상입니다. 특히 젖병을 물린 채로 재우지 않도록 합니다. 젖병에 우유를 먹이다가 아기를 재우면, 아기의 입안에 sugar가 10-12 시간 정도 장시간 머물게 되므로 충치의 큰 요인이 됩니다.

- 아기들은 충치를 유발하는 박테리아 균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유아들의 박테리아균은 부모님이나 아이들을 돌봐주는 사람의 침을 통해 아이들의 입속으로 전달됩니다. 부모님의 손가락이나 컵 등을 아이들과 같이 사용하시거나, 아이들의 음식을 식히기 위해 입으로 불어주는 행동 등으로 침과 함께 박테리아균이 전달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행동을 조심하시는게 바람직하며, 부모님의 치아건강도 중요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 6개월 이전에는 주스류를 주지 않는 것을 권합니다. 또한 그후에도 하루 4-6 oz 이상의 주스류는 주지 않는 것

이 좋습니다. 특히 sippy cup에 주스나 sugary beverage를 담아서 마시게 하는 습관을 주지 않도록 합니다.

**2. 3-5세**

Pea-size 만큼의 불소치약을 사용할 수 있지만, 치솔질 후 반드시 치약을 뱉어내도록 해야 합니다.

- 뉴욕 시나 Queens에서는 불소가 함유된 fluoridated water가 공급되고 있지만, 교인분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뉴욕 Nassau county, Suffolk county의 수도물에는 불소가 함유되어 있지 않거나 권장 불소 함량(0.7 ppmF) 미만인 지역이 있습니다. AAPD에서는, 불소함량이 적은 곳에 사는 6개월부터 많게는 16살까지의 어린이들에게, 불소 supplement를 주어 충치예방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소를 과다하게 복용하지 않고, 적당량을 섭취하도록, 소아과나 소아치과에 의뢰하시는게 좋습니다.

**3. 6-9 세**

- 치아와 치아가 맞닿기 시작하면 치실(floss)를 사용합니다. 칫솔질과 치실을 하루 2번 이상 하도록 합니다.

- 영구치가 나기 시작하는 나이 이므로 더욱 꼼꼼히, 입안 후치부까지 치아를 잘 닦도록 합니다. 6세에 나오는 영구치(6 year molar)는 유치 뒤쪽, 가장 후반부에 위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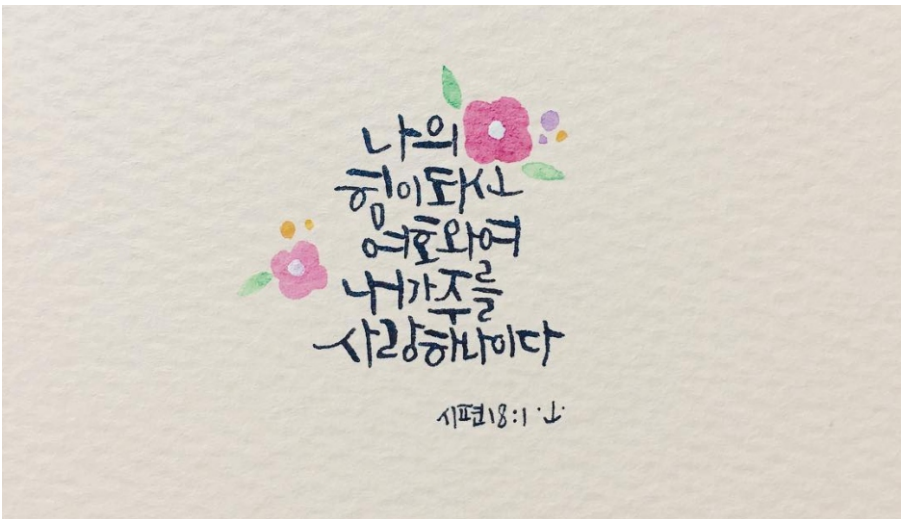
#### 4. 10-13세

- 사랑니를 제외한 모든 영구치가 잇몸위로 자라납니다.
- 운동을 하는 어린이의 경우, mouth guard를 사용하여 운동시 치아의 손상이 없도록 합니다

- 치아교정을 한 어린이는 치아와 교정기 사이사이를 꼼꼼히 닦도록 합니다.

모든 신체의 부위가 그렇듯이 치아도 예방 치료가 중요합니다. 1살이 지난 후부터는, 치아가 아프거나 썩기 전에, 6 개월에 한번씩 치과를 방문해 주셔서, 클리닝, 불소치료(child prophylaxis and fluoride treatment)와 정기검진을 권장합니다.

또한, 올바른 칫솔, 치실, 불소 rinse 사용 (proper home care)과 당분의 과섭취를 자제하는 건강한 식생활 (proper diet) 등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의 치아를 건강히 잘 유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기도와 사업상의 경비?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경우 회사의 수입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필연적으로 경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렌트비, 전기세, 소모품경비등입니다.

IRS가 규정하는 경비는 특정회사 사업상 일반적이고 또 필요 (ordinary and necessary)해야 한다고 정의합니다. 필요하다는 뜻은 그 경비가 하고 있는 사업상 적절하며 사업에 도움을 (appropriate and helpful) 주는 경우이고, 일반적이라는 뜻은 그 경비가 하고 있는 사업상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common and accepted) 경우를 말합니다.

몇가지 예를 들어 보면, 연말에 고객에게 드리는 선물은 어떨까요? 생각해 보면 필요한 것 같기는 한데 일반적이지는 않지요. 선물을 제공함으로써 장차 사업상의 도움을 예상할수 있고, 각 선물의 가치가 연\$25을 넘지않는다면 경비로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수표로 기부를 한 경우는 어떨까요? 회사경비로서 필요하지도 않고 일반적인 경비라고 볼 수 없습니다. 경비로서 자격이 없

는 듯 한데, IRS로부터 비영리단체로 허가가 된 단체에 기부를 했다면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이 기부금은 회사 순이익의 10%까지만 그해 공제가 되고, 남은액수는 이 후5년까지 다음해로 옮겨줍니다. 예를 들어 올해 \$5000을 기부했는데 회사 순이익이 \$10000인 경우, 회사 순이익의 10%인 \$1000만 올해 공제가 되고 \$4000은 내년으로 옮겨가며 이 후 5년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고객에게 물건을 배달하거나 Jetro 같은 곳에서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회사에서 \$70000짜리 고급차를 산 경우, 회사차로서 경비처리가 가능할까요? 이 경우 사업상 짐을 실어야 하니 위에서 언급한 필요조건은 충족할수 있겠으나, 과연 일반적이고 적절한 경비인가에 대해서는 IRS로부터 해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콜택시 회사가 똑같은 차를 사서 영업용으로 쓸 때는 이 경비를 필요하고 또 일반적인 경비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요.

그럼 모든 경비를 어떻게 증명할까요? 경비는 액수, 시간, 장소 그리고

사업상의 목적을 설명할 영수증과 결제 수단(수표또는 현금)이 있으면 됩니다. 렌트비는 리스계약서와 결제된 수표를 볼 것이고 물건을 구입한 경우는 영수증과 함께 수표나 현금등 결제수단을 비교해서 볼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로써 기도를 경비에 대입해 봅니다. 사업상의 높은 수익 창출을 위해 더 많은 경비나 투자가 꼭 필

요하듯이, 행복한 믿음 생활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기도라는 경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도에 대한 투자는 망할 염려도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꼭 갚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마 6:6) 마음껏 후회없이 기도라는 경비를 열심히 써 봅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건강 지킴이 레시피(Recipe)

# 〈가족사랑 건강주스 일명(一名) 장생해독(長生解毒)주스〉



## 1. 〈가족사랑 건강주스 일명(一名) 장생해독(長生解毒)주스〉 만들기 요약

주스 이름은 어느 쪽이든 본인이 편리하신 대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일명(一名)의 뜻: 본이름 밖에 따로 부르는 이름. 영어로: another name

〈가족 2명 기준 ‘일주일 분량’〉				
과일,야채	차례	재료	재료 선택기준	장생해독주스 만들기 요약
〈과일〉 생으로 주스 만들기	①	사과 2개	사과의 종류는 많기 때문에 ‘후지사과’ 중, 알맹이가 제일 큰 것을 기준했습니다. 햇빛을 많이 받아서 색깔이 선명하고 싱싱한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① 사과는 껍데기 채로 생으로 깨끗하게 씻어서 믹서기에 갈기 좋게 잘라서, ‘껍데기채’로 갈아야 합니다.
	②	배 1개	배는 ‘한국 배’를 기준했습니다. 늦은 봄~초가을 무렵, 한국 배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때는 서양 배 중, 당도가 높은 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② 배,바나나,키위는 껍데기를 벗기고 생으로 믹서기에 갈기 좋게 잘라서 함께 갈아도 됩니다.
	③	바나나 2개	바나나도 종류가 많기 때문에 ‘보통 바나나’ 중, 잘 익고 싱싱한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③ 야채는 섬유질(껍데기)채로 깨끗하게 씻어서 지정된 물을 용기에 붓고 함께 삶으시기 바랍니다.
	④	키위 4개	키위는 신맛이 약간 강하기 때문에, 신맛 때문에 애써 만든 주스가 혹시나 쉬지 않았나 생각될 수도 있으므로, 잘 익은 ‘골든키위’를 고르시기 바랍니다.	④ 채소를 삶은 물은 조금도 버리지 마시고 한 용기에 부어서 식힙니다.
〈야채〉 삶아서 주스 만들기	⑤	당근 1봉지 (아기당근)	당근은 양을 조절하기가 쉽고,다듬기 좋게 ‘비닐봉지’에 포장된 것을 기준했습니다. 뿌리가 크고, 긴 당근은 씻고 다듬는데, 잔손이 많이 가지만 사용해서도 무방합니다. (아기 당근이란 저가 불인 이름입니다)	⑤ 과일이나,야채를 갈아서 주스를 만들 때는 야채를 삶아 식힌 물을 사용합니다.
	⑥	토마토 4개 (줄기토마토)	토마토는 ‘줄기 토마토’를 기준 했습니다. 토마토는 이것 저것 사용해 보았습시다마는 줄기 토마토가 가격, 당도가 무난하다고 생각됩니다.	⑥ 과일 및 야채를 갈아서 만든 두가지 주스는 큰 용기에 부어 모아서 큰 주걱으로 잘 저어서 혼합하면 주스 만들기는 완료 됩니다.
	⑦	카베추 1개 (보라색)	카베추는 ‘보라색 카베추’를 기준했습니다. 보라색 카베추는 상대적으로 햇빛을 많이 받아서 눈에 유익한 성분이 많이 들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⑦ 주스를 담은 용기는 가급적 눈금이 있는,1,000cc 용기에 냉장보관하셨다가 아침,저녁 한 컵(200cc~250cc) 씩 드시면 됩니다. (식전 30분 전)
	⑧	브로콜리 1송이	브로콜리는 영양가도 높고 미국사람들이 즐겨 먹는 대표적 채소입니다 여러 가지 요리에 빠짐없이 애용되고 있는 채소입니다.	
	⑨	물 2 liter (2000cc)	물은 가급적 “Pure Quality Natural Water”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물은 주스가 되겠금 적절히 증,감 하시기 바랍니다)	

## 2. <가족사랑 건강주스 또는 장생해독(長生解毒)주스>를 만들게 된 동기

① 벌써 오래된 일이지만 2010년에 발행된 책으로써 “체온 1도가 내 몸을 살린다” 라는 책이 일본과 한국에서 베스트셀러 대열에 오른 일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저명한 의학박사이시며 안티에이징(Anti-aging, 항노화) 전문의, 전염병 전문의, 면역력을 이용한 암 전문의로서 왕성한 활동을 하시는 의사 선생님께서 쓰신 글 중에, 되도록이면 본인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과일과 야채를 섞어서 주스를 만들어 먹되, <사과와 당근>은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사과와 당근의 조합’은 안티에이징의 세계에서는 체내 디톡스(독소 제거) 효과와 면역력을 높이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② 이 책 출간 당시 저자 외, 일본에서 100세이시며 의학박사님이시면서 일본의 유서깊은 큰 병원에서 이사장님으로서 젊은이 못지 않게 왕성한 의료 활동을 하고 계시는 현역 의사 선생님께서도 매일 아침 여러 가지 재료로 손수 만든 생주스를 30년 이상 습관처럼 드시고 계시는데, 그 분의 주스 재료의 ‘레시피’에는 <사과와 당근>이 꼭 들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분께서도 본인이 매일 아침마다 손수 만들어 드시는 생주스가 ‘건강, 장수’의 비결이라고 강조하신 대목이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던 중, 저는 구미가 당겨서 시도해 보기로 한 것이 벌써 6년이란 세월이 쌓였

습니다.

③ 저는 2008년 71세의 황혼의 나이에 미국에 왔습니다. 그 이듬해부터 생각해 본 일도 없었는데, 뉴저지 아들 집에서 손녀가 태어나자 돌볼 사람이 없어서 제가 자원해서 아들 집으로 가서 만 2개월 된 손녀를 돌보는 것이 저의 일과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딸 집에서 외손자, 외손녀를 돌보게 되어서 6년이란 세월동안 주말 부부가 된적이 있습니다 그런 연유로 낮 시간에는 아들과 며느리가 직장에 나가고 집에 없는 사이, 저 자신의 식생활 습성에 따라서, 저 스스로의 먹거리는 저 스스로가 자유로이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④ 그래서 <가족사랑 건강주스 또는 장생해독(長生解毒)주스>를 처음 시도할 적에는 <사과와 당근>만으로 생주스를 만들어서 상당한 기간 저 혼자서 먹어 오다가, 점차 <사과와 당근> 외에 저가 평소애 좋아하고 즐겨 먹어오던 과일과 야채 한, 두가지씩을 첨가하게 되어서 주스 ‘레시피’가 현재의 수준으로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⑤ 저는 어려서부터 건강이 좋지 못하여서 성년이 된 20대 후반의 젊은 나이부터 자연히 ‘건강한 먹거리’와 ‘생활체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이한 제목의 건강서적이거나, 한국과 일본의 장수촌 노인들의 삶을 연구한 보도나, 책자가 출간되면 놓치지 않고 읽어왔습니다 장수촌 노인들이 건강하시고 장수하시는 요인에는 혈통적 요인이나, 선천적 요

인보다는 환경적 요인과 후천적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습니다.

⑥ 한국이나 일본의 장수촌 노인들의 생활양식 중, 특이한 것은 장수촌 노인들의 많은 분들이 집 근처에 텃밭을 마련하시고, '텃밭'을 직접 가꾸시므로 운동량이 많아져서 건강유지에 도움이 되시고, 텃밭에서 농약이나 화학비료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퇴비만으로 가꾸신 자연상태에서 자란 야채를 <삶거나 데쳐서> 각종 양념을 가미해서 드시는데, <삶거나 데쳐서> 드시면, 생으로 먹는 것 보다 \*잡균'이 많이 없어지고, \*영양 흡수율이 좋아지고, \*많은 양의 채소'를 먹을 수 있어서 \*배변량이 많아져서 장창소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서 \*장이 건강해지는 것이 장수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 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런 보고서에 눈길이 쏠리게 되었습니다.

⑦ 그래서 저는 과일은 평소에 저가 하던 대로 생으로 갈아서 주스를 만들고, 야채는 삶거나, 데쳐서 나물을 해서 먹는 대신, 삶거나 데쳐서 섬유질채로 갈아서 주스를 만들고, 두가지 주스를 섞어 혼합해서 한가지 주스로 만들어서 과일과 야채를 매일 같이 균형있게 섭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배변량도 확실하게 많아져서 변을 보고나면 속이 너무 시원해지고 후련해짐을 느끼게 되었고, 몸의 컨디션도 놀랄만큼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⑧ 저가 <가족사랑 건강주스 또는 장생해독(長生解毒)주스>를 만들어 먹기



시작한 수년 후에, 한국에서 자연의학에 조예가 깊으신 어떤 교수님께서 실험을 통하여 밝혀내신 내용인데, 야채는 생으로 먹으면 흡수율이 20% 정도 밖에 안 되지만, '삶거나 데쳐서 섬유질채로 갈아서 주스를 만들어 먹으면 흡수율이 80%까지 높아진다'는 내용을 인터넷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저가 '야채를 '삶거나 데쳐서' 주스를 만들어 먹는 방법과 일치되는 점이 많고, 장수촌 노인들의 생활방식과도 일치되는 점이 많아서 저의 노력과 수고가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스스로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⑨ 저는 시행착오를 여러 번 겪으면서 이렇게 만든 주스를 저 혼자서 상당기간 동안 먹어오다가,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가족들에게 시식을 권해보게 되었습니다. 시식을 해본 가족 모두가 좋아하고, 손녀들이 더 좋아해서 가족 식단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연후에 저 스스로가 {가족사랑 건강주스 일명(一名) 장생해독(長生解毒)주스}라고 이름을 부치게 되었습니다. 아들 집에서는 손녀들이 <할아버지 주스>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후부터는 식품가게에서 사온 여러 종류의 주스는

손녀들이 잘 먹지 않게 되자 냉장고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⑩ 요즘 한국인들은 서구의 식생활의 영향으로 남자들에게 ‘장암’이 급격히 증가하여 남자 사망원인 1~2위를 기록한다는 보도가 있어 왔습니다. 육류를 드실 때는 야채 70%, 육류 30%의 비율로 드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이런 비율을 잊어버리고 육류만을 흡족하게 즐겨드시는 것이 습관화 되시면 의외의 결과에 직면하게 됩니다.

⑪ 유명 대학의 종합병원에서 외과의사 선생님께서 하루에 몇차례씩 장암수술을 집도하시는 분께서, 평소에 육류를 좋아하셔서 육류섭취를 자제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면서도, 하루 일과가 끝나면 바로 고기집으로 직행하셔서 소주 몇잔을 곁들여 육류를 흡족하게 드시고 수술로 인한 하루의 피로를 푸셨다고 합니다. 몇년 후에 몸의 컨디션이 예전과 같지 않아서 진찰을 받아보니 아이러니 하게도 장암에 걸리신 것을 아시게 되셨고 결국 수술대에 오르셨다고 합니다.

⑫ 건강한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습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시사하는 좋은 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라는 명언이 현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산해진미(山海珍味)가 눈 앞에 놓여 있다고 절제를 못하고 마음껏 드시는 과식습관이 몸에 배이면 식원병(食原病)으로 고생을 면치 못하

게 됩니다. 위(胃)의 용량과 소화능력을 생각해서 복팔원칙(腹八原則 :위 용량의 8할만 먹음)을 지키면 의원이 필요 없다는 명언이 있습니다.

음식을 드실 때는, 위(胃)의 소화능력과 위(胃)의 용량을 고려하셔서 80% 정도만 드시면, 위가 항상 편안하고, 소화제 등을 안 드셔도 되시고, 저녁식사는 회식이나 파티 등이 많아서 이 원칙을 지키기가 말 같이 쉽지 않습니다. 라는 작심하시고 지키실려고 노력하시면 건강한 삶을 누리시는데도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식사는 가급적이면 취침 3시간 전에 일찍 가볍게 끝내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이 역시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원칙을 지키기가 말 같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노력하시다보면 잠재의식이 발동하여 좋은 습관으로 자리잡힐 수 있습니다. 잠자는 시간에 위속에 소화되지 못한 음식물이 남아 있으면 위(胃)가 쉬지를 못하고 고역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잠자는 시간에는 부교감신경이 작동하여 성장호르몬이 분출되어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돕는데, 위(胃)속에 음식물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성장호르몬이 분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자는 시간에는 대사작용이 느리게 작동하기 때문에 소화속도가 느려지고 위(胃)속에 음식물이 남아있으면 배속이 편치 않아서 숙면을 취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⑬ 성경 창세기 1장 28절에는 하나님께서 창조역사를 마치신 후에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후, 모두 다스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의 몸과 건강문제도 ‘스스로가 다스리고 가꿔야 한다’는 말씀이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갈라디서 6장 7절에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의 몸과 건강문제도 예외가 아님을 시사하는 말씀이라고 생각 됩니다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으나, 창조원리는 이마에 따미 흐르는 수고를 해야만 모든 일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 듯, 건강도 가만이 앉아서 굴러들어오는 행운이 아닙니다 노력이 따르지 않고는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가 쉽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천수(天壽)를 누리기도 쉽지 않다고 하겠습니까.

⑭ 저는 어렸던 초등학교 시절에는 농촌에서 자랐고, 큰 산 밑에서 살았습니다 그 당시는 요즘처럼 놀이시설도 없었기 때문에 산과 들판이 저의 놀이터였습니다 이런 연유로 저는 어려서부터 산 타기를 좋아했던 것이 ‘등산’으로 이어져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등산이 저의 건강을 지켜주고 있는 일등공신이 되었습니다. 하루에 밤을 4끼 잠수신다고 생각하시고, 그 중에 한끼는 운동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매일 같이 한가지 운동을 생활화 하시면 건강한 삶을 누리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 주스재료의 한품목~한품목의 각기 특성은 준비는 하였으나 지면관계로 생략하였습니다.

### 3. <가족사랑 건강주스 또는 장생해독(長生解毒)주스> 만들기 요점정리

☞ 식재료 중, <사과와 당근>은 필수재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재료는 저가 오랜 세월동안 좋아하며 먹어오던 것들, 만인이 좋아하는 것들, 더 이상 영양가나 안전성에 대해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없는 것들을 선택기준을 삼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사과와 당근> 이외의 재료는 본인이 좋아하는 것들로 바꾸실 수 있음도 겸하여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영양가가 좋은 음식이라도 맛이 없으면 누가 즐겨 먹겠습니까? <가족사랑 건강주스 또는 장생해독(長生解毒)주스>는 ‘과일’과 ‘야채’를 이용해서 만든 주스입니다 야채만으로 만든 주스는 씹쓰름해서 맛은 별로입니다 그래서 당도가 높은 과일과 믹스가 되어야만 구미가 당기는 맛있는 음식이 될과 동시에, 계속해서 먹고 싶은 주스가 될 수 있음을 고려했습니다.

☞ 주스재료의 각 품목의 특성은 준비는 하였으나 지면관계로 생략하였습니다.

☞ 과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삶아서 먹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생으로 먹어야만 과일의 고유한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고, 영양가도 제대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으로 갈아서 주스를 만들었습니다.



① 사과 껍데기는 조직이 강하기 때문에 곱게 갈기 위해서는 사과는 따로 갈으시기 바랍니다.

② 배, 바나나, 퀴위는 껍데기채로 먹지 않기 때문에 껍데기를 벗기고 알맞게 잘라서 믹서기에 함께 갈으셔도 됩니다.

☞ 채소는 대체로 ‘삶거나, 데쳐서’ 각종 양념을 가미해서 나물을 해 먹거나, 국거리 등으로 애용됩니다.

장수촌 노인들의 식생활에서 보셨드시 ‘장건강’을 위해서 야채는 섭취량과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삶거나, 데쳐서 각종 양념을 가미해서 드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야채는 ‘섬류질 채로 삶아 갈아서’ 주스를 만들었습니다.

① <토마토>, <브로콜리>는 ‘과일세제’ 등으로, 깨끗이 씻고, <당근>은 비닐봉지에 가공포장 된 것이므로 물에 행귀서 사용합니다. 삶은 당근은 조직이 무르기 때문에 이 3가지 재료는 적당한 용기에 함께 삶으셔서, 함께 갈아도 됩니다.

② <카배추>는 삶아도 줄기의 조직이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카배추는 따로 곱게 갈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과일 야채로 만든 2 가지 주스>는 큰 용기에 부어 모아서 큰 주격으로 골고루 뒤섞어서 한가지 주스로 혼합하면 <가족사랑 건강주스 또는 장생해독(長生解毒)주스> 만들기는 완성됩니다.

☞ 믹서기는 ‘타이머’가 부착된 성능이 좋은 제품을 선택하시면 편리하고

능률적일 수가 있습니다.

☞ <물>은 가급적 ‘Pure Quality, Natural Water’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수분의 70%가 물이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에 “피”는 곧 생명이라고 하였습니다.

“피”의 구성 요소도 물이 7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장수촌 노인들에 대한 각종 연구조사와 실험에 의하면 장수의 ‘핵심요소’는 ‘깨끗한 피’에 있다는 결론입니다.

#### 4. 야채를 삶은 물 관리

① 야채를 삶은 물이 끓으면 즉시 불을 Low로 낮춰서, 10~20분 후에 삶긴 상태를 확인후 불을 끕니다.

② 야채를 삶은 용기의 뚜껑을 열고 삶은 야채와 물을 식힙니다.

③ ‘식힌 물’과 ‘삶은 야채’는 적당한 용기에 분리해서 담습니다.

④ ‘야채를 삶아서 비타민이 녹아난 물’은 조금도 버리지 마시고 적당한 용기에 부어 모아서 주스를 만들 때 식힌 물을 믹서기에 알맞게 부어서 주스를 곱게 갈아서 <가족사랑 건강주스 또는 장생해독(長生解毒)주스>를 만드는데 사용합니다.

⑤ 재료에 비해 식힌 물을 믹서기에 너무 많이 붓거나, 너무 적게 부어도 주스가 곱게 갈리지 않습니다.

식힌 물 사용시, 식힌 물이 모자라거나 남는 일이 없도록 식힌 물 안배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한~두번 만드시다 보면 금방 익숙해지실 것입니다.



## 5. 주스 보관 및 드시는 방법

① 가족 2인 일주일 분량 주스를 만드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2시간~2시간 반' 정도면 충분합니다.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1일 약 20분 정도 투자하시는 셈입니다.

② 가급적 눈금이 있는 '1 liter (1,000cc) 용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liter(1,000cc) 눈금 있는 용기는 유명 운동용품점에 가시면 위생적인 것을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EMS: East Mountain Store, Sport Authority, Dick's 등, 등)

③ <2인 가족 기준 재료>로 만든 주스는 1 liter(1,000cc) 용기로 약 7~8병 정도 나옵니다.

1 liter(1,000cc) 용기 <한병 분량>이면, 한컵분량 (약 200cc~250cc)으로 4컵 정도가 됩니다.

아침, 저녁 식전 하루에 2회 드시면, 2인 가족 하루 분량이 됩니다. 7병이면 일주일 분량이 됩니다.

④ 식구 수가 많으면 " 2인 가족 재료"를 기준하셔서 주스 재료를 증,감 보완하시면 됩니다.

⑤ 준비된 1 liter(1,000cc) 용기에 만든 주스를 부어 담아서 냉장보관 합니다. 냉장보관한 주스는 일주일 정도

는 품질에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냉장고의 성능이 좋을 경우는 병뚜껑을 열지 않으면 약 2주 정도 품질에 이상이 없습니다.

☞ 왜 식전 30분 전에 먹어야만 하는가?

과일(야채주스 포함)은 위(胃)속에 들어가면 약 30분 정도면 소화가 완료됩니다. 소화가 완료된 음식은, 바로 소장으로 내려가서 소장에서 영양분을 흡수하고 난 다음, 찌꺼기는 대장으로 내려가서 체외로 배출됩니다. 그런데, 과일을 식사와 함께 먹으면 과일의 소화속도는 빠르고, 식사로 섭취한 음식물은 대개 위에서 2시간 정도 걸려야 소화가 되기 때문에 소화속도가 서로 다른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위속에서 먼저 소화가 된 과일은 바로 장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소화속도가 느린, 다른 음식과 뒤섞인채로 위속에서 정체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다른 음식의 소화를 방해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위속에서 먼저 소화가 된 과일은 정체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발효하게 됩니다. 발효하게 되면 <유독가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유독가스>가 체내에 흡수되어 몸속에서 쌓이게 되면, 질병유발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피를 오염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일은 적어도 식전 30분 전에 드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식후에 바로 드시는 것도 올바른 식사 방법이 아닙니다. 식사를 하므로써 여

러 가지 영양소와 당분을 충분히 섭취한 후에, 당도가 높은 과일을 먹으면 당수치를 높이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혹은, 식후 ‘입가심’으로 한~두쪽 드시는 것은 예외로 하고요.

## 6. <가족사랑 건강주스 또는 장생해독(長生解毒)주스>의 효과

지금 만드는 <가족사랑 건강주스 또는 장생해독(長生解毒)주스>는 각 재료의 ‘액기스’만 짜내고 ‘섬유질’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섬유질 채로 갈아서 각 재료의 ‘액기스’와 영양소, 장을 깨끗하게 청소역할을 하는 ‘섬유질’ 그리고 야채를 삶아서 비타민이 녹아난 물’을 조금도 버리지 않고 그 물을 이용해서 <가족사랑 건강주스 또는 장생해독(長生解毒)주스>를 만들어서 드시게 됩니다. 이런 연유로 오리지날 내추럴 자연식품인 과일과 채소의 일정분량을 매일 섭취하므로, 과일과 채소 속에 내포된 인체에 유익한 각종 영양소와 섬유질을 섭취하게 됩니다. 가족들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한>, 매일 같이 인체가 필요로하는 적절한 량의 과일과 야채를 가족에게 매일 먹게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하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20분 정도의 시간투자를 하시는 것은 바람직한 일일 것입니다.

### (1) 주된 효과

① 체내 ‘면역력’을 높이게 되므로 각종 질병 예방과 성인병 예방에 큰 도움

이 됩니다.

② ‘체내 독소를 몸 밖으로 제거하는 효과’가 있어서 피를 맑고 깨끗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③ 과일과 야채의 ‘섬유질’을 많이 섭취하므로 ‘배변량’이 많아져서 몸속 노폐물과 찌꺼기를 체외로 배출하므로써 장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어서 장청소와 ‘장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일석삼조”(돌 하나로, 새 세 마리를 한꺼번에 잡음)의 효과가 나타나는 <주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 (2) 다이어트 효과가 탁월합니다

① 아침, 저녁 2회, 식전 30분 전에 드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은 아침에 한차례 드셔도 됩니다.

② 아침 빈속에 드시면 흡수율이 더욱 높아지고, 아침 식사량은 줄어들게 되므로 다이어트 효과가 높아지게 됩니다.

③ 아침식사 대용으로 드시면, 다이어트 효과는 더할나위 없이 높아집니다. (음식은 적게 먹게 되고, 배변량은 많아지고) 또한 빈속에 출근하시는 것 보다 몸을 보호하게 되고, 필요한 활동 에너지가 보완됨으로 업무능률이 오르게 됩니다.

☞ 단기간에 효과를 기대하지 마시고, 아무쪼록 꾸준히 장복하셔서 예일 가족 구성원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리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Hiker Trail



2016년 9월 마지막 주에 우리 일행은 일주일 일정의 산악등반 여행을 떠났습니다. 대자연속을 걸으며 느낀 감동을 나누고자 이 글을 씁니다.

하이킹 그룹은 우리 부부를 포함하여 6명이고 그룹리더는 마라톤 완주를 30회 이상 하신 등산 애호가입니다. 우리 부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일행은 25년을 알고 지내는 사이입니다.

여러 날을 함께 보내려면 서로 한 팀으로 이끌어 주고 도와주는 관계가 되어야 하지요.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진정한 팀의 모습입니다.

뉴욕 JFK 공항을 떠나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여 rent car로 동쪽으로 4시간 운전 후에 예약된 Lodge 스타일 호텔에 도착하였습니다. 겨울에는 스키타는 사람들로 많이 붐비는 장소인데 스키 시즌이 아니기 때문에 주변이 한산하였습니다.

다음날 한 주를 호텔에서 멀지않은 공원과 주변마을에서 시간을 보낸 후 3일째 아침 일찍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산행에 적합한 맑은 하늘의 가을날씨였

습니다.

이곳은 Inyo National Forest라고 불리는 지역으로 그중에 해발 9천 피트 높이에 있는 천섬호수라고 불리는 장소가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파킹장에서 출발하여 8천, 9천 피트의 고산지대에서 12 마일을 가야하는 거리입니다. 처음 1마일은 가파른 언덕길입니다. 돌밭길을 한걸음씩 발을 떼며 조심스레 걸어갑니다. 물과 음식, 옷가지 침낭, 텐트가 담겨있는 25 파운드 무게의 배낭을 매고 먼거리를 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숲속의 상쾌한 아침 공기를 마시며 쾌적한 기분으로 출발하였지만 언덕길을 오르면서 이내 온몸이 더워지기 시작하며 이마에 땀이 맺힙니다. 햇빛에 달구어지기 시작하는 바위산의 온기를 호흡으로 느끼며 한걸음씩 발을 움직입니다.

이곳에서 하루밤 캠핑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일행은 여러달 전에 캠핑허가를 신청해야 했습니다. 자연보호 차원에서 캠핑 인원을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룹 6명을 포함해서 12명 만이 이 넓은 산속에서 캠핑허가를 받았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꿈이 나오는 지역에서 캠핑을 하기 위해서는 밥솥 크기의 베어캔(bear can)을 렌트해서 가지고 가는 것이 규정입니다. 밤에 자는 시간 동안에 모든 음식을 이 깡통에 보관해서 꿈이 음식 냄새를 맡고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지요. 만약에 꿈이 나타나면 꿈을 쫓기 위한 spray도 준비하였습니다.

하루종일 목적지를 향해 걸으며 반대 방향에서 오는 서너 명의 등산객을 만난 것이 고작입니다. 이 큰 산속 자연을 마치 우리가 세를 낸 것처럼 오직 자연과 나만이 있는 듯하였습니다. 수천 피트 높이의 트레일 길은 관광지가 아닙니다. 오로지 자연을 사랑하고 즐기는 사람들만이 땀을 흘리며 찾아오는 곳입니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주님 지으신

대 자연의 깊은 아름다움을 보기 위하여 이러한 트레일에 동참합니다.

트레일 하이킹을 하는 사람은 자연속에서 걷는 자체가 목적입니다. 자연과 함께 숨 쉬며 그속에 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대자연속에서의 작은 자신을 보게 되며 겸손함을 배우게 됩니다. 너무나 큰 자연의 모습에서 보잘 것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연의 일부가 되어가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고 해서 자연을 정복했다고 하는 말은 가당치 않은 이야기입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돌밭길을 걸을 때는 발바닥에 느껴지는 아픔이 있습니다. 나뭇잎이 싸여있는 길을 걸을 때에는 발의 편안함에 감사를 느낍니다. 물기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시편 19:1)

하늘이 그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보았도다 (시편 97:6)

가 있는 바윗길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자칫 미끌어지면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산중턱을 따라 생긴 길은 한편이 낭떠러지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주의하게 내딛는 한 걸음이 생사를 가를 수도 있습니다.

트레일을 따라 걸으며 이와 같이 여러상황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한걸음씩 조심스럽게 걷게 되지요. 인생길을 걸으며 때로는 아픔이 있고 때로는 감사함이 있듯이 한번의 실수로 내가 다치든지 혹은 상대방을 다치게 하는 일도 있겠지요.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한걸음씩 발을 떼며 걸어가노라면 모든 잡념은 사라지고 이 산중에 오직 나와 자연만이 존재합니다.

이삼십 분 간격으로 휴식을 취하며

간단한 스낵으로 에너지를 보충합니다. 출발한 지 일곱 시간이 지납니다. 모두들 체력이 고갈됩니다. 마치 배터리가 다 나간 것 같은 몸상태가 됩니다. 발이 무거워집니다. 뒤에 따라오는 아내를 자주 돌아보게 됩니다. 일행의 후미가 자꾸 쳐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휴식시간이 십분간격으로 다가옵니다. 내 육체의 한계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산행을 준비하기 위하여 여름내내 달리기와 자전거 타기를 하며 나를 체력 단련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1마일을 힘들게 마치고 목적지 호수가 우리를 맞이합니다. 땀으로 범벅이된 얼굴을 시원한 호숫물로 씻고 주변을 둘러봅니다. 여름에도 녹지않는 만년설의 모습이 보입니다. 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산봉우

리와 하나가 된 듯한 호수를 바라보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가 귀절이 머리를 스칩니다. 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자연의 경관을 보기 위하여 나는 땀흘려 종일 이곳까지 올라 왔습니다. 땀흘리고 수고한 자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산중에서는 해가 일찍 집니다. 일행은 어두워지기 전에 하룻밤을 지낼 텐트를 세우고 저녁식사를 마쳐야 합니다. 지친 무거운 몸을 움직여 조별로 각기 맡은 일을 합니다. 자리를 잡아 텐트 3개를 만들고 한편에서는 호수에서 물을 길어와 필터로 거른 후 물을 끓입니다. 버너 불로 물 끓이는 것이 더딤니다. 고산지대에서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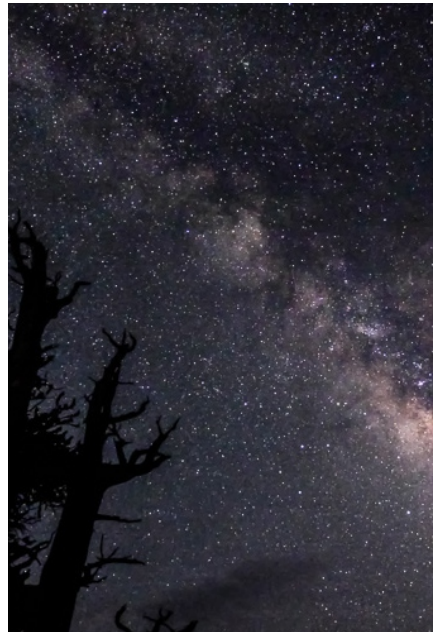
저녁식사를 마치니 이미 해는 산 넘어 내려갔고 하늘은 어두워졌습니다. 각자 손이나 모자에 부착된 렌턴에 의지해 길을 밝히며 텐트 안으로 들어갑니다.

캄캄한 산속의 어둠속에서 밤공기의 온도가 피부로 느낄 정도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화씨 32도까지 내려가는 밤의 온도를 버티기 위해 Sleeping Bag 속에서 체온을 보존합니다. 이 추운 밤을 어떻게 지내나 하는 생각을 하며 나도 모르게 잠이 들었습니다. 한밤중에 익숙하지 않은 Sleeping Bag 속의 캄캄함에 잠이 깨었습니다. 텐트 밖으로 나와보니 온 천지가 칠흑같이 어

두운데 하늘에서는 별들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은하수를 본 적이 있으세요. 국민학교 시절 겨울에 시골 할아버지댁에 갔을 때입니다. 낮같이 한 빈 논밭 사이로 걸어가며 밤하늘에 별들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박혀있는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것이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은하수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여기서 두번째로 은하수를 경험합니다. 순간 별뚱뚱이 긴 선을 그리며 산너머로 사라집니다. 한참을 바라보며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밤하늘을 바라보며 끝없이 펼쳐지는 별을보며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를 생각하며 밤은 깊어갔습니다.



## 마음을 설레게 하는 “예일 북클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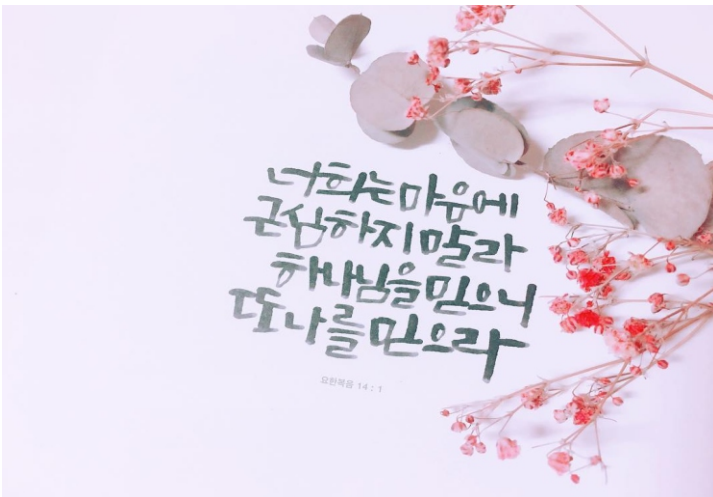
늘 영적으로 공허한 나였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충만하게 채워졌다가 현실로 돌아오면 다시 근심에 눌러 허덕이는 내 모습입니다.

이것의 명확한 해답은 말씀, 기도, 영성에 도움 되는 양서(독서)라는 것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마침 교회에서 귀한 시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일 북클럽”, 귀가 번쩍했습니다. 조유경 사모님이 영성 깊은 좋은 서적들을 선택해 주셔서 함께 눈으로 읽고 귀로 듣는 집중이 잘되는 독서 방법입니다.

아직 나의 영성의 깊이가 따르지 못해 어려워도 사모님의 명확한 설명으로 깨달음이 깊어집니다. 이 시간이 쌓이면 저 또한 깊은 영성의 인격이 되지 않을까?

감히 기대해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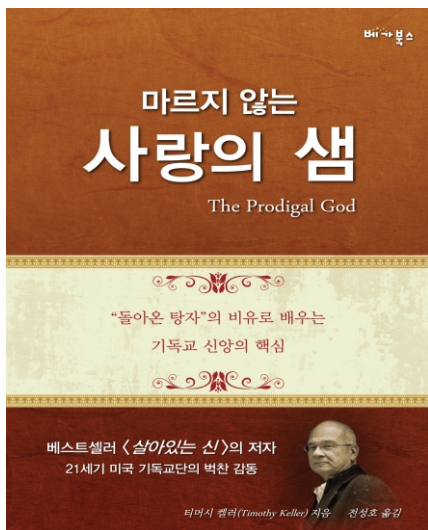
## 예일 오디오 북클럽을 하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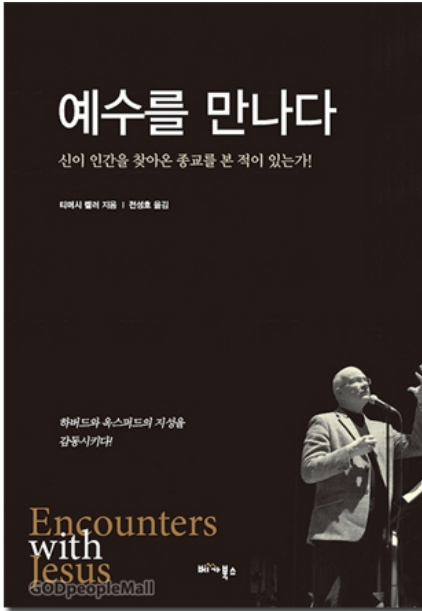
요즘 음식속의 성분들이 과학에 의해 밝혀지면서 내 몸에 유익한 음식을 골라 먹을 수 있는 좋은 세상이 되었다. 나는 도서관에서 일하면서 항상 좋은 책과 새로 나온 책들을 구비하려고 신문과 인터넷에서 자료를 제공 받으려고 신경을 쓰며 본다. 그런데 조유경 사모님의 오디오 북클럽 소식에 눈이 번쩍였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의 도움이 있을 것이란 것을 기대하며? 힘들이지 않고도 좋은 책을 읽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그런데 적중하였다. 새로운 영역 흐름을 알게 되었다.

등록을 하고 설명을 들으니 반 킴맹인 나에게도 먼 이야기 같이 들렸다. 한국의 교보문고에 등록된 어카운트를 열고 읽을 책을 다운 받아야 한데 당시 전화기도 카톡이 안 되고 집에 컴퓨터도 없기에 책을 구입하기로 하였다. 나중에는 오디오 북 클럽 덕분에 카톡을 열었고 지금은 잘 사용하고 있다. 다른 부서와 선교회와 목장 모임 소식도 카톡으로 소통하게 되었던 것이다.

처음 시작한 책은 티머시 켈러의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이었다. 친숙하고 평범한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속에서 내 안에 잠자고 있는 나를 깨우고 영적으로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었다. 저자의 지성과 감성과 영성이 정말 깊은 샘에서 퍼 올린 시원한 물과 같이 나의 절망과 영혼을 추스르며 하나님의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을 경험했다.

우리 하나님의 무한정 퍼 주고 베풀어 주는 사랑의 하나님을 깊이 보게 하였다. 교회에 다니는 명목상의 기독교인을 일깨워주며,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 수 없음을 인식하고 겸허히 겸손의 자리에 있게 했다.





두 번째 책은 같은 저자의 “예수를 만나다.” 책을 읽으면서 철학적 용어들로 인해 혼란스럽고 어려웠다. 그러나 뉴욕시의 하버드 클럽과 옥스퍼드 강좌에서의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은 성공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강의한 내용을 기록한 책이었다. 그들을 변화시킨 저자는 이 책을 쓴 이유로 손녀 루이가 18개월 때 무언가를 들고서 소통할 수 없는 좌절의 표정을 보고, 누구나 무언가 심오한 것을 경험한 다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고 할 때 그 경험한 하나님을 제대로 담아내기에 우리의 언어로는 턱없이 부족함을 깨닫게 되었다고 했다. 성경 공부 모임에서 성경의 겹겹의 의미와 통찰력으로 하나님을 찾기 위해 성경을 인내와 사려 깊은 통찰력으로 뒤지기 시작하는 훈련을 통하여 영적인

생활이 바뀌었다고 했다.

“책의 전반부에서는 예수님의 삶에 점철된 주된 사건들을 통해 그가 성취한 것을 살펴봄으로써 예수의 은혜와 능력을 발견하여 우리의 삶에 변화에 이르러 구원으로 이끄신 구속자이자 구원자인 예수를 만나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변화를 책에서 경험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정체와 그 분이 하신 일의 순전한 아름다움을 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나의 책임일 뿐 아니라 가장 큰 욕망이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인물과 예수의 만남의 기록만큼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없다. 예수의 인격과 그가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이 당신에게 깨우침의 벼락을 다시 한 번 내리치기를 소망한다.”고 저자는 서면에 기록했다.

나의 경우 성경을 읽기 전에 기도하고 나서 읽으면 집중해서 읽게 되고 깨우침이 있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말씀을 주실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떠날 수 없는 것처럼, 말씀을 읽으며 내가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고 믿음과 개방성과 신뢰하는 올바른 태도를 취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제 나는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아는 좋은 습관을 이 책에서 배웠다. 영적인 삶에도 변화가 생길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삶의 여정 이기를 바라본다.

## 북클럽을 하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할 일이 많다는 핑계로, 이런 저런 이유로 책을 많이 읽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발견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북클럽이다.

Just Show up!!

타이틀 그대로였다.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 그냥 나타나기만 하면 되는 just show up!

오디오를 통해 책을 읽어주는 것을 듣고 우리는 눈으로 읽는 시간으로 4개월 남짓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3권의 책을 읽어왔다. 분명 내게 필요한 시간임에 틀림이 없었다. 3권의 책을 다 읽었다라는 뿌듯함이 날 기분 좋게 만들었다.

무엇보다도 더 좋았던 것은 나를 비롯해서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이라는 것을 하지 않는 듯하다.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 때문일까, 생각하는 시간조차도 아까운 것인지 깊은 사색이 잘 되고 있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이 시간은 내게 더 필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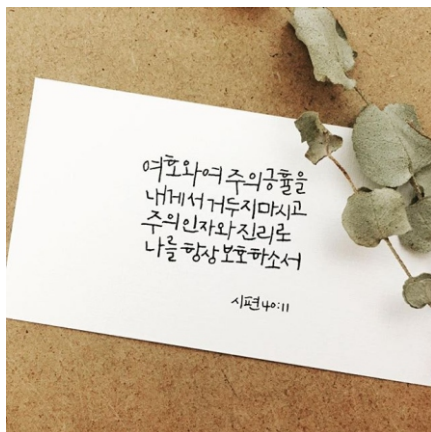
작가의 많은 시간을 고뇌하고 깊은 성찰로 담아진 글자 한 자 한 자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다양한 관점에서 비쳐지는 성경의 새로운 해석을 통

해서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 감사하다.

오랜 연구와 성찰로 된 좋은 책들과 함께한 지난 시간과 앞으로 더 많이 접하게 될 새로운 책들을 생각하면 아직도 설레인다.

둘째 아들이 아침에 학교를 가면서 내게 4-5번의 인사를 하며 학교로 들어간다. 이제 돌아서도 될까하면 인사를 하고 또 인사를 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한 시간씩하는 북클럽이 늘 아쉽고 아쉽기만 하다.

여기 just show up에서 우리 같이 마음의 양식을 쌓아볼까요!!





# JUST SHOW UP YALE Audio Book Club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함께 나누는 매일 오디오 북클럽을 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과 신앙에 관한 서적을 읽어야 우리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말처럼 읽는 것이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시간도 없고 집중도 안 되고 함께, 쉽게, 어려운 책도 부담 없이 즐겁게 나눌 수 있는 Just Show Up 오디오 북클럽에 오세요.

{ 소개 } Just Show Up : 그냥 오세요.

- 미리 읽어야 하는 숙제가 없고 부담이 없습니다.  
· 모이는 순간부터 독서가 시작됩니다.

Audio + book : 책을 읽고 들으세요.

- 눈과 귀를 사용하여 책을 읽으면 집중력이 높아져  
· 어려운 내용도 놓치지 않고 정독할 수 있습니다.

Share together : 함께 나누세요.

- 그날 읽은 내용에 대해 함께 공감하고 이야기  
· 할 때에 더 풍성한 배움이 일어납니다.

- 장소 : 매일 도서관
- 시간 : 매 주일 1:15 - 2:15
- 담당 : 조유경 사모 (신청서를 담당자에게 제출해 주세요.)

\* 책을 구입하지 않아도 JSU 북클럽 전자도서관을 통해 다운로드 받으셔서 읽을 수 있으며, 책을 원하신다면 매일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을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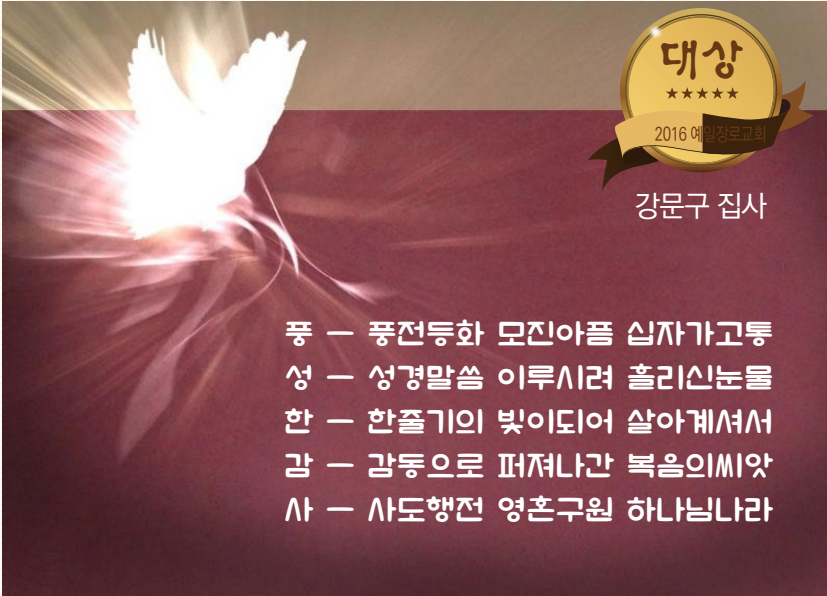
## 신청서


신청자 이름 \_\_\_\_\_

이메일 주소 \_\_\_\_\_

셀폰 전화번호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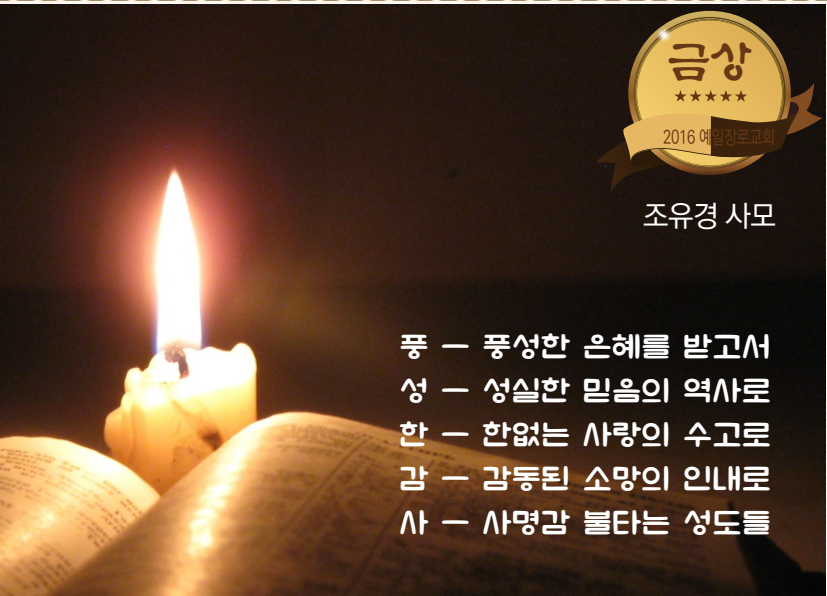






  
**대상**
  
 ★★★★★
   
 2016 예일장로교회

강문구 집사

풍 — 풍전등화 모진아픔 십자가고통  
 성 — 성경말씀 이루시려 흘리신눈물  
 한 — 한줄기의 빛이되어 살아계셔서  
 감 — 감동으로 퍼져나간 복음의씨앗  
 사 — 사도행전 영혼구원 하나님나라




  
**금상**
  
 ★★★★★
   
 2016 예일장로교회

조유경 사모

풍 — 풍성한 은혜를 받고서  
 성 — 성실한 믿음의 역사로  
 한 — 한없는 사랑의 수고로  
 감 — 감동된 소망의 인내로  
 사 — 사명감 불타는 성도들

39기  
새가족

세례식-  
추수감사절



마더와이즈  
-회복

신경호 목사  
임직식



2016  
부활절

He is risen.

# 예수부활 하셨네

뉴욕예일장로교회  
YALE KOREAN PRESBYTERIAN CHURCH IN NY





2016  
체육대회







니카라과  
단기선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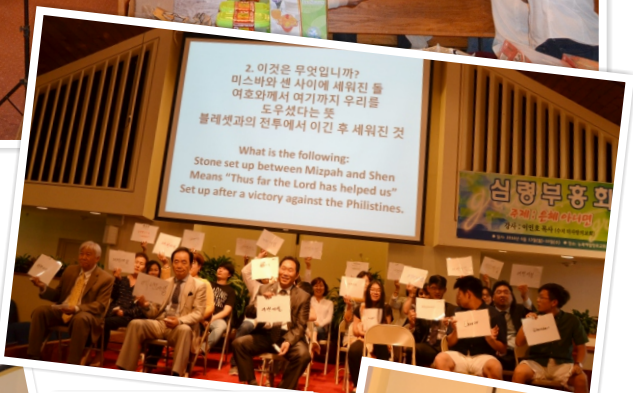


목장  
감사찬양제



# 성경 퀴즈대회

엘리안 이름의 뜻은  
"침을 받았다"라는 뜻이다.  
Meaning of the name Samuel is  
"I drew him out of the water."



# 수련회

뉴욕 예일장로교회 신양수련회 (8.14.16 ~ 8.15.16)

## “내 인생의 레시피”

“Recipe of My Life”

강사: 이응길 목사 (필라 형생장로교회)      장소: 텍사카르라 수영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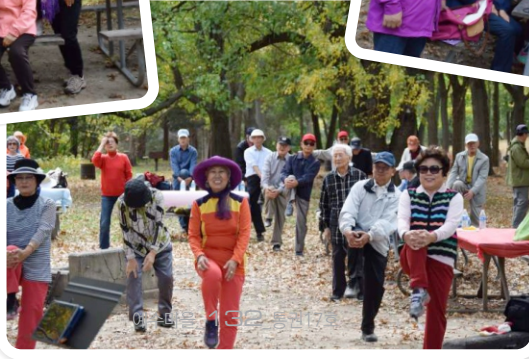


스페인어  
사역





실버클럽  
가을소풍





**심령부흥회**



**심령부흥회**  
 주제: 은혜 아니면 grace  
 강사: 이인호 목사 (수지 더사랑교회)  
 ● 일시: 2016년 6월 13일(월)-15일(수) ● 장소: 뉴욕예일장로교회



알바니아  
단기선교







어린이주일



# 찬송가 외워서 부르기 대회



2016  
성탄절  
(중고등부)



2016  
성탄절  
유아세례



정현아 권사,  
최정희 권사  
은트식

송구영신  
예배



# LENT



## 사순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  
이사야 53:5

다시

# HE IS

요  
락

음을 받았도다

# 부활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20

S RISEN



바쁘신 중에도 귀한 원고를 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마을 통권 17호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까지  
예일교회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없음을 체험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나눔을,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예수마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이 일을 계획하시고, 이끄시고, 열매맺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 출판부원 일동



발행인 김중훈 담임목사

위원장 김근태 장로

부장 박성우 집사

총무 강호정 집사

편집 임미라 집사

부원 김영애 집사 최양미 집사

예수마을 통권 제17호

## 교회 안내

- 명칭 | 뉴욕예일장로교회
- 표어 | 예수님 제일 (마 16: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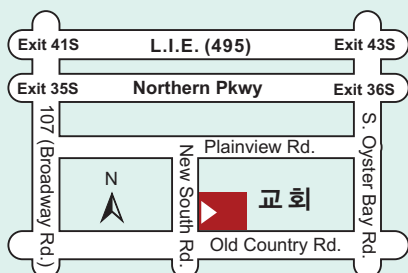
### ■ 실천목표

- ① 영감있는 예배
- ② 십자가 사랑의 교제
- ③ 땅끝까지 복음전파
- ④ 천국일꾼 훈련양성
- ⑤ 이민가정의 치료
- ⑥ 능력있는 기도생활

## 정기모임 안내

집 회		시 간	장 소
주일 예배	1 부 예배	오전 7:30	본 당
	2 부 예배	오전 9:00	본 당
	3 부 예배	오전 11:00	본 당
	영 어 예배	오후 1:00	본 당
	주일찬양예배	오후 2:30	본 당
수 요 예배	오후 8:30	본 당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본 당	
목 장 모 임	오후 8:30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각 목장	
제 자 훈 련	화, 목요일 오후 8:30	교육관	
새벽이슬회(청년)	금요일 오후 8:00	새벽이슬회실	
주 일 학 교	영아부(3세미만) 주일 오전 11:00	영아부 예배실	
	유치부(3~5세) 주일 오전 11:00	유치부 예배실	
	유년부(1~6학년) 주일 오전 11:00	유년부 예배실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실	
	중고등부 금요일모임 오후 7:30	중/고등부 예배실	
SILVER CLUB	목요일 오전 10:00~오후 2:00	친교실	
MOMMY & ME	금요일 오전 10:00~11:30	유치부 예배실	
뉴욕예일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00~오후 12:00	교육관	

## 교회 오시는 길



### 플러싱 방향에서 오시는 길

L.I.E.(495) Exit 43으로 나오셔서 신호등에서 우회전 또는 Northern State Pkwy Exit 36S로 나오시면 S. Oyster Bay Rd.로 연결됩니다. Old Country Rd.를 만나 우회전 하시면 우측편에 교회가 보입니다.

### 롱아일랜드 East 방향에서 오시는 길

L.I.E.(495) Exit 43으로 나오셔서 신호등에서 좌회전 또는 Northern State Pkwy Exit 36S로 나오시면 S. Oyster Bay Rd.로 연결됩니다. Old Country Rd.를 만나 우회전 하시면 우측편에 교회가 보입니다.

# 예수님 제일미신 교회

해외한인장로회  
**뉴욕 예일장로교회**  
YALE KOREAN PRESBYTERIAN CHURCH IN NEW YORK

담임목사 **김종훈**  
Rev. Jong Hoon Kim, Pastor

17 New South Rd., Hicksville, NY 11801  
Tel. 교회 516-938-0383 • Fax. 516-938-3824 • 목사관 516-921-6012

[www.yalechurch.org](http://www.yalechurch.org)

